기본연구

01-15

Study on Method of Effective Employment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실업계 고등학생 취업지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01-15

Study on Method of Effective Employment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실업계 고등학생 취업지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이 영 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머 리 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0년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새로운 발전 방향의 총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실업계 고교 육성과 관련한 각론에서의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중요 교육영역의 하나였으나,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관심밖에 밀려나고 있는 분야가 취업지도이다. 더구나 1997년 IMF의 구제금융조치 이후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졌고, 또한 2002년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으로 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계 고교생이 더욱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실업계 고등학교는 경제적 형편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진학보다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상당수가 있어서 취업지도는 여전히 실업계 고등학교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 연구 수행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자,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과학연구원, 일선의 실업계고등학교 담당자들의 많은 협조가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가 실업계 고교생들의 취업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급변하는 교육여건 속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취업지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001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강 무 섭

【연구요약】

본 연구는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업계 고교생들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취업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은 취업지도 관련 이론과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의 연구동향 파악,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실업계 고교관련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 파악 및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 수립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토대로 시·도교육청 관계자, 실업계 고교 교원 등의 전문가협의회 및 실업계 고교 교직원 및 취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작위로 표집한 전국 120개 실업계 고교의 교원, 졸업생, 학부모 등을 포함한 총 840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월말까지 회수된 93개 학교의 응답자와 전문가 조사자료를 합쳐서 총 668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의 현황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 가운데 농업고, 상업고, 수산·해양고, 종합고는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고와 공업고는 증가하고 있다. 진학자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취업자는 증가추세에서 1990년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1995년에 비하여 2001년에는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률은 감소하였으나 진학률은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농업계, 상업계, 공업계, 수·해운계, 가사계 등 모든 유형의 실업계 고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졸업생들의 2001년도 취업현황은 졸업생 중 54.4%인데 성별로는 남학생의 취업률이 47.5%로 여학생(61.9%)에 비하여 낮았다. 취업희망자 중 94.8%가 취업을 하였는데 계열에 따른 취업희망자에 대한 취업률은 가사가 98%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고 수·해운업(96.2%), 공업(96.4%), 상업(94.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관련 현황을 보면 먼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는 정도가 매우 낮으며 취업에 대한 욕구도 높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강요에 의하여 취업보다는 진학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실업계 고교생들이 중학교까지의 계속된 실패경험에 의하여 자신감이 부족하고 인성측면에서 지도가 필요하나 그렇지 못하며, 다양하고 효과적인 취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현장실습에 대하여 교원이나 학생 모두가 산업체에서의 적응력 신장, 취업정보 획득, 진로탐색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전체 학생의 일부만이 현장실습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나타나므로 현장실습에 있어서 개선이 될 여지가 있음을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취업상담실의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며 취업지도 관련 예산액이 매우 낮으며, 취업에 관련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비율이 낮았다. 취업지도관련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실업계 고교에는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종합적 자료가 부족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진부하다고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지도를 위한 교원 측면을 보면, 전담 교원수가 인문계 고교나 중학교에 비하여 많은 편이었지만 실업계 고교 교원들은 취업지도 업무가 지원이 많이 되는 영역이 아닌 잡무중의 하나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황과 문제에 따라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의 개선 방안을 크게 사회적인 조건,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의지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측면, 현장실습, 취업지도의 네트워크 설치 및 운영 측면 및 교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건으로 ①국가공무원 및 법인, 산업체 등에 특별채용 제도화, ②실업계 고교 졸업생에게 불

리한 관행이나 법제도 개선, ③실업계 고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④산업기능제도 개선과 병역연기, ⑤선 취업 후 진학 여건 조성, ⑥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우대책 강구, ⑦고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⑧실업계 고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다.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 의지 개발이 필요한데 ①자신의 적성과 흥미 측정 기회 제공, ②학생의 근로의욕 함양, ③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 강요 억제, ④취업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대학진학 유도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①인성지도 프로그램 운영, ②다양한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③진로탐색 과정 운영, ④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⑤체험중심 취업교육 활성화, ⑥취업지도를 독립교과로 운영, ⑦직업기초능력 개발 교육강화, ⑧통합형 고교 시범적용 후 진학반과 취업반의 이원화 운영검토 ⑨졸업생과의 만남 및 특강기회 부여, ⑩취업상담 강화, ⑪졸업생 추수지도 등이 필요하다.

현장실습개선을 위하여 ①교육적 성격 강화, ②실용적인 성격 강화, ③학교와 회사와의 연계 강화, ④현장실습 의무제도 개선을 제시한다.

취업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①국가 및 지역단위 취업정보센터의 기능 강화, ②학교단위 진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③진로정보센터의 예산 확충과 홍보 강화, ④홈페이지의 취업코너 설치 및 운영, ⑤취업망 형성 등이 필요하다.

실업계 고교 교원측면에서는 ①취업지도 담당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강화, ②진로전담 교원수 확대, ③실업계 교원의 인식 전환, ④시·도교육청에서 취업지도 및 상담전문인력의 관리체제 수립, ⑤취업지도 담당교원의 업무과다 해소, ⑥학교장의 취업지도에 대한 관심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취업한 졸업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일선 산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 대하여 취업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와 관련하여 학부모와의 밀접한 협조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실업계 고교에서는 학부모의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학부모와의 개별면담을 통하여 자녀의 적성과 흥미, 기타 여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취업이 유리한 학생에게는 취업을 권장하도록 유도하여야한다.

여섯째, 현재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 진로지도, 취업지도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합 운영하여 진로상담실에 이들 당사자들이 한 장소에 상주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비밀상담실을 두는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일곱째, 일선 학교에서는 활용가능한 취업정보가 부족하므로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이런 정보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겠다.

여덟째,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와 DB)을 통한 취업지도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홉째,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취업지도를 정규교과 시간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하여 7차교육과정의 재량활동시간에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열번째,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각시도교육과학연구원 등에서 취업지도용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기존의 커리어넷에 실업계 고교 분야를 신설함으로써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에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하겠다.

차 례

연구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3. 연구의 방법과 절차 3
4. 용어의 정의 9
5. 연구의 제한 10

Ⅱ.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관련문헌고찰 11

1. 취업지도의 개념과 내용 11
2. 취업지도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인 13
3.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16
4.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관련선행연구 23
5. 시사점 28

Ⅲ.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의 현황과 문제 31

1.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추이 31
2. 실업계 고교생의 진로미결정과 취업의지 미약 36
3. 프로그램 측면 39
4. 산학협동 측면 40
5. 직업정보 측면 43
6. 교원 측면 48

Ⅳ.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의
기대효과에 대한 의견 51

1.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여건조성 51
2. 실업계 고교생의 자기 이해 측면 60
3. 프로그램 측면 61
4. 현장실습개선을 위한 산학협력강화 70
5. 취업정보 제공 측면 72
6. 교원 측면 80
7. 정책의 우선 순위 83

Ⅴ.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 85

1.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여건조성 85
2. 실업계 고교생의 자기 이해와 취업의지개발 91
3. 프로그램 측면 94
4. 산학협력측면 103
5. 취업정보 제공 측면 105
6. 교원 측면 110
7. 각 기관별 추진과제 115

Ⅵ. 요약 및 제언 117
1. 요약 117
2. 제언 119

참고 문헌 123
ABSTRACT 127
부 록 133

표 차 례

<표 Ⅰ- 1> 질문지의 구성 5
<표 Ⅰ- 2> 응답자의 일반현황 6
<표 Ⅰ- 3> 관련전문가협의회 참석자 7
<표 Ⅰ- 4>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관련 연구 학교 협의내용 8
<표 Ⅰ- 5>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과의 관계 9
<표 Ⅱ- 1> 취업지도의 내용 12
<표 Ⅱ- 2> 현장실습 학습인정 단위기준 20
<표 Ⅱ- 3>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관련 연구동향 24
<표 Ⅱ- 4> 서울특별시의 실업계 고교 교육 활성화 대책 중 실업계 고교생 취업지도 관련 내용 25
<표 Ⅱ- 5> 인천광역시의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방안 중 취업지도 관련 내용 26
<표 Ⅱ- 6> 실업계 각급 학교별 취업관련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27
<표 Ⅱ- 7> 실업계 고교 취업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집행기관 및 전문연구기관 담당자의 의견 28
<표 Ⅱ- 8> 선행연구와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지항목 비교 30
<표 Ⅲ- 1> 실업계 고교 유형별 졸업생 추이 32
<표 Ⅲ- 2>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추이 33
<표 Ⅲ- 3>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계열별 취업률 및 진학률 변화추이 … 33
<표 Ⅲ- 4>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전공분야 취업률 34
<표 Ⅲ- 5> 2000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계열별·성별 취업현황 35
<표 Ⅲ- 6>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계열별 전공분야 취업비중 추이 .. 36
<표 Ⅲ- 7> 상업계 고교생의 졸업후 희망진로 37
<표 Ⅲ- 8> 학교 유형별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정도 38
<표 Ⅲ- 9>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시간의 충분 정도 40

<표 Ⅲ-10>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구인정보 취득원 44
<표 Ⅲ-11> 실업계 고교의 유형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여부 45
<표 Ⅲ-12>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 시스템 구비 정도 45
<표 Ⅲ-13> 진로상담실 방문 학생수 47
<표 Ⅲ-14> 진로정보실 운영예산의 충분 여부 47
<표 Ⅲ-15> 진로정보실 및 진로상담실 공간확보 실태 48
<표 Ⅳ- 1>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여건 조성에 대한 의견 51
<표 Ⅳ- 2> 학교유형별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조건에 대한 교원의 의견 52
<표 Ⅳ- 3> 해당 부서별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조건에 대한 교원의 의견 53
<표 Ⅳ- 4> 거주지역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조건에 대한 교원의 의견 53
<표 Ⅳ- 5> 담당교과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조건에 대한 교원의 의견 54
<표 Ⅳ- 6> 학교설립형태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조건에 대한 교원의 의견 54
<표 Ⅳ- 7> 특별채용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 55
<표 Ⅳ- 8> 관행이나 법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 55
<표 Ⅳ- 9> 실업계 고교의 사회적 인식제고에 대한 의견 56
<표 Ⅳ-10> 병역혜택부여에 대한 의견 57
<표 Ⅳ-11> 산업체 근무자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의견 57
<표 Ⅳ-12> 국가자격소유자에 대한 우대책 강구에 대한 의견 58
<표 Ⅳ-13> 고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강화에 대한 의견 59
<표 Ⅳ-14> 실업계 고교에 대한 재정지원강화에 대한 의견 59
<표 Ⅳ-15> 적성 및 흥미 검사 강화에 대한 의견 60
<표 Ⅳ-16> 교원의 특성별 적성 및 흥미 검사 강화에 대한 의견 61

<표 Ⅳ-17>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프로그램 관련 시책의 효과에 대한 의견 62
<표 Ⅳ-18> 학교유형별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프로그램 관련 시책의 효과에 대한 교원의 의견 63
<표 Ⅳ-19> 해당 부서별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프로그램 관련 시책의 효과에 대한 교원의 의견 64
<표 Ⅳ-20> 학교위치별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프로그램 관련 시책의 효과에 대한 교원의 의견 64
<표 Ⅳ-21> 담당과목별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프로그램 관련 시책의 효과에 대한 교원의 의견 65
<표 Ⅳ-22> 학교설치 주체별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프로그램 관련 시책의 효과에 대한 교원의 의견 65
<표 Ⅳ-23>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의견 66
<표 Ⅳ-24>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 66
<표 Ⅳ-25> 진로탐색 과정운영에 대한 의견 67
<표 Ⅳ-26> 체험중심 취업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 67
<표 Ⅳ-27> 취업교육을 독립교과로 설정에 대한 의견 68
<표 Ⅳ-28> 직업기초능력 개발 교육강화에 대한 의견 68
<표 Ⅳ-29> 진학과정과 취업과정 이원화 운영에 대한 의견 69
<표 Ⅳ-30> 졸업생과의 만남 및 특강기회 증대에 대한 의견 70
<표 Ⅳ-31> 산학협력강화에 대한 의견 70
<표 Ⅳ-32> 교원의 특성별 산학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71
<표 Ⅳ-33>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관련 정보측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72
<표 Ⅳ-34> 학교유형별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정보분야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73
<표 Ⅳ-35> 소속 부서별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정보분야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73

<표 Ⅳ-36> 학교위치별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정보분야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73
<표 Ⅳ-37> 담당교과별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정보분야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74
<표 Ⅳ-38> 학교설립주체별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정보분야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74
<표 Ⅳ-39> 국가 및 시·도 단위의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 75
<표 Ⅳ-40> 학교단위 진로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 76
<표 Ⅳ-41> 취업정보 확충에 대한 의견 76
<표 Ⅳ-42>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취업지도 강화에 대한 의견 77
<표 Ⅳ-43> 취업정보 제공 강화에 대한 의견 78
<표 Ⅳ-44> 직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의견 78
<표 Ⅳ-45> 취업상담 강화에 대한 의견 79
<표 Ⅳ-46> 상담체제 구축에 대한 의견 79
<표 Ⅳ-47> 학교유형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교원측면 항목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80
<표 Ⅳ-48> 소속 부서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교원측면 항목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80
<표 Ⅳ-49> 학교위치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교원측면 항목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81
<표 Ⅳ-50> 담당교과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교원측면 항목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81
<표 Ⅳ-51> 학교설립주체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교원측면 항목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81
<표 Ⅳ-52> 전교원의 진로상담 교원화를 위한 연수에 대한 의견 82
<표 Ⅳ-53> 취업상담 인력관리 체제수립에 대한 의견 82
<표 Ⅳ-54> 전문상담교사 확보에 대한 의견 83
<표 Ⅳ-55>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방안(안)에 대한 관련자의 의견 … 84

<표 Ⅴ- 1>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기업 규모 86
<표 Ⅴ- 2> 실업계 고교생의 자기 이해측면에서의 현황과 개선방안 92
<표 Ⅴ- 3>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 관련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안 … 95
<표 Ⅴ- 4> 인사담당자들이 실업계 고교 졸업생 채용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96
<표 Ⅴ- 5> 실업계 고교 계열별 졸업생의 취업시 가장 중요한 기준(교원) .. 99
<표 Ⅴ- 6>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산학협동 측면의 현황과 개선방안 103
<표 Ⅴ- 7>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정보 관련 현황과 개선방안 105
<표 Ⅴ- 8> 교원측면의 현황과 개선방안 110
<표 Ⅴ- 9> 각 기관별 취업지도 관련 담당과제 116

그 림 차 례

[그림 Ⅱ-1] 직업선택시 고려해야 할 개인특성 13
[그림 Ⅱ-2] 직업선택시 고려해야 할 직업특성 15
[그림 Ⅱ-3] 실업계 고교생의 진로결정 과정 17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실업계 고교 교육이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다. 강무섭 등(2000)은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을 학생, 교육과정 운영, 교원, 교육시설·설비, 산학협동, 자격제도, 진로지도, 행·재정 지원 등에서 찾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 교육의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0년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방안들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정책과제별 정책방안 내용 구성을 위한 기초 및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방안 및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001년 2월 졸업생의 경우 실업계 고교생 가운데 44.9%(121천명)가 진학을 하였는데, 이것은 불과 10년 전인 1991년의 7.8%(21천명)에 비하여 그 비율에서나 인원수에서 5.8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학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나 취업분야는 여전히 중요 영역이다.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지도의 필요성을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실업계 고교 졸업생중 진학을 희망하거나 실제 진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상당수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핵가족화로 인한 고등교육의 욕구증대, 그리고 사회전반에 남아 있는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 등으로 인하여 실업계 고교 졸업생 중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 전체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취업을 하고 있으며 실업계 고교의 중요한 설립 취지라 할 수 있는 실업계 고교의 정체성(identity)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취업지도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경기침체로 취업이 어려워졌으나 한편에서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 중

에서 약 3만 명 가량의 필요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김형만외. 1999).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인력난이 있는 업체는 57.6%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 2001). 아직도 사회·경제적인 변화 추이에 따라 실업계 고교졸업 수준의 산업인력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필요하며, 앞으로도 이들 산업인력의 양성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산업인력의 포기는 한국인의 초기입직연령이 선진국에 비하여 늦은 것을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이다. 1999년 현재 한국의 첫 취업연령(입직연령)은 27.2세로 선진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여타 국가 평균 22.1세보다 5.1세가 많다. 입직연령은 영국 21.0세, 호주 21.4세, 미국 22.0세, 독일 22.2세, 캐나다 22.8세, 프랑스 23.2세 등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셋째,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김형만 등의 연구에 따르면 1년 이내의 직장 이직이 높은 학력계층을 알아본 결과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근로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형만외. 1999). 경상북도에서는 취업지도의 방향으로 취업 후 이직률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한겨레신문. 1999. 3. 10).

넷째, 2001년 들어 실업계 고교생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IMF 사태 이후 경기가 다소 나아졌으나 최근 다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계 고등학생이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실업계 고교생들의 능력과 소질에 부합하면서 현실정에 가장 부합하는 취업지도 전략과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업계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업계 고교 교직원들은 실업계 고교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실업계 고교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실업계 고교 교육의 중점분야도 '진학'은 3%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가 60%대, '졸업 후 취업'이 30%대로 각각 나타났다(이종성 외. 2000a).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 대한 취업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1년도 연구학교 선정과정에서 실업계 고교 진로정치(進路定置 job placement) 시범학교를 통일교육, 양성평등교육, 영재교육 등과 함께 포함시켜 3년 동안 매년 1,000만원씩 16개 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2000년 말에 연구학교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진로정치 시범연구학교는 단순한 진로지도가 아닌 실업계 고교 학생의 취업지도 활성화와 이를 위한 산학협동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업계 고교교육에서 중요한 기능인 취업지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기반을 조성하며 나아가 실업계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함에 있다.

2. 연구의 내용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취업지도 관련 이론과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연구동향을 파악한다. 둘째,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①실업계 고교생의 진로 미결정과 취업의지 측면, ②프로그램 측면, ③현장실습 운영 측면, ④직업정보제공 측면, ⑤교원 측면에서이다. 셋째,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으며, 넷째,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3. 연구의 방법과 절차

가. 관련문헌조사

연구방법으로는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관련 각종 통계자료와 문헌을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각시도에서 작성된 실업계 고교육성 계획 자료를 집중 검토하였으며, 경기도 관내 전체 실업계 고등학교의 2000학년도 교육계획서를 분석하였다.

나. 실업계 고교의 홈페이지 검색

전국 780개 실업계 고교 중 95% 정도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실업계 고등학교의 홈페이지 내용에서 취업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다. 설문조사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에 관한 선행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1번이라도 제시된 정책과제 29개에 대하여 교원, 학부모, 졸업생 및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29개로 취업지도 사회적인 조건, 정보제공측면, 현장실습 측면, 지도 프로그램 측면, 교원 측면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표 Ⅰ-1 참조).

전국 780개 실업고교 중 학교유형과 지역을 고려하여 층화표집(cluster sample)된 120개 학교에 7부씩 설문지(학교별로 교원 3명, 졸업생 2명, 학부모 2명) 합계 840명에 대하여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93개 학교의 653명에 대한 응답 결과를 회수하여 활용하였다.

아울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30명에게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메일로 실시하여 15명으로부터 응답결과를 회신 받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응답한 교원, 졸업생,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Ⅰ-2>와 같다. 학교유형별로는 공업고가 31.4%, 상업고가 23.9%, 농업고가 15.2%, 수산·해양고가 2.1%, 가사·실업고가 3.2%, 종합고가 17.8%, 실업고가 1.8%로 각각 나타났다.

<표 Ⅰ-1> 질문지의 구성

취업지도 분 야	개선방안(안) 세부내용	질문지 번 호
사회적인 조건	졸업생에 대한 병역혜택 부여	1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국가공무원 및 법인, 산업체 등에서 특별 채용제도화	11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 부여	12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국가 기술자격을 소유한 자에 대한 우대책 강구	13
	실업계 고등학생을 위한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14
	실업계 고교교육과 자격제도와의 연계 강화	16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게 불리한 관행이나 법제도 개선	17
	실업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제고	18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강화	28
정보제공 측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직업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	7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교별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19
	취업정보실의 종합적인 취업관련 정보 확충과 정보제공	22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시	25
	각 특별시·광역시나 도 단위에서 실업계 고등학생을 위한 취업정보 센터 설치운영	26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취업지도 강화	27
현장실습 측면	실업계 고등학교와 산업체간의 협력 강화	15
지도 프로그램 측면	독립교과로 취업교육 설정	2
	전문적인 취업상담 강화	3
	체험중심의 취업교육 활성화	4
	진학과정과 취업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6
	상담체제 구축	9
	심리검사를 통해 적성과 흥미 등의 개인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것	20
	직업기초능력의 개발을 위한 교육	21
	직업윤리 등 인성보충지도 프로그램 강화	24
	진로지도 강화를 통한 선행 진로탐색과정 운영	29
	졸업생과의 만남 및 초청특강 지도	8
교원측면	시·도교육청에서 취업지도 및 상담전문인력 관리체제 수립	5
	전문상담교원 확보	10
	전교원의 진로상담 교원화를 위한 연수강화	23

<표 Ⅰ-2> 응답자의 일반현황

(단위 : 명, %)

구 분		빈도(백분비)	구 분		빈도(백분비)
학교유형	공업고	205(31.4)	학교위치	대도시	219(39.7)
	상업고	156(23.9)		중소도시	154(27.9)
	농업고	99(15.2)		읍·면 지역	178(32.3)
	수산해양고	14(2.1)		계	551(100.0)
	가사실업고	21(3.2)			
	종합고	116(17.8)			
	실업고	12(1.8)			
	계	653(100.0)			
응답자	교원	567(87.0)	학교 설립주체	국립	19(3.5)
	졸업생	45(6.9)		공립	408(74.5)
	학부모	40(6.1)		사립	121(22.1)
	계	652(100.0)		계	548(100.0)

* 전문가 15명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교원이 87.0%, 졸업생 6.9%, 학부모 6.1%로 각각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선 학교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학교의 상황에 따라 졸업생과 학부모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교원으로 대체하게 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학교의 소재지별로는 대도시가 39.7%, 중소도시가 27.9%, 읍·면 지역이 32.3%로 나타났으며 학교설립 형태로는 국립이 3.5%, 공립이 74.5%, 사립이 22.1%로 각각 나타났다. 실제로 학교형태별로는 사립이 많이 있지만 이 조사에서 공립이 많은 것은 사립보다는 공립학교에서 더 많이 응답을 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라. 관련 전문가 협의회 개최

선행연구 분석과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조사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안)을 마련한 후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에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

<표 Ⅰ-3> 관련전문가협의회 참석자

구 분	소 속	성 명
시·도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실업교육 담당 장학관	정수열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학사	장기석
교육과학 연구원	대구 교육과학 연구원 연구사	김남옥
실업계 고교	대구공고 취업담당 부장	안희원
	광주 기계공고 취업담당	라문선
	광주 전자공고 취업담당	박충하
	광주 옥천여상 취업담당	송희정
시·도청	대구광역시청 실업대책반 사무관	안국중
지방 노동청 및 인력은행 (고용안정센터)	대구 지방 노동청 대구 인력은행 팀장	이신희
상공회의소	대구 상공회의소 검정과장	김교삼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대구광역시 전문가 협의회(2001년 7월 10일(화) 15:00 17:00)에는 대구광역시청 실업대책반 관계자, 시도교육청 관계자, 실업계 고교 교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과학연구원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교육청 협의회실(2001년 7월 11일(수) 15:00 17:00)에서 이루어진 광주광역시 전문가 협의회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일선 학교 취업담당 교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들 명단은 <표Ⅰ-3>과 같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업계 고교진로정치 연구학교로 지정된 16개 학교의 실업계 고교 진로정치 시범운영학교 1차사업년도의 운영사례를 교육인적자원부, 각시도교육청 장학사, 일선학교 교장·교감, 및 실무자들과 검토를 함으로써 실업계 고교에 맞는 취업지도 방안에 대하여 같이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본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실업계 고교의 취업관련 조직체제(학교, 시·도교육청 포함), 교원확보 및 인력육성 방향, 취업지도 자료 개발,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하여 지난 9개월 동안의 자료를 검토하여 보았다. 그 세부내용은 <표 Ⅰ-4 >와 같다.

<표 Ⅰ-4>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관련 연구 학교 협의내용

	1차	2차	3차
일시	10. 8. 09:30 9. 15:00	10. 16. 09:30 17. 17:00	10. 18. 09:30 19. 17:00
장소	청주농고(청주)	경기기계공고(서울)	제주여상(제주)
영역	농업	공업	상업
대상	유성농고(대전) 홍천농고(강원) 청주농고(충북) 공주농고(충남)	경기기계공고(서울) 부산전자공고(부산) 경북기계공고(대구) 전남공고(광주) 수원정보공고(경기) 해남공고(전남) 경남항공고(경남)	인천여상(인천) 울산서여상(울산) 군산여상(전북) 죽변종고(경북) 제주여상(제주)
참석 범위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 시·도교육청 담당장학사 교장(교감), 담당교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좌 동	좌 동

마. 교육청 및 학교 현장 방문 면담 및 자료수집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시도 교육청과 일선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청 담당 장학관, 장학사 및 일선 학교 교원들과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내용은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시책과 학교의 교육운영방향 중 취업지도 관련 내용 등이다.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Ⅰ-5>와 같다.

<표 Ⅰ-5>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과의 관계

연구내용	연구방법
취업지도 관련 이론과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연구동향 파악	관련문헌 조사 및 고찰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정리	관련문헌고찰 실업계 고교 홈페이지 검색 실업계 고교 교육계획서 분석 학교현장방문 시도교육청 담당자 면담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에 대한 요구 분석	실업계 고교에 대한 우편조사(교원, 학부모, 졸업생) 이메일 조사(전문가)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 수립	전문가 협의회 실시(2회)

4. 용어의 정의

가. 취업

일이란, 사람이 어떤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는 정신적, 육체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직업이란, 우리가 수행하는 일 가운데 생계를 위한 수입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취업(就業)이란 일자리를 얻는 것, 즉 직업을 갖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제외한 정규적으로 일정한 노동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나. 취업지도

본 연구에서 취업지도란, 학생의 적성과 능력, 흥미 등에 맞는 분야를 선정하여 그 분야의 직업 및 직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실질적인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과정을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본 연구에서 취업지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의 초점이 학습자변인과 학교현장변인에 주로 제한되어 있다.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산업체 관련인사들의 실업계 고교 학습자들의 취업지도와 관련된 인식의 범위와 교육적 의식(mind), 그리고 인력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네트웍의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취업지도를 위하여 기능인프라의 양성 및 그 활용에 있어 산학연계 특히, 산업체 관련자들과의 공감대(consensus)의 형성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더 큰 변수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산업체 변수나 기타 주변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여나가면서도 실업계 고등학교 내에서 취업지도를 개선하여 나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미 그 분야에서는 선행연구가 상당수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Ⅱ.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관련문헌고찰

1. 취업지도의 개념과 내용

취업지도는 학생 개인이 일정한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며, 취업하여 향상 발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이며 그것은 각 개인이 자신의 장래에 관한 계획을 세워 만족할 수 있는 직업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결정이나 선택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직업정치는 내담자나 학생들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려는 정치활동이다. 즉, 직업정치는 진로상담이나 진로지도의 과정을 거쳐 학생이나 내담자를 이들의 특성에 알맞은 직업이나 진로로 배치하려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정철영. 1999). 우리 나라의 경우, 직업정치는 취업지도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종국교육기관에서 졸업생들의 취업알선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다.

정치활동(placement service)은 취업, 진학, 진급, 선택과목의 선정, 특별활동의 결정 등과 같이 개인 또는 집단이 어떤 선택적 결정을 내리게 될 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조정과 협조를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정치활동이란 취업지도, 부직알선지도 등에서 자신과 진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자기 자신의 배치를 현명하게 선택하는데 조력하는 것이다(김충기.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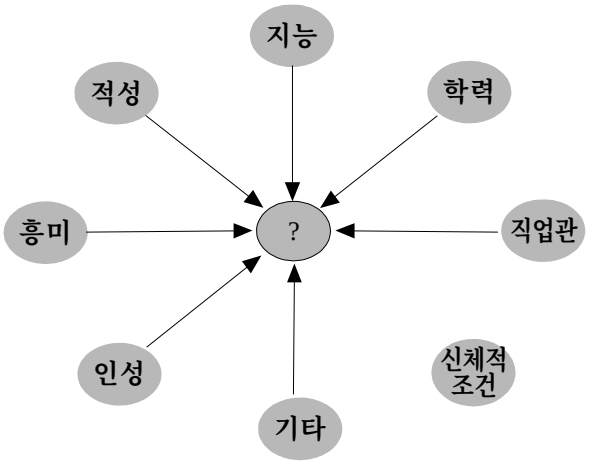
취업지도는 학교 성적, 자격취득, 용모, 가정환경,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기업체에서 요하는 조건에 합당한 학생을 공정하게 추천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심도 있게 학생지도를 실시하여 취업을 성취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서 취업지도시 이루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Ⅱ-1>과 같다(김용수. 1995).

<표 Ⅱ-1> 취업지도의 내용

구 분	지 도 내 용
취업지도 위원회 운영	- 취업정보제공 - 추천대상자 성적분석 - 추천대상자 선정 - 취업에 관한 제반사항 의결 등
추천대상자 선정	- 담임교사: 기업체 요구 조건에 따른 추천자명단 제출 - 취업담당교사: 자격, 개인의 능력, 신체조건 및 가정환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임자 선정
추천대상자 수험지도	- 필기시험 응시자: 치밀한 계획 수립으로 일관성있는 지도(기출문제, 중요문제 종합지도, 수험상의 유의점 등 종합적인 지도로 평소실력을 발휘하도록 지도함) - 면접시험 응시자: 예년에 실시한 면접 내용을 중심으로 모의면접 실시 -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성장과정, 성격의 과정, 자원동기, 장래희망 삶에 대한 의지, 정신력 등 필요한 사항 지도 - 이력서-깨끗한 글씨로 체제를 세워 학력, 경력, 자격으로 구분하여 한자 및 한글 쓰기 지도 - 제반서류: 기타 각종 취업 서류 종합지도
불합격자 지도	- 신입사원 추천인원: 모집 인원의 3배수 추천이 일반적 관례이므로 불합격자가 많다. 이들을 대상으로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직장예절 지도	-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으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인간중시 태도 육성 및 지속적인 예절 지도로 즐거운 직장생활 유도(직업윤리)

자료: 김용수(1995).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상업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 취업지도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인



[그림 Ⅱ-1] 직업선택시 고려해야 할 개인특성

자료: 영월공고(2000). 진로설계자료집.

취업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그림 Ⅱ-1] 과 같이 개인의 흥미, 적성, 인성, 지능, 학력, 직업관, 신체적 조건 등이 있다[1].

지능이란 문제사태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전문직, 숙련직, 기능직 등의 직업수준을 결정하는 문제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서 능력차이가 심한 직장 속에서의 승진과 인간관계 등의 문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므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적성은 좋은 의미로 어떤 직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특수능력을 말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에는 그 직업에 대한 적성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그 직무를 빨리, 그리고 훌륭히 수행하며 의욕적일 것이기 때문에 직업선택을 위해서는 적성의 발견과 이에 맞는 계획이 특히 필요하다. 넓은 의미의 적성은 반드시 능력에만 한정하지 않고 직업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모든 조건을 포함한다.

---

1 이하 자료는 영월공고(2000)에서 인용함.

지능과 적성이 능력의 잠재된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학력은 학습을 통해 이 잠재력이 발현된 능력이라 볼 수 있다. 어떤 직장 또는 학교는 취업이나 취학조건으로써 일정수준의 학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학력이란 잠재적 능력을 바탕으로 성취동기와 시간 및 노력의 소산이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능력의 차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적성이나 지능을 무시하고 학력과 직업을 기계적으로 관련 지우는 것은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현명한 직업선택에는 지적요인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흥미, 직업관, 인성, 등 정의적 요인들은 능력만큼 중요하다. 흥미는 인간행위의 중요한 동기적 요인 중의 하나이다. 흥미와 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는 아직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능력이 있다고 반드시 흥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흥미가 있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흥미는 행동의 원동력과 활력소가 되는 동기의 힘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흥미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직업관이란 개인의 기본적,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동기와 관련된 개인의 전체적 가치관의 일면으로서 작업동기라 볼 수 있으며, 직업활동의 만족도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성이란 그 사람의 전체적인 됨됨이를 말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인간생활의 적응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어떤 직업 또는 직무에 어떤 인성이 적합한 것이지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보다 역동적인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자기의 인성이 직업적응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영자는 종업원의 능력보다는 인성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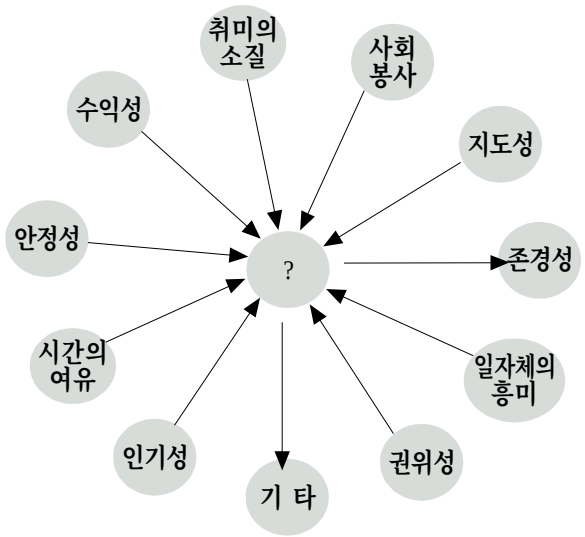
신체적인 조건은 어떤 직업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나 자질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신체적인 조건이 불비하면 그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다. 현실적인 직업선택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약점이 없을 수 없고, 강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문제는 자기의 강한 면과 약한 면을 찾아서 이를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다. 자기를 알 때 강한 면은 더욱 북돋우고 약한 면은 보완하면서 인생을 설계할 때 그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약속되는 것이다.

자기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환경 속의 자기 또는 환경과의 관계

속의 자기를 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선택도 이 환경의 힘을 무시하고 설계될 수는 없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은 가정환경이다. 직업선택에 있어서 가정환경 요인은 특히 우리 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환경은 사회·문화적 환경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그 사회의 구성원의 행동을 구속하는 규범이란 것이 있다. 이 규범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우리의 직업선택에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직업에 대해 개방적이냐 하는 점에 대한 정당한 이해에 따라 가치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직업에 대한 사회적 위세 때문에 자기의 적성과 이상이 무시되고 특정 직업을 추구하려 하지는 않는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취업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은 [그림 Ⅱ-2] 와 같다. 구체적으로 직업의 안정성, 수익성, 취미와 소질, 사회봉사, 지도성, 일 자체의 흥미, 권위성, 인기성, 시간의 여유 등이 취업지도 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Ⅱ-2] 직업선택시 고려해야 할 직업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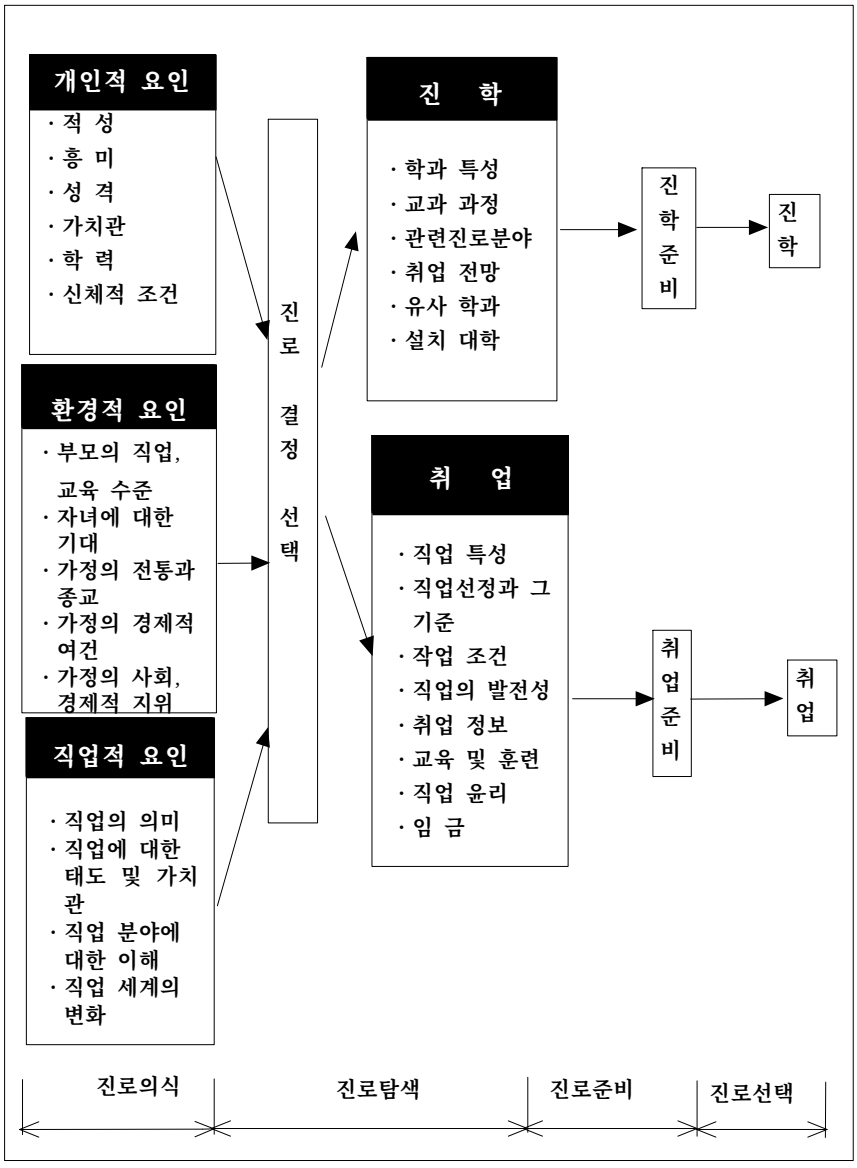
3.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1) 취업의지 측면

우리 나라 실업계 고교는 산업기술인을 양성하는 완성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실업계 고교생들은 사회적 대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보다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취업을 기피하고 가능한 진학을 선호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에 임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취업 혹은 진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Ⅱ-3] 과 같이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적 요건과 부모의 직업,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 가정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과 같은 가정적 요건 및 직업세계에 세계에 대한 이해 등 직업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취업이나 진학여부의 결정에 관련되는 3가지 요인, 즉 학생의 자신에 대한 이해, 학생들의 근로의욕 함양 및 학부모들의 올바른 의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취업에 더 이상의 갈등 없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며 취업을 한 뒤 2 3년의 경험을 쌓은 후 대학에 진학하여 직업인으로서 더욱 요구되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장석민 외. 1999).

취업지도는 단순히 취업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입각하여 그 일이 요구하는 능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며 성공적으로 자신의 일과 직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취업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인 흥미와 이해를 가지고 스스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조언을 해야 한다.



[그림 Ⅱ-3] 실업계 고교생의 진로결정 과정

자료: 장석민 외(1999). 꿈을 키우는 자녀. 도와주는 부모. p.265.

2) 프로그램 측면

일반적으로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의 구성요소로는 취업지도위원회 조직, 취업 지도 연간계획 수립, 자아이해 교육, 가정환경 조사, 표준화 검사, 취업 서열명부 작성, 교과 연계지도, 진로의 날, 진로주간 운영, 특별활동 지도, 교육과정 관련 지도 공채시험 지도, 취업 추천기준 제시, 취업 모의고사 실시, 입사서류 작성 지도, 현장실습 기초조사, 기업체 인력 수급계획 조사, 현장실습 의뢰, 현장 실습 계획, 실습 파견, 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습 순회지도, 실습생 소집, 실습결과 평가, 취업자의 추수지도, 졸업 후의 추수지도를 포함한다.

취업지도에는 ①취업교육 계획 - 취업 지도 위원회 조직, 취업 지도 연간계획 수립, ②진로진단 - 자아이해 교육, 가정환경 조사, 표준화 검사, 취업 서열명부 작성, ③진로지도 - 교과 연계지도, 진로의 날, 진로주간 운영, 특별활동 지도, 교육과정 관련 지도, ④취업지도 - 공채시험 지도, 취업 추천기준 제시, 취업 모의고사 실시, 입사서류 작성 지도, ⑤현장실습 - 현장실습 기초조사, 기업체 인력 수급계획 조사, 현장실습 의뢰, 현장 실습 계획, 실습 파견, 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습 순회지도, 실습생 소집, 실습결과 평가, ⑥취업, 미취업, 자영 및 기타 - 취업자의 추수지도, 졸업 후의 추수지도의 사항이 포함된다(군상여상).

실업계 고교인 광천정보고의 취업지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홍보로 학교장 인사장 발송, 학교 홍보책자 발송, 직장방문 채용정보 수집이 포함된다. 둘째, 취업지도 계획으로 취업지도 계획 수립, 기능 실습실 개방, 기능과목 목표급수 설정 및 지도, 취업지도 효율화 방안 협의, 취업전형 문제, 채용방법, 특색 등을 직장별로 수집 활용, 진로지도 개별상담, 개인의 인성, 적성검사 실시 반영, 면접지도가 있다. 셋째, 취업추천과 관련하여 취업추천 서열표 작성, 취업추천 개인카드 작성, 추천대장 작성, 취업정보 안내, 회사설명회, 비상연락망 작성, 졸업생 명단 작성, 미취업 학생명단 작성, 및 취업보도위원회의 운영이 포함된다. 넷째, 직업윤리지도와 관련하여 취업전 오리엔테이션실시, 직업관 고취교육, 졸업생 및 유명인사 초청강연, 직장근무 및 생활지도, 직장 윤리지도, 다도 및 미용지도, 선후배 간담회, 실습 전 오리엔테이

션 실시가 이에 포함된다. 다섯째, 추수지도에는 졸업생의 직장방문 지도 및 학교 방문 상담지도, 실습생 현장방문 지도, 취업생 명단 작성, 실습생 등교 의뢰공문 발송, 실습생일지 검사 지도, 졸업식 안내 공문 발송, 추천 및 합격자 통계표 작성의 활동을 수행한(광천정보고).

3) 현장실습 측면

현장실습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산학협동교육을 강화·발전시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사회의 실정을 파악하고 분석, 습득케 함으로써 장차 유능한 기능인을 양성하고, 실업 교육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실무능력을 적성에 맞는 현장실습으로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사회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체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및 '각급 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교장의 책임 하에 사전 안전교육, 직장예절교육 등 일정기간 준비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전문과목 학습은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습은 학과의 전문과목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현장실습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1학년부터 하나의 독립교과형태로 편성하거나, 선택실습 과목의 일부에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편성하거나, 전문교과 일부에 현장실습을 병행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전문교과에 병해 편성할 경우 1개 과목 이상 여러 과목에 분산하여 편성할 수 있다. <표 Ⅱ-2>와 같이 현장실습은 학급이수 단위를 인정하며 고등학교 3년간 최소 이수단위는 2단위(34시간)로 할 수 있으며, 최대 이수단위는 68단위(2개학기)까지 편성·운영할 수 있다[2]. 현장실습은 계열별, 학급별 단위로 그 실시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현장실습 학습인정을 위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현장학습 체험일지, 현장실습 과제수행, 담당교원 방문 관찰결과, 산업체의 평가결과,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자체평가 항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2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방안. 실업계 교육 장학자료. 제99-1호.

<표Ⅱ-2 > 현장실습 학습인정 기준단위

현장실습기간	학습인정기준단위	비 고
10~12개월	68단위	2개학기 학습인정
5~6개월	34단위	1개학기 학습인정
1개월	6~7단위	
34시간~40시간	2단위	

주1 : 현장실습을 체험학습으로 일간 실시한 경우 1단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1일 6시간 × 3일 = 18시간 : 1단위)
주2 :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
자료: 실업계 교육 장학자료. 제 99-1호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직업현장을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직업의식을 함양하며, 학교 내에 국한된 직업교육이 아닌 현장을 통한 생생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실업계 고교생들이 막연하게 자신의 직업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고 앞으로 직업세계에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보다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취업지도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직업정보 측면

직업정보란 모든 직업, 노동에 관한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자료를 말한다. 직업인이 될 사람은 교과 및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직업정보를 포착해야 한다[3]. 직업정보는 노동력에 관한 것, 직업 구조와 집단 취업 경로 등의 규정, 직업의 분류, 직종에 대한 필요한 자격 요건, 근로 조건과 의무, 교육과정, 승진관계, 인간 관계, 일의 형태, 현재 또는 미래의 수용 및 인력 증원 계획 등을 포함한다.

실업계 고교에서의 진로지도에 있어서도 정보자료의 부족으로 학생에 대한 직업정보 교육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취업이 실질적인 과제로 볼 수 있는 실업계 고교에서는 취업정보의 획득이 다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에서 직업내용에 관한 팜플렛, 참고서적, 간행물, 그리고 직업

3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학생지도. 1986. p.65.

종사자와 나눈 대화나 소감 등의 직업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가질 수 있는 직종을 세분화하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적당한 크기의 직업정보자료실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정부는 노동시장 전체에 대한 수요와 공급상황, 필요한 훈련, 결과, 전망 등을 소개하는 자료를 출판해야 하며 규모가 큰 산업체에서도 자체의 노동력 구성, 필요조건, 전망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업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단위의 진로정보센타의 설립을 통해 출판물이나 홍보형태의 체계적인 정보자료가 공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개인의 진로선택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한 진로지도의 구체적인 지도활동에 역점을 두어 단순한 진로정보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각자가 스스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체계화된 자기의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5) 졸업생 활용 측면

취업지도는 직업 탐색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직업준비의 과정을 거쳐 취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작업이다. 취업지도를 함에 있어서, 첫째, 자신의 적성 및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직업에 필요한 정보를 넓게 수집·분석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준비한다. 또한, 건전한 직업관 및 직업윤리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체에서의 적응력 신장, 취업정보 획득, 진로탐색 차원 등의 차원에서 현장실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취업지도 역시 진로지도의 맥락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는 단기적으로는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시급한 과제임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취업한 실업계 졸업생들이 성공적인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졸업생을 활용한 취업지도를 실시하는 것은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취업지도 방안일 수 있다. 졸업생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취업지도로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과의 주기

적인 만남, 성공한 졸업생 초청강연, 선후배 간담회, 졸업생 성공사례 안내, 선배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방문의 확대, 인터넷 동창회 게시판이나 학교 홈페이지의 졸업생 코너 등을 통한 취업안내 및 취업지도 등을 들 수 있다.

6) 교원 측면

실업계 고교에서 교사는 취업지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실업계 고교에서 취업지도는 진로상담부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실업계 고교생들의 취업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에 진로상담부 혹은 취업지도부 등의 기구를 통해 취업지도 전담 교사가 배치되어 보다 전문적인 취업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진로지도의 맥락에서 취업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실업계 고교 진로지도부의 업무분담을 살펴보면 기획조사계, 정보계, 상담계, 진학계, 취업계, 관찰지도계, 섭외추수지도계 등의 분야로 나뉘며 특히 취업계는 취업정보의 수집, 정리, 제공, 직업 안정기관 및 직장과의 연락, 관계서류 작성, 취업지도 및 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에 관한 교원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교사연수이다. 교사연수는 교사 양성교육과 같은 준비교육 외에 계속교육의 특성을 띤 현직교육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또 교사 개인의 전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양성교육의 불충분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계속교육의 의미를 지닌다[4]. 취업지도에 있어서도 교원연수를 통하여 교사들이 진로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내용, 방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교육 자료의 수집 및 활용방법, 진로상담기법, 진로교육교수, 학부모계도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5].

---

4 강경종(1999).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산업체 연수 방안. 교육부.
5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1993). 진로지도실무요람. 제 18호.

4.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관련선행연구

이제까지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교원,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가 <표 Ⅱ-3>과 같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기업체, 졸업생, 학교교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을 만큼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취업지도와 연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산업체 수요에 관한 연구(김형만 외. 1999)에서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고용실태 및 평가, 그들에 대한 장기적 수요를 조사하고, 전국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거시적 수요전망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 ①실업계 고등학교 및 학생수의 조정, ②교육에 있어서 시장기능 확대, ③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④산학연계의 강화, ⑤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개혁 활동 강화, ⑥교육과정의 개선, ⑦특성화 및 전문화 유도, ⑧노동력의 공급제약 완화, ⑨과다한 진학에 따른 비효율적 인력양성 억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지도와 관련하여서 전체적인 정책방향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는 언급이 적게 되어 있는 편이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산업체 근무현황에 대한 실태분석(장창원 외. 1999)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여건 변화를 분석한 후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산업체 근무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수요를 분석한 후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리라 예상되지만 2003년까지 매년 17만 명이 신규로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 중 실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지도와 관련하여 ①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②초·중등 교육에서의 진로교육의 체계화 및 내실화, ③산업체 수요에 따른 자격제도의 정비 등을 들고 있다. 각 정책방안별로 정책의 방향이 세분되어 있으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취업지도 방안은 자세하게 제시되지 않은 편이다.

<표 Ⅱ-3>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관련 연구동향

연구대상	과 제	비고
기업체 인사 담당자	장창원 외(1999).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산업체 근무 현황에 대한 실태분석	504개 업체
	김형만 외 (1999).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산업체 수요에 관한 연구	
	이무근 외(1992).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산업현장 적응능력 평가를 통한 직업교육의 개선방안	산업체 관리자 : 274명
졸업생	장창원 외(1999).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산업체 근무 현황에 대한 실태분석	
	장원섭 외(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	
	이무근 외(1992).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산업현장 적응능력 평가를 통한 직업교육의 개선방안	졸업생 : 1,245명
실업계 고교 교원	김기홍 외(2000). 실업계 고교 입학생 감소 대응 및 진로정보 체제구축 방안 연구	
	진미석 외(2000).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체제 구축방안	
	정철영 외(2000). 실업계 고교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교원대책	
	정혜숙(1999). 공업계 고교에서의 여학생 직업교육 실태분석	교원 : 232명
실업계 고교 학생	진미석 외(1999). 실업계 여학생 진로 직업 프로그램 개발	1,488명(남학생 : 749명 여학생 : 739명)
	정혜숙(1999). 공업계 고교에서의 여학생 직업교육 실태분석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장원섭 외. 1999)에서는 실업계 고교생의 48.3%가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그 준비방법으로 공업계 학생은 현장실습(47.4%), 학교내 실험과 실습(28.9%)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업계 고교 학생들은 학교내 실험과 실습(28.6%), 진로·취업지도실 이용(23.2%) 등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4> 서울특별시의 실업계 고교 교육 활성화 대책 중 실업계 고교생 취업지도 관련 내용

관련사항	세부내용
체제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 후의 계속 교육 기회 확대
학생	실업계 고교 재학생에 대한 진로지도 강화 실업계 고교와 산업체간의 협력 강화 실업계 고교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교원	산학전담 및 진로상담 교원 배치
행·재정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게 불리한 관행이나 법제도 개선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게 병역특례 혜택부여

자료: 이종성 외(2000a)

이종성 외(2000a)의 서울특별시 실업계 고교 교육의 활성화 대책 연구보고서에 실업계 고교생 취업지도와 관련한 내용 중 취업지도와 관련된 사항은 <표 Ⅱ-4>와 같이 산학전담 및 진로상담교원 배치,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게 불리한 관행이나 법제도 개선, 실업계 고교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실업계 고교와 산업체간의 협력강화, 실업계 고교 재학생에 대한 진로지도 강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 후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종성 외(2000b)는 '인천광역시 실업계 고등학교 진흥 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에서 인천광역시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취업지도와 관련된 것은 <표 Ⅱ-5>와 같다.

실업교육발전위원회(2001)에서 실업계 각급 학교별로는 <표 Ⅱ-6>과 같이 농업계는 전공영역과 관련 없는 분야 취업, 영농 희망자에 대한 국가지원체제 미흡을 문제로 들고 있으며, 우수 졸업생의 국가 공무원 및 법인, 산업체 등에 특별채용 제도화,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한 국가 지원, 산업체 근무자에 대한 계속 교육기회 부여, 국가 기술자격자에 대한 우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공업계 학교에서는 진로지도 전담 전문상담 교원 부족,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흡, 전문상담 지도가 미흡하다면서 전문상담교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수·해양계는 전공지식의 국가 봉사 기회 미흡, 해양수산부 유관기관 진

출 기회 전무, 병역특례의 감소로 승선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 유관기관의 특채기회 부여와 병역특례 제도의 확대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는 <표 Ⅱ-6>과 같이 ①시도별 학교별로 진로정보실을 운영하여 진로정보제공 및 상담기능 강화, ②진학과정과 취업과정의 이원화 운영, ③여학생의 직업교육 활성화(여학생의 특기적성 및 SOHO 창업 등을 위한 특별과정 운영확대), ④직업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⑤직업진로교육을 독립교과로 신설, ⑥진로지도강화(졸업생과의 만남 및 초청특강 지도), ⑦취업지원을 위하여 학교와 산업체 간 연계체제 구축, ⑧취업지원체제 강화, ⑨특성화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취업과정을 산학연계를 통한 주문식 교육과정으로의 편성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연구기관에서는 <표 Ⅱ-7>과 같이 ①직업적응 교육과정 설치, ②진로

<표 Ⅱ-5> 인천광역시의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방안 중 취업지도 관련 내용

관련사항	세 부 내 용
진로지도의 내실화 방안	· 진로지도 체제의 구축 · 선배들을 통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 및 자긍심 제고 · 학교 가족 공동체 구성 운영 · 진로지도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의식 전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실업교육 박람회를 통한 진로 체험 활동의 실시
산학협동의 내실화	· 산학협동 활성화를 위한 단체구성 · 산학협동을 위한 상호간 협력체제 강화 ·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 실습 전담교원제 도입 · 현장실습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강화 · 교육청 차원의 현장실습 관련 DB(전산 관리 시스템) 구축
사회적 적합성 및 인식제고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불리한 관행이나 법제도 개선 ·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홍보 강화

자료: 이종성외(2000b)

교육강화 및 지원체제 확립, ③진로교육을 독립교과로 개설, ④진로상담의

전문화, ⑤체험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 ⑥광역교육청에서 지역 진로지도 및 상담전문인력 관리체제수립, ⑦졸업생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 부여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표 Ⅱ-6> 실업계 각급 학교별 취업관련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구 분	문 제	개 선 방 안
농업계	• 전공영역과 관련 없는 분야 취업 • 영농 희망자에 대한 국가지원 체제 미흡	• 우수 졸업생 국가 공무원 및 법인, 산업체 등에 특별채용 제도화 •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한 국가 지원 • 산업체 근무자에 대한 계속 교육기회 부여 • 국가 기술자격자에 대한 우대책
공업계	• 진로지도 전담 전문상담교원 부족 •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흡 • 전문상담 지도 미흡	• 전문상담교원 확보
상업계	없음	없음
수·해양계	• 전공지식의 국가 봉사 기회 미흡 • 해양수산부 유관기관 진출 기회 전무 • 병역특례의 감소로 승선 포기자 속출	• 해양수산부 유관기관의 특채기회 부여 • 병역특례제도의 확대개선
가정계	없음	없음

자료 : 실업교육발전위원회(2001). 『실업교육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모색』. 2001년 4월 24일 전문가토론회 발표자료를 정리한 것임.

<표 Ⅱ-7> 실업계 고교 취업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집행기관 및 전문연구기관 담당자의 의견

정책집행기관(시·도 교육청)	전문연구기관
• 시도별 학교별로 진로정보실을 운영하여 진로정보제공 및 상담기능 강화 • 진학과정과 취업과정을 이원화 운영 • 여학생의 직업교육 활성화(여학생의 특기적성 및 SOHO창업 등을 위한 특별과정 운영확대) • 직업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직업진로교육을 독립교과로 신설 • 진로지도강화(졸업생과의 만남 및 초청 특강지도) • 취업지원을 위하여 학교와 산업체 간 연계체제 구축 • 취업지원체제 강화 •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취업과정을 산학연계를 통한 주문식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	• 직업적응 교육과정 설치 • 진로교육강화 및 지원체제 확립 • 진로교육을 독립교과로 개설 • 진로상담의 전문화 •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 • 광역교육청에서 지역 진로지도 및 상담전문인력 관리체제수립 • 졸업생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 부여 확대

자료 : 실업교육발전위원회(2001). 『실업교육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모색』. 2001년 4월 24일 전문가 토론회 발표자료를 정리한 것임.

5.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 및 관련문헌 고찰을 통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실업계 고교에 관하여 다양한 조사가 매우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또 다른 조사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들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를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취업지도와 관련하여 개인의 적성과 흥미 등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취업지도를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취업에 대한 절박

한 마음이 갖추어져야 한다.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을 하여야 할지 모르거나 취업의지가 없으면 취업지도가 성립 안되기 때문이다.

셋째, 취업지도를 위하여 충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취업을 전제로 한 현장실습도 단순한 노동력 활용이라는 측면이 아니고 교육적인 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취업지도를 위하여 학생들의 취업분야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교원들의 올바른 인식과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이미 앞서서 이런 시행착오를 경험한 졸업생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취업지도의 특징중의 하나는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아느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최근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보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취업정보의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취업정보센터의 설치와 취업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표 Ⅱ-8>과 같이 29개로 나타났다. 6개 선행연구자료 가운데 3개 이상 지적된 것을 상, 2개를 중, 1개를 하로 언급하였다. 그 결과 상이 9개, 중이 9개, 하가 11개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표 Ⅱ-8> 선행연구와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지항목 비교

(단위: 점)

질문지 항목	Ⅰ	Ⅱ	Ⅲ	Ⅳ	Ⅴ	Ⅵ	누계(중요성)
병역혜택 부여	○		○	○			3(상)
취업교육을 독립교과로 설정	○						1(하)
취업상담 강화						○	1(하)
체험중심 취업교육 활성화	○						1(하)
취업상담 인력 관리체제수립	○						1(하)
진학과정과 취업과정 이원화 운영	○			○			2(중)
직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			○		3(상)
졸업생과의 만남 및 특강 기회 증대	○	○				○	3(상)
상담체제 구축		○					1(하)
전문상담 교원확보	○	○	○		○		4(상)
특별채용 제도화	○			○			2(중)
산업체 근무자 계속교육 기회확대	○		○				2(중)
자격소유자 우대책 강구	○			○			2(중)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			○	2(중)
산학협력 강화	○	○	○		○	○	5(상)
고교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				1(하)
관행이나 법 제도 개선		○	○	○		○	4(상)
사회적 인식제고(홍보)		○		○		○	3(상)
학교별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			○	○		3(상)
적성 및 흥미검사 강화					○		1(하)
직업 기초능력개발 교육강화	○						1(하)
취업정보 확충				○	○		2(중)
전 교원의 진로상담 교원화를 위한 연수강화		○			○		2(중)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						○	1(하)
취업정보제공 강화				○	○		2(중)
국가 및 시·도 단위의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	○	○		○	○		4(상)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한 취업지도강화					○		1(하)
취업지도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	○		2(중)
진로탐색 과정운영		○					1(하)

*Ⅰ : 실업교육발전위원회. Ⅱ:인천. Ⅲ:서울. Ⅳ:김기홍 외(2000). Ⅴ:진미석(2000).
Ⅵ: 이무근 외(1992)

Ⅲ.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의 현황과 문제

1.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 추이

가. 실업계 고교의 졸업생수

실업계 고등학교의 유형별 졸업생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990년에 비교해서 2001년 현재 농업고, 상업고, 수산·해양고, 종합고는 졸업생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고, 공업고는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은 1980년의 198,478명에서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어 1998년 302,416명을 정점으로 하여 그 후 감소 추세에 있다. 학교 유형별로는 전체 실업계 고교 졸업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업고는 1980년에는 42.9%를 나타냈으나 2001년 현재는 35.7%로 감소하였고, 그 다음을 차지하는 공업고는 1980년에는 27.9%를 나타냈으나 2001년 현재는 36.1%로 증가하였다. 현재 실업계 고교 졸업생 중 상업고와 공업고 두 집단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수산·해양고는 0.7%, 농업고는 2.3%에 불과하였다.

나.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추이를 살펴보면 <표 Ⅲ-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학자의 경우는 1970년 9.6%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현재 44.9%를 나타내고 있다. 취업자의 경우는 1970년 50.2%에서 1990년에 74.3%까지 증가했다가 2001년 현재는 48.4%로 감소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학자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취업자는 증가추세에서 1990년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1> 실업계 고교의 유형별 졸업생 추이

(단위 : 명, %)

	합계	농업고	공업고	상업고	수산·해양고	종합고	실업고
1980	198,478	15,857	55,308	85,088	2,133	30,439	9,663
	(100.0)	(8.0)	(27.9)	(42.9)	(1.1)	(15.3)	(4.9)
1985	276,535	17,239	63,613	115,096	3,253	64,160	13,174
	(100.0)	(6.2)	(23.0)	(41.6)	(1.2)	(23.2)	(4.8)
1990	274,050	13,716	64,470	126,171	3,166	61.204	5,323
	(100.0)	(5.0)	(23.5)	(46.0)	(1.2)	(22.3)	(1.9)
1991	272,365	11,642	63,955	125,620	3,074	61,979	6,095
	(100.0)	(4.3)	(23.5)	(46.1)	(1.1)	(22.8)	(2.2)
1992	274,677	10,945	62,173	123,629	2,812	67,742	7,376
	(100.0)	(4.0)	(22.6)	(45.0)	(1.0)	(24.7)	(2.7)
1993	272,541	8,392	63,012	121,524	1,604	66,640	11,369
	(100.0)	(3.1)	(23.1)	(44.6)	(0.6)	(24.5)	(4.2)
1994	263,962	6,349	65,409	115,076	1,472	61,406	14,250
	(100.0)	(2.4)	(24.8)	(43.6)	(0.6)	(23.3)	(5.4)
1995	259,133	5,975	71,486	106,912	1,317	56,779	16,664
	(100.0)	(2.3)	(27.6)	(41.3)	(0.5)	(21.9)	(6.4)
1996	274,696	5,779	79,692	109,996	1,977	58,937	18,315
	(100.0)	(2.1)	(29.0)	(40.0)	(0.7)	(21.5)	(6.7)
1997	273,912	5,833	85,649	107,322	2,187	54,081	18,840
	(100.0)	(2.1)	(31.3)	(39.2)	(0.8)	(19.7)	(6.9)
1998	302,416	6,274	97,749	116,320	2,406	57,164	22,503
	(100.0)	(2.1)	(32.3)	(38.5)	(0.8)	(18.9)	(7.4)
1999	290,892	6,557	96,609	112,662	2,122	45,907	27,035
	(100.0)	(2.3)	(33.2)	(38.7)	(0.7)	(15.8)	(9.3)
2000	291,047	6,345	103,439	108,489	1,920	48,416	22,438
	(100.0)	(2.2)	(35.5)	(37.3)	(0.7)	(16.6)	(7.7)
2001	270,393	6,204	97,709	96,417	1,839	47,989	20,235
	(100.0)	(2.3)	(36.1)	(35.7)	(0.7)	(17.7)	(7.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계열별 취업률 및 진학률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표 Ⅲ-3>과 같이 전체 실업계 고교 졸업생은 1995년에는 취업률 81.6%, 진학률 13.2%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1년 현재는 취업률 48.4%, 진학률 44.9%로 취업률은 감소되었고 진학률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이는

농업계, 상업계, 공업계, 수산·해운계, 가사계 등 모든 유형의 실업계 고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2>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추이

(단위 : 명, %)

연도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무직자	미상	계
1970	6,033(9.6)	31,569(50.2)	814(1.3)	11,979(13.1)	12,459(19.8)	62,854(100.0)
1975	11,048(8.8)	63,437(50.3)	2,060(1.6)	25,381(20.1)	24,215(19.2)	126,141(100.0)
1980	23,019(11.5)	102,812(51.2)	1,494(0.7)	44,908(22.3)	28,824(14.3)	201,057(100.0)
1985	36,910(13.3)	143,214(51.8)	2,528(0.9)	44,162(16.0)	49,721(18.0)	276,535(100.0)
1990	22,710(8.3)	210,112(74.3)	1,402(0.5)	16,108(8.2)	23,817(8.7)	274,150(100.0)
1995	49,699(19.2)	190,148(73.4)	333(0.1)	7,582(2.9)	11,371(4.4)	259,133(100.0)
1996	60,373(22.0)	196,403(71.5)	313(0.1)	6,973(2.5)	10,634(3.9)	274,696(100.0)
1997	79,961(29.2)	177,532(64.8)	373(0.1)	4,691(1.7)	11,353(4.1)	273,912(100.0)
1998	107,824(35.7)	164,075(54.3)	847(0.3)	16,468(5.4)	13,202(4.4)	302,416(100.0)
1999	112,130(38.5)	148,478(51.0)	797(0.3)	16,007(5.5)	13,480(4.6)	290,892(100.0)
2000	122,170(42.0)	149,543(51.4)	523(0.2)	10,508(3.6)	8,303(2.9)	291,047(100.0)
2001	121,411(44.9)	130,968(48.4)	481(0.2)	10,140(3.9)	7,393(2.7)	270,393(10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Ⅲ-3>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계열별 취업률 및 진학률 변화추이

(단위 : %)

계열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취업	진학	취업	진학	취업	진학	취업	진학	취업	진학	취업	진학	취업	진학
농 업	74.1	18.1	69.1	22.3	62.2	29.8	48.1	35.9	43.1	44.0	42.9	43.2	42.0	45.8
공 업	78.8	18.5	77.8	20.1	68.7	28.6	61.3	34.6	54.4	42.0	53.5	44.8	46.1	47.7
상 업	83.7	9.7	74.3	13.3	74.3	19.4	66.0	23.9	60.5	29.0	62.6	30.5	59.7	34.0
수·해운	80.8	12.8	73.8	12.0	74.0	22.5	54.0	29.0	54.7	30.7	56.5	39.8	46.8	44.4
가 사	0.0	0.0	0.0	0.0	0.0	0.0	29.5	51.2	15.2	76.7	24.8	69.8	37.4	57.7
계	81.6	13.2	75.4	16.2	71.6	23.5	63.3	28.8	57.1	35.2	57.7	37.4	48.4	44.9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현황

1)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전공분야 취업률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전공분야 취업률을 살펴보면, <표 Ⅲ-4>와 같이 실업계고 1993년 79.9%에서 1997년 85.6%까지 증가하였다가 2001년 현재 76.0%를 나타내고 있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전공분야 취업률은 즉, 1997년 IMF 이후 현재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실업계 고교 계열별 졸업생의 취업현황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0년도에 분석한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에 따르면 <표 Ⅲ-5>에 나타나듯이 졸업생 중 57.7%, 취업 희망자 중 94.8%가 취업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계

<표 Ⅲ-4>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전공분야 취업률

(단위 : 명, %)

년 도	실업계고 취업자수	전공분야 취업자	
		전공분야 취업자수	전공분야 취업률
1990	**210,113**	174,057	82.8
1991	**217,344**	177,057	81.5
1992	**218,888**	178,381	81.5
1993	**209,871**	167,695	79.9
1994	**192,165**	159,100	82.8
1995	**190,148**	158,483	83.3
1996	**196,403**	167,184	85.1
1997	**177,532**	152,047	85.6
1998	**164,075**	132,574	80.8
1999	**148,478**	114,898	77.4
2000	**149,543**	115,028	77.0
2001	**130,968**	99,496	76.0

주 : 전공분야취업률 = (전공분야 취업자수/실업계고 취업자수)×1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Ⅲ-5> 2000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계열별·성별 취업현황

(단위 : 명, %)

구 분	졸업생수	취업 희망자수	취업자수	취업 희망자비	졸업생 대비
농 업 계	10,113(3.6)	5,348(3.2)	4,337(2.8)	81.1	42.9
공 업 계	118,534(43.5)	65,833(39.8)	63,462(40.4)	96.4	53.5
상 업 계	113,963(41.8)	92.793(56.0)	87,645(55.8)	94.5	62.6
수·해운계	2,125(0.7)	1,247(0.8)	1,200(0.8)	96.2	56.2
가 사 계	1,162(0.4)	293(0.2)	288(0.2)	98.3	24.8
합 계	272,010(100.0)	165,514(100.0)	156,932(100.0)	94.8	57.7
남 자	138,974(51.1)	76,413(46.2)	71,490(45.6)	93.6	51.4
여 자	133,036(48.9)	89,101(53.8)	85,442(54.4)	95.9	64.2

*( )의 비율은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전체 합계 수에 대한 비율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0). 2000년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p.15.

열에 따라 취업 희망자에 대한 취업률을 보면, 가사계가 98.3%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고 수산·해운계 96.2%, 공업계 96.4%, 상업계 94.5%, 농업계 81.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계열별 전공분야 취업비중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계열별 전공분야 취업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Ⅲ-6>과 같이 각 유형별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체적인 전공분야 취업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에 83.3%이던 비율이 1997년에는 85.6%까지 오르다가 2001년 현재는 76.0%로 2000년 76.9%에 이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가장 많은 변화양상을 보이는 계열로는 예술계로서 1996년에는 81.0%이었던 것이 1997년에는 89.5%까지 오르다가 2000년 54.1%로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상업계, 공업계, 수산·해양계, 가사실업계가 비슷한 양상으로 1997년을 중심으로 전공분야 취업비중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6>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계열별 전공분야 취업비중 추이

(단위 : 명, %)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취업자	전공분야 취업비중	취업자	전공분야 취업비중	취업자	전공분야 취업비중	취업자	전공분야 취업비중	취업자	전공분야 취업비중	취업자	전공분야 취업비중	취업자	전공분야 취업비중
전 체	190,148	158,483 (83.3)	196,378	167,184 (85.1)	177,532	152,047 (85.6)	164,075	132,574 (80.8)	148,478	114,898 (77.4)	149,543	115,028 (76.9)	130,968	99,496 (76.0)
농업계	6,487	3,307 (48.3)	6,551	3,470 (53.0)	5,821	3,417 (58.7)	4,920	2,645 (53.8)	4,228	2,298 (54.4)	4,472	2,195 (49.1)	3,956	1,889 (47.8)
공업계	62,046	57,568 (92.8)	69,482	65,049 (93.6)	65,600	61,567 (93.9)	61,094	53,921 (88.3)	56,871	47,775 (84.0)	57,036	48,870 (85.7)	50,002	42,347 (84.7)
상업계	112,943	93,688 (83.0)	113,303	95,480 (84.3)	101,046	84,413 (83.5)	94,217	73,812 (78.3)	83,432	62,751 (75.2)	84,283	62,328 (74.0)	73,652	53,435 (72.6)
수산·해양계	1,609	1,129 (70.2)	1,512	1,227 (81.2)	1,601	1,339 (83.6)	1,291	1,072 (83.0)	1,374	1,017 (74.0)	1,187	802 (67.6)	867	750 (86.5)
가사·실업계	525	366 (69.7)	728	543 (74.6)	531	397 (74.8)	699	549 (78.5)	679	430 (63.3)	640	335 (52.3)	616	373 (60.6)
예술계	42	34 (81.0)	57	40 (70.2)	57	51 (89.5)	112	60 (53.6)	182	130 (71.4)	207	112 (54.1)	522	348 (66.7)
일반계	6,136	2,391 (39.0)	4,745	1,375 (29.0)	2,876	863 (30.0)	1,742	515 (29.6)	1,712	497 (29.0)	1,718	386 (22.5)	108	12 (11.1)

주: ( ) 안은 취업자 중에 전공분야에 취업한 사람의 백분율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2. 실업계 고교생의 진로 미결정과 취업의지 미약

가. 실업계 고교생의 자기이해 측면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취업지도를 위하여 무엇보다 당사자인 실업계 고교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찰하고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진미석등의 실업계 고교생 1,488명(남 749명, 여 7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남학생의 43%, 여학생의 49.6%가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 및 흥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고 있었다(진미석 외. 1999).

현재 대부분의 실업계 고교에서는 진로관련 심리검사가 시행되는데, 이들

검사가 학생들의 요구(needs)에 의하기보다는 연례행사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충분한 해석 및 상담이 따르지 않아 문제가 있다.

또한 필요한 예산도 적어 학부모들의 부담에 의존하고 있어 그에 따라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로 및 적성검사 연간 구입비가 65,000원(1,300원×50개, 경기도 K종고), 639,870원(330원×1,939개, 부산 D정보고) 등으로 전체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나. 학생들의 진로의식과 취업의지 측면

실업계 고교생들은 진로의식이 결핍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명확하지 못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의 기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 편이다.

최근 청소년들이 취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무관심하고 근로정신이 부족하다. 실업계 고교생들 중 상당수가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것의 연장으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미흡한 편이다.

상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헌남(1996)의 조사에 따르면 <표 Ⅲ-7>과 같이 졸업후 진로에 대하여 전공분야에 취업하겠다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 중 29.3%이나 동일계 및 일반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47.0%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취업하겠다는 학생이 16.7%, 전공분야에서 자영을 하겠다는 학생이 7.0%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Ⅲ-7> 상업계 고교생의 졸업후 희망진로

(단위: 명, %)

희 망 진 로	인 원	비 율
전공분야에 취업	177	29.3
전공과 관계없이 취업	65	16.7
전공분야 자영	34	7.0
동일계 전문대 진학	110	26.6
일반계 대학 진학	82	20.4
합 계	400	100.0

자료 : 임헌남(1996). 상업계 고등학교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에 거주하는 중고생 1,537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 Ⅲ-8>과 같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은 4.3%, 한 적이 있다는 학생은 38.5%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의 42.8%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생 32.0%, 인문고 학생 40.1%, 실업고 학생은 69.1%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직종은 전단지나 스티커 부착이 절반에 가까운 48.7%로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 음식·신문·서류 등의 배달(14.7%), 음식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의 서빙 업무(13.2%), 상점 카운터 업무(8.1%), 건설 및 제조업 분야(3.7%), 주유소 근무(2.9%) 등이었다[6].

<표 Ⅲ-8> 학교 유형별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정도

(단위 : %)

	중학생	인문계 고교생	실업계 고교생	평 균
백분율	32.0	40.1	69.1	42.8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매일경제 2001.2.15에서 재인용함.

다. 부모의 인식 측면

실업계 고교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자녀의 대학진학에 대하여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7] 즉, 자녀의 능력에 관계없이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 부모들의 생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최근의 부모들이 자녀를 적게 두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의 전반적인 고학력화 추세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무관심을 보여 주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학교에서 알아서 공부시키고 취업시켜 달라는 것이다.

6 매일경제 2001-2-15.

7 전남공업고교의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의 76.7%가 진학을 희망(23.3%가 취업을 희망)하는데 진학희망학교형태는 4년제가 59.7%, 전문대학이 40.3%로 4년제를 더욱 많이 희망하고 있다.

경기지역 6개 실업계 고교생 297명과 교원 1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강득구, 2000) 실업계 고교생의 40.2%가 졸업 후 2년제 대학 진학을 원했고, 취업 후 진학(32%), 4년제 대학 진학(18.2%) 등 90.4%의 학생이 대학 진학을 원했다. 그 이유로는 대학에 대한 꿈을 못 버려서(27.1%), 결혼과 취직을 위해(24.4%), 가족의 권고(14%), 많은 보수(9.3%) 등을 들었다. 여기에서 가족은 주로 학부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의 적성이나 능력을 무시한 무조건적인 대학진학 강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진학을 권유하면서도 평소에는 실업계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과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3. 프로그램 측면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에 대한 의지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를 위한 취업지도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업계 고교생들의 상당수가 중학교 재학성적이 낮았던 학생으로서 자신이 원하여 입학하기보다는 성적에 밀려서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아개념(self concept)이 부정적이고 자아정체감(self identity)과 자신감이 부족하며, 열등감에 쌓여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계 고교생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및 자아정체감 등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지도 관련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실업계 고교에는 관련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부족하고(31.9%), 종합적 자료가 부족하며(30.4%),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18.8%),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진부하다(10.1%)는 것이 프로그램 관련 불만 사항이었다(진미석 외. 2000).

지식정보화 시대에 진로지도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현재 실업계 고교생용 진로지도 프로그램인 아로III가 CD-ROM 형태로 1999년에 보급되어 있으나 거의 2년이 지났으므로 자료가 오래되었고 CD-ROM은 1개로 컴퓨터 1개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는 한계도 있다.

전문적인 취업 담당 교원이 확보되고 또한 교원들이 취업지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Ⅲ-9>와 같이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시간에 있어서 '충분'(11.1%)이나 '매우 충분'(3.7%)보다 '부족'(26.9%)이나 '매우 부족'(10.2%)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실업계 고교에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지도를 실시할만한 시간이 대체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Ⅲ-9>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시간의 충분 정도

(단위: 개교, %)

구 분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부족	매우 부족	계
계	4(3.7)	12(11.1)	52(48.1)	29(26.9)	11(10.2)	**108(100.0)**

자료: 김기홍 외(2000). 실업계 고교 입학생 감소 대응 및 진로정보 체제 구축 방안 연구.

실업계 고등학생들 가운데 2월에 졸업을 하고 나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나가는 8월까지는 실업계 학교에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취업을 나갈 형편이 못 되며, 졸업생들과의 연락이 안 되기 때문이다.

경복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홈페이지에는 '취업하신 선배님 이야기'라는 코너가 있어서 재학생들이 이들 선배들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자신의 취업준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산학협동 측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현장실습에 대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가 산업체에서의 적응력 신장, 취업정보 획득, 진로탐색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은 전체 학생의 64.5%만이 현장

실습을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제시하여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편이다(강종훈 외. 1998).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산학협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은 농업계가 62.5%, 공업계 52.5%, 상업계 29.2%, 기타 28.6%로 나타났으며, 산학협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지역 내 산학협동 기업체의 부재 40.7%, 산학협동 기업체의 협조부족 35.6%, 산학협동 담당교원의 업무과중 15.3%, 학생참여미흡 5.1%, 정부 혹은 재단의 지원부족이 3.4%로 나타났고, 현장실습은 90% 이상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현장실습의 어려운 점은 지역 내 현장실습 기업체의 부재 혹은 부족과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관리를 들고 있었다(백성준 외. 2000).

현재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이수단위에 포함되며, 고등학교 3년간 최대 36단위, '2+1' 체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최대 72단위까지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의 학습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시간은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17시간 이수하는 수업량을 1단위로 하며, 34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의 현장 실습은 2단위의 학습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 현장 실습생이 학교에서 배정한 이수 단위(이수 시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학교에서 배정한 이수 단위(이수 시간)까지 인정한다. 이에 따라, 최소 2단위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제약하고 있다. 학생들이 2단위 현장실습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려 하며 기업입장에서는 그런 조건으로 현장실습을 받을 기업이 없다. 더구나 최근 진학을 하려는 학생이 증가하는 입장에서 이들에게 현장실습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이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현장실습의 문제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자신들이 전공한 분야에 배치되지 못하고 단순노동과 3D업종에 배치(예, 공고 현장실습생의 경우 프레스 작업과 같이 위험한 작업에 배치됨)되어 노동력 활용측면이 강하다. 그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많다. 아울러, 현장실습에 나간 학생들의 보수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 밖에 산업현장에서는 현장실습에 대한 체계(system)도 없고 지도력도 없는 편이며, 단지 근로자로만 생각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있다. 학생측면에서는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따라 적응력(특히 2교대를 통한 야간근무)이 미비하여 있다.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하고 학교와 산업체 현장에 전담인력의 배치와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농업계·공업계·상업계 각 계열별로 현장실습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계열로 부산동래원예 고등학교에서는 산학협동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연 1회 산학협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4회 산학협동 협의회를 실시하며,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연 12회 선진농가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장 실습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협의회(9월), 현장실습 사전지도(10월), 현장실습 파견(11월), 현장실습 순회지도(12월), 실습결과지도(12월) 등을 세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산전자공고는 152개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고 현장실습 협의회, 사전지도, 파견, 순회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도정보 고등학교에서는 4월중에 현장실습 및 취업의뢰서를 발송하고, 연중 수시로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직장 예절 교육지도, 현장실습 평가가 이루어지며 10월 12월중에 현장 실습생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청주기계공고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작업현장을 체험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와의 적부를 결정함으로써 현명한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의 세부사항으로 자매결연 산업체와 협약체결, 현장 실습업체 견학, 산업체 인사 초청 강연, 산학협동 연계교육실시, 직무분석을 이용한 학교와 산업계의 연계, 우수 산업체 발굴 및 알선, 현장실습 협력 업체 소개 등이 있다. 다양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편인데 세부사항으로 연 2회의 전공관련 업체 현장 견학, 직업의 다양성 및 적응력을 기르기 위한 연 2회의 아르바이트 교육, 교과내용을 현장에서 적응하기 위한 년 2회의 방학 중 현장실습,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 2회 이상의 교내 생산 실습 및 산업체 주문식 교육과정 이수 후 예비취업의

한 방법으로서 년 1회의 인턴쉽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서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2001년 4월 현장체험학습의 극대화를 위해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고 구체적으로 산학협동 결연식을 체결하였으며 산학협력업체에 신뢰감을 주고 학생에게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실습생을 파견하고, 현장 순회지도 실시 및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2001년 현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인턴제, 취업전제 현장 실습 등의 현장체험을 통한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현장실습 박람회 및 학교별 현장실습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5. 직업정보제공 측면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무엇보다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취업정보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고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면 학생들에 대한 취업지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은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산업체에 관한 정보 및 기타 취업을 위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획득의 중요한 방법이 친지 또는 아는 사람을 통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원섭 등(1999)은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현재 기업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취업정보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표 III-10>과 같이 취업을 위하여 구인정보가 필요하였는데, 구인정보 취득원으로는 비공식적인 정보가 49.1%, 학교가 31.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공식적인 것은 14.2%, 직접 접촉은 5.7%에 불과하였다.

<표 Ⅲ-10>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구인정보 취득원

(단위 : 명, %)

정보원 / 고교유형	공 식	비공식	학 교	직접 접촉	계
상 업 계	11(14.9)	34(45.9)	25(33.8)	4(5.4)	74(100.0)
공 업 계	3(11.5)	13(50.0)	8(30.8)	2(7.7)	26(100.0)
기타 실업계	1(16.7)	5(83.3)	-	-	6(100.0)
계	15(14.2)	52(49.1)	33(31.1)	6(5.7)	106(100.0)

자료 : 장원섭 외(1999).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를 위한 정보제공 방법은 ①학교 홈페이지에 취업정보운영, ②학교 취업보도실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③취업정보망의 운영 등이 있다.

가. 인터넷을 통한 취업정보제공 측면

최근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먼저 일부 시도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실업계 고교생의 직업진로지도를 위한 사이버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실업계 고교 안내, 직업진로 가이드, 현장실습의뢰,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도를 통함으로써 기업체에서 각 학교를 잘 몰라 취업 의뢰하는 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각 학교별 취업관련 컨텐츠를 갱신하는 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충청북도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 안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실업계 고교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현황을 보면, 앞에서 <표 Ⅲ-11>과 같이 83.3%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축하고 있는 학교가 9.8%에 해당된다(김기홍 외, 2000). 즉, 대부분의 학교가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거나 현재 구축 중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Ⅲ-11> 실업계 고교의 유형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여부

(단위: 개교, %)

구 분	있음	없음	구축 중	계
농업고등학교	6(85.7)	0(0.0)	1(14.3)	7(100.0)
공업고등학교	27(87.1)	1(3.2)	3(9.7)	31(100.0)
상업(정보)고등학교	32(88.9)	2(5.6)	2(5.6)	36(100.0)
수산·해양고등학교	0(0.0)	2(66.7)	1(33.3)	3(100.0)
실업고등학교	6(85.7)	0(0.0)	1(14.3)	7(100.0)
종합고등학교	13(76.5)	2(11.8)	2(11.8)	17(100.0)
기타	1(100)	0(0.0)	0(0.0)	1(100.0)
계	86(83.3)	7(6.9)	10(9.8)	102(100.0)

자료 : 김기홍 외 (2000).

<표 Ⅲ-12>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 시스템 구비 정도

(단위: 개교, %)

구 분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부족	매우 부족	계
계	15(13.9)	36(33.3)	32(29.6)	20(18.5)	5(4.6)	108(100.0)

자료 : 김기홍 외(2000).

실업계 고교 홈페이지의 절반은 취업 코너가 없으며 설치된 취업지도 관련 정보가 지극히 조악한 수준으로 게시판을 이용한 취업알선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 시스템에 대하여는 <표 Ⅲ-12>와 같이 47.2%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하고 있었으나(김기홍 외. 2000), 실업계 고교에서 홈페이지 기능 외에 취업지도를 위한 네트웍망이 설치(홈페이지 포함)되거나 운영되는 학교는 많지 않은 편이다.

제주여자상업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진로정보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졸업생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업정보 및 추수지도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하고 있다.

청주기계공고에서는 2001년에는 학교 홈페이지 재구축을 통한 네트웤 활용학습을 강화하여 실업계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홍보하고, 사이버 학습실, 교육자료실, 학교홍보 자료실뿐만 아니라 진로정보 자료실 등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청주기계공고의 홈페이지 내에 진로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컴퓨터화된 진로정보망을 구축하여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나 지도를 얻도록 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열린 길을 제시하였으며, 국내 다양한 공·사 기관의 취업 정보망, 진학 정보망 등 진로지도에 관련된 정보망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정보자료를 D/B 프로그램화하여 진로지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이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열람하고 싶은 자료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수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주기계공고에서는 재학생에 대한 진로, 진학, 취업에 관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충북 도내 각급 학교에 대한 진로, 진학, 취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진로정보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진로에 관련한 상담, 진로개발을 위한 각종 검사, 재학생에 대한 진로, 진학, 취업에 대한 종합 정보, 진로발달 및 진로교육에 관한 자료 및 졸업생에 대한 취업 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가공하고 네트웍 구축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졸업생 동문의 우수·우량업체 홈페이지 링크를 통한 산학 협동망을 제공하며 졸업동문 현황 D/B화 및 총 동문회 홈페이지를 링크시켜 학생들에게 열린 길을 제공하고 있다.

나. 취업보도실의 시설 및 운영 측면

진로상담실을 방문하는 학생에 대한 진미석 등의 연구(2000)에 의하면 <표 Ⅲ-13>과 같이 69.0%가 거의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10명 이내가 13.8%, 10 13명이 34%, 30명 이상이 13.8%로 전체적으로 진로상담실의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었다. 취업지도와 관련한 진로상담실의 이용자를 보면 매월 30명 이하가 86.2%를 차지하고 있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었다(진미석 외. 2000).

<표 Ⅲ-13> 진로상담실 방문 학생수

(단위: 개교, %)

	거의 없음	매월 9명 이하	매월 10 29명	매월 30명 이상	계
학교수(%)	20(69.0)	4(13.8)	1(3.4)	4(13.8)	29(100.0)

자료 : 진미석 외(2000).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체제 구축방안 연구(진미석 외. 2000)의 결과 조사대상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관련 예산 평균액이 연간 90.5만원에 불과하다(진미석 외. 2000).

또한 진로정보실 운용예산을 보면, 김기홍 등(2000)의 연구에서 진로정보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62.9%)이 높게 나타났다(표 Ⅲ-14).

<표 Ⅲ-14> 진로정보실 운영예산의 충분 여부

(단위 : 개교, %)

구 분	충 분	보 통	부 족	계
빈도(%)	11(10.2)	29(26.9)	68(62.9)	108(100.0)

자료 : 김기홍 외(2000).

취업에 관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비율은 13.3%에 불과하였다(진미석 외. 2000).

청주기계공고에서는 취업정보실에 각종 표준화 검사 결과 자료를 비치하여 학생들의 상담활동을 돕고 학생들이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이는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웹 상에서 검색하도록 하고 적성 및 흥미검사를 온라인 상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김기홍 등의 연구(2000)에 의하면 <표 Ⅲ-15>과 같이 진로 정보실 및 진로 상담실의 공간이 충분하다는 의견(44.1%)이 부족하다는 의견(17.4%)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Ⅲ-15> 진로정보실 및 진로상담실 공간확보 실태

(단위: 개교, %)

구 분	충 분	보 통	부 족	계
빈도(백분율)	48(44.1)	42(38.5)	19(17.4)	109(100.0)

자료 : 김기홍 외(2000).

진로 상담실 방문 기록장 기입과 관련하여 진미석 등의 연구(2000)에서는 실업계 고교의 75.9%가 진로 교육장을 기록하고 있어 인문계 고교(64.3%)나 중학교 (69.4%)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6. 교원 측면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상담업무에 대하여 진미석 등의 연구(2000)에 의하면 진로지도가 지원이 많이 되는 영역이 아니라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중의 하나로만 인식하고 있었다(진미석 외. 2000).

진로지도 담당교원 측면에서는 진로지도 시간의 부족(35.1%), 체계적인 교육의 부족(26.9%), 진로지도 관련 이론과 실제의 지식 부족(2.3%) 등이 진로

지도를 실제 담당하는 교원들의 애로사항이었다(김기홍 외. 2000). 실제로 해남공고의 경우 주당 평균 17.6시간의 수업을 해야하는데다가 다른 업무의 과중으로 취업지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진로담당 교원과 취업담당 교원들 사이에는 밀접한 업무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진로상담교원은 취업지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편이다.

실업계 고교에는 실과부, 취업지도부, 진로지도부 등의 취업지도 관련 부서가 있다. 각 부서는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와 관련한 업무를 분담하여 담당교원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지도 담당 교원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취업지도를 실시하기보다는 행사위주의 취업지도로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업무과다로 인하여 유발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학생들과 취업지도를 실시하는 기회가 주어질지라도 효율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못함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실업계 고교 설립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우리 나라의 문화적인 특성 및 사회적인 흐름에 부합하여 실업계 고교의 진로지도가 진학지도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교원들은 취업지도를 형식적인 업무중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있다.

사실상 학교 내에서 진로지도 업무는 대개 담임교원에게 맡겨져 있고 학교의 취업지도부가 일정한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업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교내에서 취업지도 상담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에 관하여 담임선생님이라는 의견이 66.8%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선생님(25.0%), 취업담당 선생님(5.9%), 상담담당 선생님(2.4%)의 순으로 나타났다.[8)]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의 진로지도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초·중·고의 전체적인 진로지도를 담당하지 못해 일관성 없게 추

8 신덕자(1988). 직업가치관과 취업지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진되고 있다.

취업지도 담당교원의 경우 과다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 예로 선일여상 취업지도 담당교원의 경우 업무 내용은 ①취업관련 공문서 수발, ②각종 취업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사항, ③취업지도 계획수립, ④취업추천, 선발에 관한 사항, ⑤기업체 홍보 및 취업통제, ⑥공채 추천자에 대한 특별지도, ⑦실습자 선발 및 사전지도 업무, ⑧실습생 및 졸업생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 ⑨졸업생 취업원서 작성 및 등록대장 관리, ⑩취업보도실 관리 및 운영, ⑪취업지도 자료의 수집 및 보관 등 무려 11가지나 되고 있다.

강득구의 조사에 의하면 취업담당 보직교원이 한명도 없는 실업계 고교가 전체의 15.7%에 달했으며 46.1%의 학교는 2명의 교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취업지도의 부실을 나타냈다(강득구. 2000).

Ⅳ.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기대효과에 대한 의견

1.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여건조성

교원 및 관련자에 대하여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의 사회적인 조건을 조사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8가지 사회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응답자들은 모두 답하고 있었다. 특히, 특별채용제도화, 자격소유자 우대책 강구, 산업체 근무자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 제공에 대하여는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편이었고, 그 외의 사회적 인식제고, 관행이나 법제도 개선, 취업지도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병역혜택부여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대적으로 그 필요정도는 낮은 편이었다.

<표 Ⅳ-1>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여건조성에 대한 의견

(단위: %, 점)

구 분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없다	합계	평균점수
병역혜택 부여	81.7	9.9	8.4	100.0	4.31
특별채용 제도화	93.6	2.4	4.1	100.0	4.69
산업체 근무자 계속교육 기회확대	90.4	1.4	8.3	100.0	4.54
자격소유자 우대책 강구	90.9	2.2	6.9	100.0	4.54
고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79.5	15.2	5.3	100.0	4.14
관행이나 법제도 개선	84.1	4.1	11.8	100.0	4.41
사회적 인식제고	87.7	2.5	9.8	100.0	4.52
취업지도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82.5	12.9	4.6	100.0	4.29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학교유형별로는 교원 및 관련자에 대하여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의 정부 및 사회의 여건조성 측면을 조사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학교유형에 관계없이 교원들은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었는데 상대적으로는 병역혜택에 대하여는 실업고가 높았고 가사실업고는 낮은 편이었으며, 특별채용, 계속교육, 자격 연계에 관하여는 수산고교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클 것이라는 반응이 높았다. 반대로 계속교육이나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농업고 교원들이 효과에 대하여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자격연계와 관행에 대하여도 공고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Ⅳ-2> 학교유형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조건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단위: 점)

구 분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평균
병역혜택 부여	4.35	4.15	4.21	4.29	3.95	4.18	4.47	4.31
특별채용 제도화	4.68	4.68	4.64	4.79	4.57	4.70	4.72	4.69
산업체 근무자 계속교육 기회확대	4.54	4.50	4.32	4.57	4.52	4.53	4.57	4.54
자격소유자 우대책 강구	4.51	4.54	4.59	4.36	4.67	4.52	4.59	4.54
고교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4.08	4.20	4.12	4.50	4.10	4.16	4.17	4.14
관행이나 법제도 개선	4.40	4.32	4.32	4.57	4.33	4.36	4.34	4.41
사회적 인식제고	4.46	4.51	4.45	4.43	4.52	4.40	4.47	4.52
취업지도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4.32	4.39	4.05	4.50	4.10	4.21	4.25	4.29

* Ⅰ : 공업고. Ⅱ: 상업고. Ⅲ: 농업고. Ⅳ: 수산·해양고. Ⅴ: 가사실업고. Ⅵ: 종합고. Ⅶ: 실업고.

부서별로는 실과부 교원들은 병역혜택 부여, 특별채용, 자격증과의 연계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반응을 하였으며 반면 진로부 소속 교원들은 계속교육에 대하여는 높게 평가하나 병역혜택이나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Ⅳ-3).

지역별로는 뚜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표 Ⅳ-4), 담당교과목별로는 고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강화에만 보통교과 교원들이 높게 응답한 반면 나머지 분야에서는 전공교과 교원들이 높게 응답하고 있었다(표 Ⅳ-5).

<표 Ⅳ-3> 해당부서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조건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단위: 점)

구 분	실과부	진로부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기타	평균
병역혜택 부여	4.50	4.24	4.11	4.05	4.33	4.07	4.31
특별채용 제도화	4.78	4.66	4.53	4.63	4.65	4.66	4.69
산업체 근무자 계속교육 기회확대	4.56	4.58	4.42	4.47	4.52	4.55	4.54
자격소유자 우대책 강구	4.60	4.55	4.11	4.63	4.48	4.53	4.54
고교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4.11	4.19	4.21	4.26	4.08	4.10	4.14
관행이나 법 제도 개선	4.45	4.47	4.26	4.53	4.38	4.22	4.41
사회적 인식제고	4.60	4.49	4.58	4.32	4.49	4.41	4.52
취업지도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4.41	4.25	4.37	4.37	4.28	4.11	4.29

<표 Ⅳ-4> 거주지역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조건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단위: 점)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평균
병역혜택 부여	4.34	4.27	4.31	4.31
특별채용 제도화	4.66	4.73	4.70	4.69
산업체 근무자 계속교육 기회확대	4.59	4.47	4.53	4.54
자격소유자 우대책 강구	4.45	4.61	4.58	4.54
고교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4.12	4.08	4.17	4.14
관행이나 법 제도 개선	4.36	4.44	4.43	4.41
사회적 인식제고	4.50	4.54	4.49	4.52
취업지도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4.30	4.28	4.34	4.29

학교설립 형태별로는 사립학교 교원들은 특별채용, 계속교육, 자격우대, 사회적 인식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하여 높게 응답한 반면 국공립학교 교원들은 관행이나 법제도 개선에서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표 Ⅳ-6).

<표 Ⅳ-5> 담당교과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조건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단위: 점)

구 분	보통교과	전문교과	평균
병역혜택 부여	4.04	4.46	4.31
특별채용 제도화	4.60	4.74	4.69
산업체 근무자 계속교육 기회확대	4.53	4.54	4.54
자격소유자 우대책 강구	4.49	4.57	4.54
고교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4.22	4.09	4.14
관행이나 법 제도 개선	4.36	4.44	4.41
사회적 인식제고	4.42	4.57	4.52
취업지도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4.25	4.31	4.29

<표 Ⅳ-6> 학교설립형태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조건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단위: 점)

구 분	국립	공립	사립	평균
병역혜택 부여	4.55	4.29	4.35	4.31
특별채용 제도화	4.62	4.67	4.77	4.69
산업체 근무자 계속교육 기회확대	4.19	4.52	4.67	4.54
자격소유자 우대책 강구	4.55	4.52	4.60	4.54
고교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4.36	4.10	4.20	4.14
관행이나 법 제도 개선	4.62	4.41	4.39	4.41
사회적 인식제고	4.43	4.52	4.53	4.52
취업지도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4.64	4.24	4.45	4.29

가. 특별채용의 제도화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특별채용 제도화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표 Ⅳ-7>과 같이 학부모와 교원들은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정하였으며, 졸업생과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Ⅳ-7> 특별채용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0(0.0)	12(2.1)	23(4.1)	90(15.9)	441(77.9)	566(100.0)	4.70
관련자	졸업생	0(0.0)	2(4.5)	5(11.4)	8(18.2)	29(65.9)	44(100.0)	4.45
	학부모	0(0.0)	0(0.0)	1(2.5)	6(15.0)	33(82.5)	40(100.0)	4.80
	전문가	0(0.0)	1(7.1)	3(21.4)	4(28.6)	6(42.9)	14(100.0)	4.07
	소계	0(0.0)	3(3.1)	9(9.2)	18(18.4)	68(69.4)	98(100.0)	4.54
합 계		0(0.0)	15(2.3)	32(4.8)	108(16.3)	509(76.7)	664(100.0)	4.64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나. 관행이나 법제도의 개선

실업계 고교생에 불리한 관행이나 법제도 개선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 등의 모든 집단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교원들은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정하였으며, 졸업생, 학부모 및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Ⅳ-8).

<표 Ⅳ-8> 관행이나 법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1(0.2)	15(2.7)	61(10.8)	165(29.2)	324(57.2)	566(100.0)	4.41
관련자	졸업생	0(0.0)	6(13.0)	6(13.0)	13(28.3)	21(45.7)	46(100.0)	4.07
	학부모	2(5.0)	2(5.0)	7(17.5)	10(25.0)	19(47.5)	40(100.0)	4.05
	전문가	0(0.0)	1(7.1)	1(7.1)	8(57.1)	4(28.6)	14(100.0)	4.07
	소계	2(2.0)	9(9.0)	14(14.0)	31(31.0)	44(44.0)	100(100.0)	4.06
합 계		3(0.5)	24(3.6)	75(11.3)	196(29.4)	368(55.3)	666(100.0)	4.35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다. 사회적 위상제고

실업계 고교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대하여 <표 Ⅳ-9>와 같이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교원들은 필요성을 높게 인정하였으며, 졸업생, 학부모 및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Ⅳ-9> 실업계 고교의 사회적 인식제고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0(0.0)	14(2.5)	44(7.8)	144(25.4)	365(64.4)	567(100.0)	4.52
관련자	졸업생	0(0.0)	2(4.3)	11(23.9)	13(28.3)	20(43.5)	46(100.0)	4.11
	학부모	0(0.0)	1(2.5)	9(22.5)	12(30.0)	18(45.0)	40(100.0)	4.18
	전문가	0(0.0)	1(7.1)	1(7.1)	5(35.7)	7(50.0)	14(100.0)	4.29
	소계	0(0.0)	4(4.0)	21(21.0)	30(30.0)	45(45.0)	100(100.0)	4.16
합 계		0(0.0)	18(2.7)	65(9.7)	174(26.1)	410(61.5)	667(100.0)	4.46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라. 병역혜택 부여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 대한 병역혜택 부여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특히 전문가 집단이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정한 반면, 졸업생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마 현재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의 파행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졸업생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표 Ⅳ-10).

<표 Ⅳ-10> 병역혜택부여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9(1.6)	40(7.1)	43(7.6)	151(26.8)	320(56.8)	563(100.0)	4.30
관련자	졸업생	3(7.3)	5(12.2)	10(24.4)	11(26.8)	12(29.3)	41(100.0)	3.59
	학부모	0(0.0)	6(15.0)	2(5.0)	9(22.5)	23(57.5)	40(100.0)	4.23
	전문가	0(0.0)	0(0.0)	0(0.0)	3(21.4)	11(78.6)	14(100.0)	4.79
	소계	3(3.2)	11(11.6)	12(12.6)	23(24.2)	46(48.4)	95(100.0)	4.03
합 계		12(1.8)	51(7.8)	55(8.4)	174(26.4)	366(55.6)	658(100.0)	4.26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마. 산업체 근무자에 대한 계속 교육기회 확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을 포함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하여 계속교육 기회 제공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교원과 학부모들은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정하였으나, 졸업생과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Ⅳ-11).

<표 Ⅳ-11> 산업체 근무자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0(0.0)	4(0.7)	37(6.5)	175(30.9)	351(61.9)	567(100.0)	4.54
관련자	졸업생	0(0.0)	4(8.9)	13(28.9)	13(28.9)	15(33.3)	45(100.0)	3.87
	학부모	0(0.0)	0(0.0)	3(7.5)	11(27.5)	26(65.0)	40(100.0)	4.58
	전문가	0(0.0)	1(7.1)	3(21.4)	7(50.0)	3(21.4)	14(100.0)	3.86
	소계	0(0.0)	5(5.0)	19(19.2)	31(31.3)	44(44.4)	99(100.0)	4.15
합 계		0(0.0)	9(1.4)	56(8.4)	206(30.9)	395(59.3)	666(100.0)	4.48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바. 국가기술자격소유자에 대한 우대책 강구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하여 자격소유자 우대책에 대하여 <표 Ⅳ-12>와 같이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교원, 학부모, 졸업생들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전문가들은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Ⅳ-12> 국가기술자격소유자에 대한 우대책 강구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4(0.7)	7(1.2)	39(6.9)	148(26.1)	370(65.1)	568(100.0)	4.54
관련자	졸업생	0(0.0)	1(2.2)	5(11.1)	14(31.1)	25(55.6)	45(100.0)	4.40
	학부모	0(0.0)	1(2.5)	1(2.5)	8(20.0)	30(75.0)	40(100.0)	4.68
	전문가	0(0.0)	1(7.1)	5(35.7)	6(42.9)	2(14.3)	14(100.0)	3.64
	소계	0(0.0)	3(3.0)	11(11.1)	28(28.3)	57(57.6)	99(100.0)	4.40
합 계		4(0.6)	10(1.5)	50(7.5)	176(26.4)	427(64.0)	667(100.0)	4.52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사. 고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실업계 고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강화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학부모들이 가장 높게 보고 있으며, 교원, 졸업생, 전문가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13).

<표 Ⅳ-13> 고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4(0.7)	25(4.4)	86(15.2)	226(39.9)	226(39.9)	567(100.0)	4.14
관련자	졸업생	0(0.0)	4(8.9)	6(13.3)	19(42.2)	16(35.6)	45(100.0)	4.04
	학부모	0(0.0)	1(2.5)	5(12.5)	13(32.5)	21(52.5)	40(100.0)	4.35
	전문가	0(0.0)	1(7.1)	4(28.6)	8(57.1)	1(7.1)	14(100.0)	3.64
	소계	0(0.0)	6(6.0)	15(15.2)	40(40.4)	38(38.4)	99(100.0)	4.11
합 계		4(0.6)	31(4.7)	101(15.2)	266(39.9)	264(39.6)	666(100.0)	4.13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아. 실업계 고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실업계 고교에 대한 재정지원강화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교원과 학부모들이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한 반면 졸업생들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Ⅳ-14).

<표 Ⅳ-14> 실업계 고교에 대한 재정지원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1(0.2)	24(4.2)	64(11.3)	197(34.7)	282(49.6)	568(100.0)	4.29
관련자	졸업생	0(0.0)	3(6.8)	13(29.5)	13(29.5)	15(34.1)	44(100.0)	3.91
	학부모	0(0.0)	2(5.0)	7(17.5)	10(25.0)	21(52.5)	40(100.0)	4.25
	소계	0(0.0)	5(6.0)	20(23.8)	23(27.4)	36(42.9)	84(100.0)	4.07
합 계		1(0.2)	29(4.4)	84(12.9)	220(33.7)	318(48.8)	652(100.0)	4.27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전문가 조사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2. 실업계 고교생의 자기 이해 측면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취업지도를 위하여 무엇보다 당사자인 실업계 고교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찰하고 실업계 고교생들의 취업의욕을 높여야 하겠다.

<표 Ⅳ-15>에서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적성 및 흥미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취업지도에 매우 '도움이 된다'가 21.5%, '약간 도움이 된다'가 40.5%로 나타나고 있어, '도움이 안 된다'의 10.7%, '전혀 도움이 안 된다'의 1.1%에 비하여 월등하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집단별로는 학부모와 졸업생들이 포함된 관련자 집단이 교원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많이 인정하고 있었다. 교원의 특성별 적성 및 흥미 검사에 대한 의견은 <표 Ⅳ-16>과 같다.

학교유형별로는 공업고 3.70, 상업고 3.86, 농업고 3.72, 수산·해양고 3.50, 가사·실업고 3.29, 종합고 3.75, 실업고 3.59로 각각 나타나 상업고교 교원들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종합고, 농업고, 공업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사·실업고 교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표 Ⅳ-15> 적성 및 흥미 검사 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6(1.1)	64(11.3)	154(27.2)	227(40.0)	116(20.5)	567(100.0)	3.68
관련자	졸업생	1(2.2)	2(4.4)	11(24.4)	24(53.3)	7(15.6)	45(100.0)	3.76
	학부모	0(0.0)	4(10.0)	6(15.0)	13(32.5)	17(42.5)	40(100.0)	3.78
	소계	1(1.2)	6(7.1)	17(20.0)	37(43.5)	24(28.2)	85(100.0)	3.91
합 계		7(1.1)	70(10.7)	171(26.2)	264(40.5)	140(21.5)	652(100.0)	3.71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표 Ⅳ-16> 교원의 특성별 적성 및 흥미 검사 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점)

학교 유형별	공업고	상업고	농업고	수산 해양고	가사 실업고	종합고	실업고
	3.70	3.86	3.72	3.50	3.29	3.75	3.59
해당 부서별	실과부	진로상담부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기타	
	3.64	3.77	3.84	3.74	3.62	3.69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3.73		3.74		3.59		
담당 교과별	보통교과			전문교과			
	3.87			3.58			
학교 설립별	국립		공립		사립		
	3.81		3.62		3.85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

해당부서별로는 실과부 3.64, 진로상담부 3.77, 1학년부 3.84, 2학년부 3.74, 3학년부 3.62, 기타 3.69로 각각 나타났는데 1학년부 담당교원들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응답하고 있었으며 진로상담부, 2학년부 소속 교원들은 상대적으로 그 효과성을 인정한 반면 3학년부와 실과부에서는 그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3.73, 중소도시 3.74, 읍면 3.59로 도시 지역이 농촌에 비하여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담당교과별로는 보통교과 3.87, 전문교과 3.58로 전문교과 교원에 비하여 보통교과 교원들이 높게 응답하고 있었다. 학교설립별로는 국립 3.81, 공립 3.62, 사립 3.85로 사립, 국립, 공립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업계고교에서, 실과부와 3학년보다는 진로상담부와 1학년 집단에서,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전문교과 교원보다는 보통교과 교원들이 적성 및 흥미검사 결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3. 프로그램 측면

실업계 고교의 취업을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여건조성이 이루어지고, 학생

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 증대와 취업의지를 개발한 다음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겠다.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취업지도 프로그램 분야의 개선방안이 어느 정도 취업지도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분석한 결과(표 Ⅳ-17), 취업상담 강화가 5점 만점에 4.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험중심 직업교육 활성화, 졸업생과의 만남 및 초청특강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교과를 독립교과로 활용, 상담체제 구축, 진로탐색 과정운영이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 직업기초능력개발 교육강화, 진학과정과 취업과정의 2원화 등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진학과정과 취업과정의 운영은 현재 통합학교가 시범적용 단계에 있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려우나 응답자들은 과거의 종합고교를 연상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표 Ⅳ-17>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프로그램 관련 시책의 효과에 대한 의견

(단위: %, 점)

구 분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없다	합계	평균점수
취업교육을 독립교과로 설정	72.8	9.4	17.7	100.0	3.97
취업상담 강화	83.6	5.1	11.3	100.0	4.26
체험중심 취업교육 활성화	79.8	7.6	12.6	100.0	4.15
진학과정과 취업과정 이원화 운영	51.4	29.5	19.1	100.0	3.38
상담체제 구축	72.2	6.1	21.7	100.0	3.96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81.1	4.4	14.5	100.0	4.16
직업 기초능력개발 교육강화	61.2	9.0	29.8	100.0	3.71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	65.0	7.6	27.4	100.0	3.82
진로탐색 과정운영	70.1	9.1	20.8	100.0	3.96
졸업생과의 만남 및 초청특강지도	81.6	13.5	5.2	100.0	4.19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각 집단별로는 <표 Ⅳ-18>에서 <표 Ⅳ-22>까지와 같다. 먼저 학교별로는 공업고교 교원들이 각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반면 실업계 고교 교원들이 효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회의적이었다. 특히 공업계 교원들은 취업상담강화, 취업지도 프로그램개발 및 체험중심 취업교육 활성화를 높게 응답하고 있었다.

해당부서별로는 실과부와 3학년부에서는 취업상담 강화가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반면 진로상담부는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와 취업지도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학교위치별로는 농촌으로 갈수록 취업 교육을 독립교과로 하는 것이 실업계 고교생 취업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반대로 대도시로 갈수록 진로탐색과정이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Ⅳ-18> 학교유형별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프로그램 관련 시책의 효과에 대한 교원의 의견

(단위 : 점)

구 분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평균
취업교육을 독립교과로 설정	3.95	3.96	3.92	3.93	3.67	3.99	4.03	3.95
취업상담 강화	4.29	4.34	4.25	4.21	4.10	4.21	4.19	4.27
체험중심 취업교육 활성화	4.21	4.04	4.13	4.07	4.24	4.26	4.19	4.16
진학과정과 취업과정 이원화 운영	3.34	3.33	3.46	3.50	3.10	3.65	3.38	3.41
상담체제 구축	4.01	3.98	3.99	4.00	3.71	3.90	4.05	3.98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4.20	4.44	4.18	4.21	4.14	4.19	4.27	4.26
직업 기초능력개발 교육강화	3.66	3.74	3.77	3.64	3.52	3.71	3.66	3.70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	3.92	3.89	3.62	3.79	3.67	3.80	3.69	3.82
진로탐색 과정운영	4.09	4.01	3.79	3.93	4.10	3.91	3.78	3.97
졸업생과의 만남 및 초청특강지도	4.13	4.13	3.93	4.57	3.81	4.05	4.03	4.08

* Ⅰ : 공업고, Ⅱ : 상업고, Ⅲ: 농업고, Ⅳ: 수산·해양고, Ⅴ : 가사실업고, Ⅵ: 종합고, Ⅶ : 실업고

<표 Ⅳ-19> 해당 부서별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프로그램 관련 시책의 효과에 대한 교원의 의견

(단위: 점)

구 분	실과부	진로부	1학년	2학년	3학년	기타	평균
취업교육을 독립교과로 설정	3.90	4.09	4.79	4.00	4.01	3.86	3.96
취업상담 강화	4.30	4.30	4.11	4.37	4.39	4.07	4.27
체험중심 취업교육 활성화	4.12	4.13	4.21	4.26	4.14	4.18	4.14
진학과정과 취업과정 이원화 운영	3.08	3.59	3.74	3.32	3.51	3.38	3.36
상담체제 구축	3.89	4.20	4.00	4.32	4.00	3.84	4.00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4.15	4.63	3.89	4.47	4.18	4.26	4.30
직업 기초능력개발 교육강화	3.69	3.69	3.74	3.74	3.72	3.61	3.69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	3.81	3.86	3.84	3.84	3.82	3.76	3.82
진로탐색 과정운영	4.04	4.06	4.00	4.11	4.09	3.76	4.01
졸업생과의 만남 및 초청특강지도	4.12	4.12	3.89	4.37	4.11	4.03	4.10

<표 Ⅳ-20> 학교위치별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프로그램 관련 시책의 효과에 대한 교원의 의견

(단위: 점)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취업교육을 독립교과로 설정	3.89	4.00	4.02	3.96
취업상담 강화	4.25	4.18	4.38	4.27
체험중심 취업교육 활성화	4.10	4.07	4.26	4.14
진학과정과 취업과정 이원화 운영	3.24	3.51	3.41	3.37
상담체제 구축	4.00	3.94	4.06	4.00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4.38	4.18	4.27	4.29
직업 기초능력개발 교육강화	3.70	3.73	3.65	3.69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	3.85	3.73	3.86	3.82
진로탐색 과정운영	4.06	3.99	3.95	4.01
졸업생과의 만남 및 초청특강지도	4.13	4.04	4.14	4.11

담당교과별로 살펴보면 보통 교과 교원과 전공 교과 교원 모두가 프로그램 개선이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전공교과 교원에 비하여 보통교과 교원이 이에 대해 더 높은 의견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교설치 형태별로는 국공립은 취업상담강화를, 사립은 인성지도 강화, 직업기초능력강화 및 진학과정과 취업과정의 이원화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Ⅳ-21> 담당과목별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프로그램 관련 시책의 효과에 대한 교원의 의견

(단위: 점)

구 분	보통교과	전문교과	평균
취업교육을 독립교과로 설정	4.02	3.92	3.96
취업상담 강화	4.33	4.24	4.27
체험중심 취업교육 활성화	4.24	4.10	4.15
진학과정과 취업과정 이원화 운영	3.71	3.17	3.36
상담체제 구축	4.19	3.89	3.40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4.54	4.18	4.31
직업 기초능력개발 교육강화	3.80	3.64	3.69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	3.87	3.80	3.82
진로탐색 과정운영	4.01	4.01	4.01
졸업생과의 만남 및 초청특강지도	4.14	4.10	4.12

<표 Ⅳ-22> 학교설치 형태별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프로그램 관련 시책의 효과에 대한 교원의 의견

(단위: 점)

구 분	국립	공립	사립	평균
취업교육을 독립교과로 설정	4.23	3.92	4.02	3.96
취업상담 강화	4.50	4.27	4.25	4.27
체험중심 취업교육 활성화	4.32	4.13	4.17	4.15
진학과정과 취업과정 이원화 운영	3.45	3.27	3.64	3.36
상담체제 구축	4.23	3.94	4.11	3.99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4.45	4.21	4.20	4.22
직업 기초능력개발 교육강화	3.67	3.65	3.82	3.69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	3.91	3.78	3.95	3.82
진로탐색 과정운영	4.14	3.95	4.10	4.01
졸업생과의 만남 및 초청특강지도	4.41	4.05	4.30	4.11

가. 인성지도 프로그램 운영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학부모가 가장 높게 반응하였고, 다음은 교원이었으며,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표 Ⅳ-23).

<표 Ⅳ-23>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5(0.9)	38(6.7)	152(26.9)	227(40.1)	144(25.4)	566(100.0)	3.83
관련자	졸업생	0(0.0)	7(15.9)	20(45.5)	10(22.7)	7(15.9)	44(100.0)	3.39
	학부모	0(0.0)	1(2.5)	11(27.5)	13(32.5)	15(37.5)	40(100.0)	4.05
	소계	0(0.0)	8(9.5)	31(37.0)	23(27.4)	22(26.2)	84(100.0)	3.70
합 계		5(0.8)	46(7.1)	183(28.2)	250(38.5)	166(25.5)	650(100.0)	3.81

나. 다양한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실업계 고교 졸업생을 포함한 다양한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보급의 효과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교원과 학부모들은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정하였으며, 졸업생과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Ⅳ-24).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탐색과정운영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교원, 학부모, 졸업생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25).

<표 Ⅳ-24>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1(0.2)	23(4.1)	74(13.1)	238(42.0)	230(40.6)	566(100.0)	4.19
관련자	졸업생	0(0.0)	5(10.9)	12(26.1)	17(37.0)	12(26.1)	46(100.0)	3.79
	학부모	0(0.0)	0(0.0)	5(12.5)	15(37.5)	20(50.0)	40(100.0)	4.38
	전문가	1(7.1)	1(7.1)	3(21.4)	8(57.1)	1(7.1)	14(100.0)	3.50
	소 계	1(1.0)	6(6.0)	20(20.0)	40(40.0)	33(33.0)	100(100.0)	3.98
합 계		2(0.3)	29(4.4)	94(14.1)	278(41.7)	263(39.5)	667(100.0)	4.16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표 Ⅳ-25> 진로탐색 과정운영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6(1.1)	40(7.0)	112(19.7)	194(34.2)	216(38.0)	568(100.0)	4.01
관련자	1(1.2)	11(13.3)	25(29.8)	26(31.0)	21(25.0)	84(100.0)	3.65
합 계	7(1.1)	51(7.8)	137(21.0)	220(33.7)	237(36.3)	652(100.0)	3.96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실업계 고교의 체험중심 취업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학부모가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졸업생, 교원, 전문가의 순이었다(표 Ⅳ-26).

<표 Ⅳ-26> 체험중심 취업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8(1.4)	37(6.5)	71(12.5)	207(36.5)	244(43.0)	567(100.0)	4.13
관련자	졸업생	0(0.0)	2(4.3)	8(17.4)	15(32.6)	21(45.7)	46(100.0)	4.20
	학부모	0(0.0)	0(0.0)	3(7.5)	11(27.5)	26(65.0)	40(100.0)	4.58
	전문가	1(7.1)	0(0.0)	2(14.3)	8(57.1)	3(21.4)	14(100.0)	3.86
	소계	1(1.0)	2(2.0)	13(13.0)	34(34.0)	50(50.0)	100(100.0)	4.30
합 계		9(1.3)	39(5.8)	84(12.6)	241(36.1)	294(44.1)	667(100.0)	4.16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다. 취업지도를 독립교과로 운영

실업계 고교에서 취업교육을 독립교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학

부모와 교원들은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정하였으며, 졸업생과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Ⅳ-27).

<표 Ⅳ-27> 취업교육을 독립교과로 설정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9(1.6)	46(8.1)	102(18.0)	205(36.2)	205(36.2)	567(100.0)	3.97
관련자	졸업생	2(4.3)	7(15.2)	6(13.0)	20(43.5)	11(23.9)	46(100.0)	3.67
	학부모	0(0.0)	0(0.0)	7(17.5)	19(47.5)	14(35.0)	40(100.0)	4.18
	전문가	0(0.0)	2(14.3)	3(21.4)	6(42.9)	3(21.4)	14(100.0)	3.71
	소계	2(2.0)	9(9.0)	16(16.0)	45(45.0)	28(28.0)	100(100.0)	3.88
합 계		11(1.6)	55(8.2)	118(17.7)	250(37.5)	233(34.9)	667(100.0)	3.96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라. 직업기초능력 개발 교육강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을 포함한 실업계 고교에서의 직업기초능력 교육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그렇게 높은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었다(표 Ⅳ-28).

<표 Ⅳ-28> 직업기초능력 개발 교육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4(0.7)	54(9.5)	167(29.5)	233(41.1)	109(19.2)	567(100.0)	3.69
관련자	졸업생	1(2.3)	0(0.0)	18(41.9)	16(37.2)	8(18.6)	43(100.0)	3.70
	학부모	0(0.0)	2(5.0)	13(32.5)	18(45.0)	7(17.5)	40(100.0)	3.75
	소계	1(1.2)	2(2.4)	31(37.4)	34(41.0)	15(18.1)	83(100.0)	3.72
합 계		5(0.8)	56(8.6)	198(30.5)	267(41.1)	124(19.1)	650(100.0)	3.69

마. 진학반과 취업반의 이원화 운영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과정과 취업과정의 이원화 운영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학부모가 가장 높게 반응하였고, 다음으로 졸업생과 전문가, 교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표 Ⅳ-29).

<표 Ⅳ-29> 진학과정과 취업과정 이원화 운영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45(7.9)	138(24.3)	104(18.3)	144(25.4)	137(24.1)	568(100.0)	3.33
관련자	졸업생	0(0.0)	3(6.7)	19(42.2)	14(31.1)	9(20.0)	45(100.0)	3.64
	학부모	3(7.5)	2(5.0)	8(20.0)	16(40.0)	11(27.5)	40(100.0)	3.75
	전문가	0(0.0)	1(7.1)	5(35.7)	6(42.9)	2(14.3)	14(100.0)	3.64
	소계	3(3.0)	6(6.0)	32(32.3)	36(36.4)	22(22.2)	99(100.0)	3.69
합 계		48(7.2)	144(21.6)	136(20.4)	180(27.0)	159(23.8)	667(100.0)	3.39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바. 졸업생 활용 프로그램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을 위하여 졸업생과의 만남 및 특강기회의 증대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전문가와 교원들은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정하였으며 학부모와 졸업생들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Ⅳ-30).

<표 Ⅳ-30> 졸업생과의 만남 및 특강기회 증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3(0.5)	29(5.1)	74(13.1)	261(46.0)	200(35.3)	567(100.0)	4.10
관련자	졸업생	1(2.2)	2(2.2)	10(22.2)	26(57.8)	7(15.6)	45(100.0)	3.82
	학부모	0(0.0)	3(7.5)	10(25.0)	14(35.0)	13(32.5)	40(100.0)	3.93
	전문가	0(0.0)	0(0.0)	3(21.4)	6(42.9)	5(35.7)	14(100.0)	4.14
	소계	1(1.0)	5(5.0)	23(23.2)	46(46.5)	25(25.3)	100(100.0)	3.89
합 계		4(0.6)	34(5.1)	97(14.5)	307(46.0)	225(33.7)	667(100.0)	4.07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4. 현장실습개선을 위한 산학협력강화에 대한 의견

실업계 고교와 기업체와의 연계강화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학부모가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었으며, 교원, 졸업생, 전문가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31).

<표 Ⅳ-31> 산학협력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1(0.2)	9(1.6)	62(10.9)	197(34.7)	298(52.6)	567(100.0)	4.38
관련자	졸업생	0(0.0)	1(2.2)	8(17.4)	19(41.3)	18(39.1)	46(100.0)	4.17
	학부모	0(0.0)	0(0.0)	4(10.0)	12(30.0)	24(60.0)	40(100.0)	4.50
	전문가	0(0.0)	0(0.0)	3(21.4)	10(71.4)	1(7.1)	14(100.0)	3.86
	소계	0(0.0)	1(1.0)	15(15.0)	41(41.0)	43(43.0)	100(100.0)	4.26
합 계		1(0.1)	10(1.5)	77(11.5)	238(35.7)	341(51.1)	667(100.0)	4.36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산학협력강화를 강화하는 것이 취업지도에 매우 '도움이 된다'가 51.1%, '약간 도움이 된다'가 35.7%로 나타나고 있어, '도움이 안 된다'의 1.5%, '전혀 도움이 안 된다'의 0.1%에 비하여 월등하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집단별로는 학부모와 졸업생들이 포함된 관련자 집단보다는 교원집단이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많이 인정하고 있었다.

학교유형별로는 공업고 4.44, 상업고 4.28, 농업고 4.29, 수산·해양고 4.71, 가사·실업고 4.33, 종합고 4.36, 실업고 4.47로 각각 나타나 수산·해양고교 교원들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실업고, 공업고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상업고와 농업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표 Ⅳ-32).

<표 Ⅳ-32> 교원의 특성별 산학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점)

학교 유형별	공업고	상업고	농업고	수산 해양고	가사 실업고	종합고	실업고
	4.44	4.28	4.29	4.71	4.33	4.36	4.47
해당 부서별	실과부	진로상담부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기타	
	4.39	4.40	4.16	4.42	4.43	4.40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4.36		4.33		4.45		
담당 교과별	보통교과			전문교과			
	4.43			4.37			
학교 설립별	국립		공립		사립		
	4.82		4.36		4.41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해당부서별로는 실과부 4.39, 진로상담부 4.40, 1학년부 4.16, 2학년부 4.42, 3학년부 4.43, 기타 4.40으로 각각 나타났는데 1학년부 담당교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집단들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4.36, 중소도시 4.33, 읍면 4.45로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하여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담당교과별로는 보통교과 4.43, 전문교과 4.37로 전문교과 교원에 비하여 보통교과 교원들이 높게 응답하고 있었다.

학교설립별로는 국립 4.82, 공립 4.36, 사립 4.41로 국립, 사립, 공립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집단에 관계없이 산학협력강화에 대하여는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5. 취업정보 제공 측면

취업정보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Ⅳ-3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취업정보 제공강화(4.26), 직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4.23), 학교별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4.20), 취업정보 확충(4.05), 시·도 단위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3.84),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취업지도 강화(3.67)로 각각 나타나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학교유형별로는 직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하여는 상업고교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별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실업고가, 취업정보 확충에 대하여는 수산해양고가, 취업정보 제공강화에 대하여는 공고와 수산·해양고가, 시·도 단위의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수산·해양고가,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취업지도 강화에는 공고와 수산·해양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사·실업고 교원들이 정보 관련 사항에 대하여 효과가 많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표 Ⅳ-34).

<표 Ⅳ-33>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관련 정보측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 %, 점)

구 분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없다	합계	평균점수
직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83.8	3.4	12.8	100.0	4.23
학교별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81.9	5.1	13.0	100.0	4.20
취업정보 확충	77.3	4.6	18.1	100.0	4.05
취업정보 제공강화	85.6	2.9	11.5	100.0	4.26
국가 및 시·도 단위의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68.6	9.0	22.5	100.0	3.84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취업지도 강화	58.8	9.0	32.3	100.0	3.67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표 Ⅳ-34> 학교유형별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정보분야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단위 : 점)

구 분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평균
직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4.26	4.33	4.23	4.21	3.90	4.16	4.26	4.24
학교별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4.18	4.25	4.23	4.21	4.00	4.13	4.34	4.20
취업정보 확충	4.11	4.12	3.96	4.21	3.71	4.02	4.02	4.06
취업정보제공 강화	4.25	4.38	4.13	4.36	4.00	4.22	4.27	4.26
국가 및 시·도 단위의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	3.84	3.80	3.90	4.21	3.90	3.85	3.98	3.86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한 취업지도강화	3.79	3.63	3.58	3.79	3.48	3.68	3.68	3.68

*Ⅰ:공업고, Ⅱ:상업고, Ⅲ:농업고, Ⅳ:수산해양고, Ⅴ:가사실업고, Ⅵ:종합고, Ⅶ:실업고

<표 Ⅳ-35> 소속 부서별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정보분야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단위: 점)

구 분	실과부	진로부	1학년	2학년	3학년	기타	평균
직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4.31	4.17	4.22	4.53	4.34	4.17	4.26
학교별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4.20	4.25	4.26	4.32	4.29	4.08	4.22
취업정보 확충	4.04	4.12	4.06	4.00	4.17	3.96	4.07
취업정보제공 강화	4.28	4.23	4.32	4.11	4.26	4.24	4.25
국가 및 시·도 단위의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3.91	3.83	4.05	4.00	3.82	3.76	3.86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한 취업지도 강화	3.68	3.68	3.89	3.74	3.73	3.60	3.68

<표 Ⅳ-36> 학교위치별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정보분야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단위: 점)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평균
직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4.26	4.21	4.32	4.27
학교별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4.20	4.19	4.23	4.21
취업정보 확충	4.12	3.94	4.10	4.06
취업정보제공 강화	4.26	4.15	4.31	4.25
국가 및 시·도 단위의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	3.86	3.79	3.90	3.85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한 취업지도강화	3.72	3.70	3.62	3.68

소속부서별로는 직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학교별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2학년부 소속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을 하였으며, 취업정보 확충에 대하여는 3학년부 소속 교원이 취업정보제공 강화에 대하여는 3학년부 소속 교원과 취업부 담당교원이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시·도 단위의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과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한 취업지도 강화에 대하여는 1학년부 소속 교원들이 높게 반응하고 있었다(표 Ⅳ-35).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홈페이지 이용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표 Ⅳ-36), 담당교과별로는 정보 관련 모든 항목에서 보통교과 교원들이 전문교과 교원들에 비하여 높게 반응하고 있었다(표 Ⅳ-37). 학교설립유형별로는 공립학교 교원에 비하여 사립학교 교원들은 직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었다(표 Ⅳ-38).

<표 Ⅳ-37> 담당교과별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정보분야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단위: 점)

구 분	보통교과	전문교과	평 균
직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4.33	4.23	4.26
학교별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4.25	4.19	4.21
취업정보 확충	4.16	4.02	4.07
취업정보제공 강화	4.30	4.23	4.25
국가 및 시·도 단위의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	3.94	3.82	3.86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한 취업지도강화	3.72	3.65	3.68

<표 Ⅳ-38> 학교 설립주체별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정보분야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단위: 점)

구 분	국립	공립	사립	평균
직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4.45	4.20	4.46	4.27
학교별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4.33	4.19	4.27	4.21
취업정보 확충	4.19	4.03	4.18	4.07
취업정보제공 강화	4.64	4.20	4.37	4.25
국가 및 시·도 단위의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	3.95	3.83	3.94	3.86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한 취업지도강화	3.86	3.64	3.77	3.68

가. 국가 및 지역단위 취업정보센터의 기능 강화

국가 및 시·도 단위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약간 도움이 된다 42.5%, 매우 도움이 된다 25.9%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68.4%가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었으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0.8%, 도움이 안 된다 7.8%로 이 둘을 합쳐 8.6%에 불과하였다. 집단별로는 학부모가 가장 반응이 좋았고, 교원, 졸업생의 순이었다(표 Ⅳ-39).

<표 Ⅳ-39> 국가 및 시·도 단위의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5(0.9)	46(8.1)	129(22.7)	244(43.0)	144(25.4)	568(100.0)	3.84
관련자	졸업생	0(0.0)	5(11.4)	12(27.3)	16(36.4)	11(25.0)	44(100.0)	3.75
	학부모	0(0.0)	0(0.0)	9(22.5)	17(42.5)	14(35.0)	40(100.0)	4.13
	소계	0(0.0)	5(6.0)	21(25.0)	33(39.3)	25(29.8)	84(100.0)	3.93
합 계		5(0.8)	51(7.8)	150(23.0)	277(42.5)	169(25.9)	652(100.0)	3.85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나. 학교단위 진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실업계 고교에 진로정보센터 설치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특히 전문가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교원, 졸업생, 학부모 모두가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높게 반응하고 있었다(표 Ⅳ-40).

<표 Ⅳ-40> 학교단위 진로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1(0.2)	27(4.8)	77(13.6)	211(37.2)	251(44.3)	567(100.0)	4.21
관련자	졸업생	0(0.0)	2(4.4)	9(20.0)	15(33.3)	19(42.2)	45(100.0)	4.13
	학부모	0(0.0)	3(7.5)	3(7.5)	18(45.0)	16(40.0)	40(100.0)	4.18
	전문가	0(0.0)	0(0.0)	1(7.1)	3(21.4)	10(71.4)	14(100.0)	4.64
	소계	0(0.0)	5(5.0)	13(13.1)	36(36.4)	45(45.5)	99(100.0)	4.22
합 계		1(0.2)	32(4.8)	90(13.5)	247(37.1)	296(44.4)	666(100.0)	4.21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다. 진로정보센터의 예산 확충 및 홍보 강화

실업계 고교 진로정보센터(취업정보센터)의 정보 확충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교원과 학부모들은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정하였으며, 교원, 졸업생의 순이었다(표 Ⅳ-41).

<표 Ⅳ-41> 취업정보 확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0(0.0)	25(4.4)	102(18.0)	259(45.8)	180(31.8)	566(100.0)	4.05
관련자	졸업생	0(0.0)	4(9.1)	12(27.3)	16(36.4)	12(27.3)	44(100.0)	3.82
	학부모	0(0.0)	1(2.5)	5(12.5)	19(47.5)	15(37.5)	40(100.0)	4.20
	소계	0(0.0)	5(6.0)	17(20.2)	35(41.7)	27(32.1)	84(100.0)	4.00
합 계		0(0.0)	30(4.6)	119(18.3)	294(45.2)	207(31.8)	650(100.0)	4.04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라. 홈페이지의 취업코너 설치 및 운영

실업계 고교에서 홈페이지를 활용한 취업지도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학부모, 교원, 졸업생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표 Ⅳ-42).

<표 Ⅳ-42>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취업지도 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3(0.5)	47(8.3)	184(32.4)	238(41.9)	96(16.9)	568(100.0)	3.66
관련자	졸업생	0(0.0)	7(15.9)	19(43.2)	10(22.7)	8(18.2)	44(100.0)	3.43
	학부모	0(0.0)	2(5.0)	11(27.5)	17(42.5)	10(25.0)	40(100.0)	3.88
	소계	0(0.0)	9(10.7)	30(35.7)	27(32.1)	18(21.4)	84(100.0)	3.64
합 계		3(0.5)	56(8.6)	214(32.8)	265(40.6)	114(17.5)	652(100.0)	3.66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마. 취업망 형성

실업계 고교에서 취업정보 제공 강화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특히 학부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았으며, 교원이나 졸업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다른 정책과제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표 Ⅳ-43).

실업계 고교의 직업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교원과 학부모들은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정하였으며, 전문가들은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Ⅳ-44).

<표 Ⅳ-43> 취업정보 제공 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1(0.2)	18(3.2)	69(12.1)	239(42.1)	241(42.4)	568(100.0)	4.23
관련자	졸업생	0(0.0)	2(4.5)	7(15.9)	17(38.6)	18(40.9)	44(100.0)	4.16
	학부모	0(0.0)	0(0.0)	4(10.3)	11(28.2)	24(61.5)	39(100.0)	4.51
	소계	0(0.0)	2(2.4)	11(13.3)	28(33.7)	42(50.6)	83(100.0)	4.33
합 계		1(0.2)	20(3.1)	80(12.3)	267(41.0)	283(43.5)	651(100.0)	4.25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표 Ⅳ-44> 직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1(0.2)	21(3.7)	67(11.8)	224(39.5)	254(44.8)	567(100.0)	4.25
관련자	졸업생	0(0.0)	0(0.0)	11(24.4)	21(46.7)	13(28.9)	45(100.0)	4.04
	학부모	0(0.0)	1(2.5)	8(20.0)	14(35.0)	17(42.5)	40(100.0)	4.18
	전문가	0(0.0)	1(7.1)	4(28.6)	7(50.0)	2(14.3)	14(100.0)	3.71
	소계	0(0.0)	2(2.0)	23(23.2)	42(42.4)	32(32.3)	99(100.0)	4.05
합 계		1(0.2)	23(3.5)	90(13.5)	266(39.9)	286(42.9)	666(100.0)	4.22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바. 취업상담 강화

실업계 고교의 취업상담 강화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학부모들은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정하였으며, 교원, 졸업생, 전문가들은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Ⅳ-45).

<표 Ⅳ-45> 취업상담 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3(0.5)	27(4.8)	63(11.1)	198(34.9)	276(48.7)	567(100.0)	4.26
관련자	졸업생	0(0.0)	3(6.5)	6(13.0)	16(34.8)	21(45.7)	46(100.0)	4.20
	학부모	0(0.0)	1(2.5)	4(10.0)	14(35.0)	21(52.5)	40(100.0)	4.38
	소계	0(0.0)	4(4.7)	10(11.6)	30(34.9)	42(48.8)	86(100.0)	4.28
합 계		3(0.5)	31(4.7)	73(11.2)	228(34.9)	318(48.7)	653(100.0)	4.27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실업계 고교의 상담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교원과 학부모들은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정하였으며 전문가들은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Ⅳ-46).

<표 Ⅳ-46> 상담체제 구축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1(0.2)	31(5.5)	118(21.0)	242(43.0)	171(30.4)	563(100.0)	3.98
관련자	졸업생	0(0.0)	3(6.7)	13(28.9)	18(40.0)	11(24.4)	45(100.0)	3.82
	학부모	0(0.0)	2(5.0)	9(22.5)	17(42.5)	12(30.0)	40(100.0)	3.98
	전문가	1(7.1)	0(0.0)	3(21.4)	8(57.1)	2(14.3)	14(100.0)	3.71
	소계	1(1.0)	5(5.0)	25(25.3)	43(43.4)	25(25.3)	99(100.0)	3.87
합 계		2(0.3)	36(5.4)	143(21.6)	285(43.1)	196(29.6)	662(100.0)	3.96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6. 교원 측면

소속부서별로는 진로부에 소속한 교원들이 다른 부서에 소속한 교원에 비하여 전문상담 교원확보, 취업상담인력관리체제 확립, 전교원의 진로상담교원화를 위한 연수강화에 대하여 높게 반응하고 있었다(표 Ⅳ-48).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전문상담교원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표 Ⅳ-49). 담당교과별로는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 관련 3가지 항목 모두에서 보통교과 교원들이 전문교과 교원에 비하여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었다(표 Ⅳ-50). 학교설립유형별로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국·공립 교원에 비하여 전 교원의 진로상담 교원화를 위한 연수강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표 Ⅳ-47> 학교유형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교원측면 항목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단위 : 점)

구 분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평균
전문상담 교원확보	3.97	3.85	4.01	3.93	3.71	3.95	3.95	3.93
전 교원의 진로상담 교원화를 위한 연수강화	3.67	3.62	3.62	3.57	3.57	3.61	3.69	3.64
취업상담 인력 관리체제 수립	3.72	3.82	3.76	3.93	3.52	3.78	3.77	3.76

* Ⅰ: 공업고, Ⅱ: 상업고, Ⅲ: 농업고, Ⅳ: 수산·해양고, Ⅴ: 가사실업고, Ⅵ: 종합고, Ⅶ : 실업고

<표 Ⅳ-48> 소속 부서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교원측면 항목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단위 : 점)

구 분	실과부	진로부	1학년	2학년	3학년	기타	평균
전문상담 교원확보	3.76	4.19	4.11	4.37	3.90	3.79	3.93
전 교원의 진로상담 교원화를 위한 연수강화	3.63	3.74	3.68	3.84	3.65	3.45	3.64
취업상담 인력 관리체제수립	3.64	3.83	3.68	3.79	3.74	3.82	3.74

<표 Ⅳ-49> 학교위치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교원측면 항목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단위: 점)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평균
전문상담 교원확보	3.91	3.93	3.94	3.93
전 교원의 진로상담 교원화를 위한 연수강화	3.70	3.57	3.64	3.65
취업상담 인력 관리체제수립	3.73	3.58	3.86	3.73

<표 Ⅳ-50> 담당교과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교원측면 항목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단위: 점)

구 분	보통교과	전문교과	평균
전문상담 교원확보	4.16	3.81	3.93
전 교원의 진로상담 교원화를 위한 연수강화	3.73	3.60	3.64
취업상담 인력 관리체제수립	3.87	3.66	3.74

<표 Ⅳ-51> 학교설립주체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교원측면 항목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단위: 점)

구 분	국립	공립	사립	평균
전문상담 교원확보	4.23	3.87	4.07	3.93
전 교원의 진로상담 교원화를 위한 연수강화	3.52	3.62	3.73	3.64
취업상담 인력 관리체제수립	4.05	3.69	3.82	3.73

응답하고 있었다(표 Ⅳ-51).

전교원의 진로상담 교원화를 위한 연수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학부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원과 졸업생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Ⅳ-52).

<표 Ⅳ-52> 전교원의 진로상담 교원화를 위한 연수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8(1.4)	69(12.2)	162(28.6)	215(37.9)	113(19.9)	567(100.0)	3.63
관련자	졸업생	0(0.0)	4(9.1)	20(45.5)	17(38.6)	3(6.8)	44(100.0)	3.43
	학부모	0(0.0)	2(5.0)	9(22.5)	18(45.0)	11(27.5)	40(100.0)	3.95
	소계	0(0.0)	6(7.1)	29(34.5)	35(41.7)	14(16.7)	84(100.0)	3.68
합 계		8(1.2)	75(11.5)	191(29.3)	250(38.4)	127(19.5)	651(100.0)	3.63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실업계 고교의 취업상담인력 관리 체제수립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학부모, 졸업생, 교원, 전문가의 순으로 높게 반응하였는데, 특히 교원이 가장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표 Ⅳ-53).

<표 Ⅳ-53> 취업상담 인력관리 체제수립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14(2.5)	76(13.4)	114(20.1)	209(36.9)	153(27.0)	566(100.0)	3.73
관련자	졸업생	1(2.2)	3(6.7)	15(33.3)	10(22.2)	16(35.6)	45(100.0)	3.82
	학부모	1(2.5)	1(2.5)	8(20.0)	16(40.0)	14(35.0)	40(100.0)	4.02
	전문가	2(14.3)	3(21.4)	3(21.4)	4(28.6)	2(14.3)	14(100.0)	3.07
	소계	4(4.0)	7(7.1)	26(26.3)	30(30.3)	32(32.3)	99(100.0)	3.80
합 계		18(2.7)	83(12.5)	140(21.1)	239(35.9)	185(27.8)	665(100.0)	3.74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실업계 고교의 전문상담 교원 확보에 대하여 교원, 졸업생, 학부모, 전문가의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반응하였으며, 전문가, 교원, 졸업생의 순이었다(표 Ⅳ-54).

<표 Ⅳ-54> 전문상담교원 확보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평균 점수
교 원		8(1.4)	44(7.8)	117(20.6)	216(38.1)	182(32.1)	567(100.0)	3.92
관련자	졸업생	0(0.0)	2(4.4)	19(42.2)	16(35.6)	8(17.8)	45(100.0)	3.67
	학부모	0(0.0)	2(5.0)	4(10.0)	16(40.0)	18(45.0)	40(100.0)	4.25
	전문가	0(0.0)	1(7.1)	1(7.1)	9(64.3)	3(21.4)	14(100.0)	4.00
	소계	0(0.0)	5(5.0)	24(24.2)	41(41.4)	29(29.3)	99(100.0)	3.95
합 계		8(1.2)	49(7.4)	141(21.2)	257(38.6)	211(31.7)	666(100.0)	3.92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7. 정책 우선 순위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교원, 학부모, 졸업생,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표 Ⅳ-55>와 같다. 각 집단별로 응답한 경우가 틀렸는데, 전체 평균으로는 특별채용 제도화, 자격소유자 우대책 강구, 산업체 근무자 계속교육 기회확대, 사회적 인식제고, 산학협력 강화, 관행이나 법제도 개선, 취업상담강화, 병역혜택 부여, 실업계 고교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가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취업정보 제공 강화, 직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학교별 진로정보센터 설치운영, 체험중심 취업교육 활성화,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고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졸업생과의 만남 및 특강 기회이다.

그 다음으로는 진로탐색과정운영, 취업교과를 독립교과로 설정, 상담체제 구축, 전문상담 교원확보, 국가 및 시·도단위 취업정보센터 설치,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 등이다. 가장 낮은 집단은 취업상담 인력관리체제수립, 적성 및 흥미검사 개발, 직업기초능력 개발, 전교원의 진로상담 교원화를 위한 연수,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취업지도 강화, 진학과정과 취학과정의 이원화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마지막인 진학과정과 취학과정의 이원화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과제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표 Ⅳ-55>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안)에 대한 관련자의 의견

(단위: 점)

구 분	교원	졸업생	학부형	전문가	전체	우선순위
특별채용 제도화	4.70	4.45	4.80	4.07	4.67	1
자격소유자 우대책 강구	4.54	4.40	4.68	3.64	4.53	2
산업체 근무자 계속교육 기회확대	4.54	3.87	4.58	3.86	4.49	3
사회적 인식제고	4.52	4.11	4.18	4.29	4.47	4
산학협력 강화	4.38	4.17	4.50	3.86	4.36	5
관행이나 법 제도 개선	4.41	4.07	4.05	4.07	4.35	6
취업상담 강화	4.26	4.20	4.38	-	4.27	7
취업지도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4.29	3.91	4.25	-	4.27	7
병역혜택 부여	4.30	3.59	4.23	4.79	4.26	9
취업정보제공 강화	4.23	4.16	4.51	-	4.25	10
직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4.25	4.04	4.18	3.71	4.22	11
학교별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4.21	4.13	4.18	4.64	4.21	12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4.19	3.79	4.38	3.50	4.16	13
체험중심 취업교육 활성화	4.13	4.20	4.58	3.86	4.16	13
고교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4.14	4.04	4.35	3.64	4.13	15
졸업생과의 만남 및 특강 기회 증대	4.10	3.82	3.93	4.14	4.07	16
취업정보 확충	4.05	3.82	4.20	-	4.04	17
진로탐색 과정운영	4.01	3.41	3.93	-	3.96	18
취업교육을 독립교과로 설정	3.97	3.67	4.18	3.71	3.96	18
상담체제 구축	3.98	3.82	3.98	3.71	3.96	18
전문상담 교원확보	3.92	3.67	4.25	4.00	3.92	21
시·도 단위의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	3.84	3.75	4.13	-	3.85	22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	3.83	3.39	4.05	-	3.81	23
취업상담 인력 관리체제수립	3.73	3.82	4.02	3.07	3.74	24
적성 및 흥미검사 강화	3.68	3.76	3.78	-	3.71	25
직업 기초능력개발 교육강화	3.69	3.70	3.75	-	3.69	26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한 취업지도강화	3.66	3.43	3.88	-	3.66	27
전 교원의 진로상담 교원화를 위한 연수강화	3.63	3.43	3.95	-	3.63	28
진학과정과 취업과정 이원화 운영	3.33	3.64	3.75	3.64	3.39	29

*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결과임.

Ⅴ.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

1.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여건조성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주변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병역혜택 부여, 특별채용 제도화, 산업체 근무자 계속 교육 기회확대, 자격소유자 우대책 강구, 관행이나 법제도 개선, 사회적 인식제고와 같은 정부 및 사회의 여건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부 및 사회의 여건조성 측면을 제시한다. 이러한 측면이 구체적인 취업지도 개선안의 추진 이전에 선행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가. 국가공무원 및 법인, 산업체 등에 특별채용 제도화

현재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여건은 사실상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수준 즉 본봉, 수당, 상여금 규모에서 차이가 나고있다. 실업계 고교 재학생들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의 상당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 여건 또한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실업계 고교가 위축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체의 규모가 <표 Ⅴ-1>과 같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공무원 및 법인, 산업체 등의 특별채용을 제도화하는 것이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실업계 고교생들이 원하면 중소기업 등에 거의 취업이 된다. 문제는 대기업 등에 취업이 많이 되지 않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기업에서 채용인원의 일부를 실업계 고교 졸업생으로 충원(quota system적용)함으로써 실업계

<표 Ⅴ-1> 실업계 고교졸업생의 취업기업 규모

(단위 : 명, %)

	총 졸업생수	취업 희망자수	취업 희망자 비율(%)	취 업 내 용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기타	계
1997	484	342	70.7	71(21.7)	236(72.2)	20(6.1)	327(100.0)
1998	552	277	50.2	26(10.8)	212(88.3)	2(0.8)	240(100.0)
1999	517	333	64.4	36(6.1)	261(0.8)	6(3.0)	297(100.0)
2000	569	270	47.5	NA	NA	NA	NA

자료 : 경기도 안산경영정보고교 홈페이지 게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NA=Not Available

고교를 졸업하고서도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현재 기업에는 40대 중반부터 50대에 걸쳐 '이사' 이상의 중역이 상당수 있다. 2001. 3. 14에 발표된 어떤 기업의 이사 222명 중 12.6%인 28명이 실업계 고교출신이며, 그 중에서 우리 나라의 최대 우량기업인 기업에는 96명의 이사 이상의 간부 가운데 16명(16.6%)이 실업계 고교 출신이다. 대기업에서는 실업계 고교 출신이 그 동안 기업성장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일정 부분의 취업 기회를 실업계 고교 출신에 할애하여야 하겠다.

나.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게 불리한 관행이나 법제도 개선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여건 조성이 시급하며, 우선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불리한 관행이나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용환(2000)에 의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졸업 후 첫 직장에서의 임금에 71.9%가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임금에 대한 불만과 근무조건 등의 이유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등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낮은 경제적 대우

는 사회적 위세와 연결되며, 나아가 승진에서도 뒤떨어지게 되어 사회적으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게임의 룰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노력한 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력의 차이가 다른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사회가 아닌 노력한 만큼의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 실업계 고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과 보다 적극적인 직업활동을 위하여 직업가치관이나 사회적 인식을 올바른 진로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실업계 고교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졸자와 실업계 고교의 졸업생 임금격차가 대학 수학 기간인 4년보다 실제로 더 많이 나타나는 실정에 있다.

이를 위하여 실업계 고교 출신 성공인의 사례를 발굴하여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사업을 추진하며, 직업교육기관과 프로그램, 자격, 진로, 유망직업 등에 대한 박람회를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개최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도내 실업계 고교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홍보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이 웹사이트는 학교소개, 학과소개, 자격증 소개, 교수학습, 진학, 취업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소개'에서는 도내 실업계고의 현황과 직접 학교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학과소개'에서는 농·공·상고별 전문학과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자격증' 코너는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각종 자격증에 대한 시험과 과목에 대한 정보 사이트를 링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취업코너'에서는 농·공·상 계열별로 취업처, 취업성공사례, 자격증 취득, 취업준비 등 각종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충청북도 교육청은 2001년 충북 직업교육 종합축제를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중·고등학교와 대

학, 연구·직업 교육기관 등이 참가하여 학습자료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과 졸업 후 취업 안내를 위한 홍보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그래픽 등으로 알기 쉽게 편집된 이 사이트는 학과별 주요학습 및 실습분야, 학과별 자격증 취득 종목, 학교 등을 안내하고 있다.

라. 산업기능제도 개선과 입영연기 검토

실업계 고교교육을 마치는 남학생들의 경우, 취업여부를 결정하거나 장기적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 군복무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재학생의 취업지도뿐만 아니라 기능인력 관리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군 인력 수급의 측면을 고려하여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상당수 남학생들이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으로 잠시 머문 다음 군대를 가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공고 출신의 기능직들은 기껏 기술을 가르쳐 놓으면 1~2년이 지나 다시 군입대 등을 이유로 회사를 떠나 숙련공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병역대체 복무형태로서 군 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자원의 일부를 지정업체에 기술인력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지원 육성 발전에 기여하는데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목적이 있으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3년간 해당기술 직무분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8개월간 제조·생산분야에서 종사하면 공익근무소집을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 종사자로서 기술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능사보 포함)를 가져야 하며,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기술 자격·면허가 제한이 없다.

그러나 최근 산업기능업체가 감소추세에 있고 배정인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업체에서는 매우 위험한 작업을 시키며 처우를 재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2000)의 조사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기업에서는 기술인력 확보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으나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들은 처우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기간을 만료 한 뒤에 67%가 이직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현재와 같은 기피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실업계 고교생들이 이 제도에 대하여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실업계 고교를 졸업한 남학생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되지 않거나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 입대를 하여야 한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고교 졸업 1 2년 뒤에 입대가 되기 때문에 취업하기도 어렵고 취업을 하여도 정식사원이 되지 않고 임시직으로 지내게 된다. 그에 따라 서비스업종의 임시직을 전전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의 경우 3년은 입영을 연기하여 주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인력관리 측면에서 병역이후 실업계 졸업생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는 취업지도 차원에서 필요하다.

마. 선 취업 후 진학 여건 조성

산업인력의 조기양성이라는 실업계 고교의 주요 설립취지에 입각하여 먼저 취업을 하여 일정기간 사회 경험을 한 뒤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실업계 고교생들과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는 일단 진학부터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실업계 고교생을 일단 취업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한 실업계 고교생이 대학 진학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취업자 특별전형과 실업계 고교생 특별전형, 자격증 특별전형을 확대하여야 하겠다. 현재 이러한 전형방법은 각 학교별로 지원자격, 학생부

반영비율, 모집일시(수시, 특차), 경력산정기준이나 취업기관의 범위(취업자의 경우)가 다르고 각 학교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이것을 확대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겠다. 아울러, 굳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학사학위 제도나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학점취득 제도가 활성화되어 실업계 고교생들이 대학을 꼭 가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바. 국가기술자격소유자에 대한 우대책 강구

실업계 고교생들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신뢰성, 활용성, 전문성 결여로 대우가 미흡하며 자격종목 및 내용이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다변화되어 가는 직업기술과 연계성이 부족하다. 즉, 자격시험의 평가내용이 학교의 교육내용과 차이가 있어 교과업무와 따로 자격취득공부를 하여야 한다. 사실상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자격검정의 평가기준, 그리고 관련 교과와 내용이 상이함으로 신뢰할 만한 자격증 발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생들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에서 우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의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임금과 대우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자격증 수당의 제도화와 승진에 반영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업계 고교생들이 취득한 자격의 통용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자격취득을 위해 개인의 직업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자격체제의 구축과 취득한 자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사. 고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국가기술자격과 일치하지 않음으로 교육의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이 산업체 현실과 동떨어져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규 전문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 관련 국가기술자격(예 1인당 1개 종목씩을 학교장 책임하에)을 부여하거나, 국가기술자격 검정과 전문교과 영역이 통합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실업계 고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이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적고, 산업현장에서 신뢰도도 낮은 것이 전공 관련 취업률 저조의 원인으로서 지적되고 있다[9].

아. 실업계 고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충

실업계 고교의 내실화와 특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실업계 고교가 자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이끌어 궁극적으로 사회에 직업인으로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발전 단계나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더욱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산업발전 단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기능인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다만 학력 인플레 현상의 심화로 인해 고졸 학력을 요구하는 자리에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하향 취업, underemployment)하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자리가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조건적인 대학진학 풍조를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 실업계 고교생의 자기 이해증대와 취업의지개발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취업지도를 위하여 무엇보다 당사자인 실업계 고교

9 정태용(2001).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직업교육훈련 체제 구축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7차 HRD 정책포럼 주제발표문. 2001. 5. 25.

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찰하고 실업계 고교생들의 취업의욕을 높여야 하겠다.

실업계 고교생의 자기 이해 측면에서의 현황과 개선방향은 <표 Ⅴ-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Ⅴ-2> 실업계 고교생의 자기 이해측면에서의 현황과 개선방안

	현황과 문제	개선방안
자기이해 측면	· 학생들의 자기 이해 부족 · 심리검사를 연례행사로 실시하나 형식적임 · 심리검사 관련 예산 부족	· 각종 무료심리검사의 실시를 통한 학생들의 자기 이해 증진
진로의식과 취업의지 측면	· 학생들의 진로의식 부족에 따른 진로불명확 · 취업의지 부족	· 학생들의 진로의식 함양과 이를 통한 진로의 명확화 · 취업의지 배양(근로정신 함양)
부모의 인식 측면	· 부모의 지나친 욕구와 기대에 따른 무조건적인 진학 · 자녀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무관심	· 자녀의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 취업이 유리한 학생의 취업유도 · 자녀에 대한 관심과 취업지도 배려

가. 실업계 고교생의 자기이해 증대

실업계 고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실업계 고교생의 자기 이해를 위한 심리검사가 강조되어야 하겠다. 현재 커리어넷(http://careernet.krivet.re.kr)에서 고등학생에 대한 직업흥미검사를 실시하고,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직업흥미검사와 직업선호도 검사를 실시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에듀넷(http://www.edunet4u.net)에서 진로성숙도검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인터넷사이트에서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이 아닌 상태에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일반직업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에서는 이러한 무료심리검사를 온라인상에서 혹은 오프라인상에서 실시하여 학생들의 자기이해 기회를 증대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심리검사가 한번의 행사로 끝나고 충분한 해석과 상담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심리검사 못지 않게 중요한 상담과 해석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에서는 상담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원을 중심으로 검사결과를 해석하는 기법을 연수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과정 자율학교와 진로정치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에 대한 심리검사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이 형태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 한 사례로 청주기계공업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을 대상으로 3-5월중에 자기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태도, 자질, 행동특성, 윤리 의식을 생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성, 능력, 취미 탐색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2학년을 대상으로는 자기자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적성, 흥미 등을 알아보고 진로 선택 판단자료의 구안을 적용하고 있다. 해남공고에서도 홈페이지에 직업흥미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나. 학생들의 진로의식함양과 취업의지 개발

실업계 고교생들은 진로의식을 함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많은 실업계 고교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10]. 설령 취업을 전제로 하여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였다 하더라도 입학 이후 대학진학과 취업에 대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취업의지가 약해지고 진학을 어느 정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업계 고교생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도 아직은 상당수 있는데(30%

10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여 취업을 하면서도 야간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진학과 취업을 병행하기가 힘드는데, 그것은 기업체에서의 퇴근시간을 야간대학의 수업시작시간에 맞추기가 힘들고 기업에서는 2 3교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준이며 실제로 50%가량이 취업을 함) 이들 학생이 취업을 이왕에 하려면 확고한 취업의지와 직업정신을 가져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직업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취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를 하여야 한다.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업계 고교생들이 취업에 대한 의지(willingness to work)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올바른 직업윤리(work ethic)가 필요함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다. 부모교육 강화

자녀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대학진학을 강요하는 부모의 인식을 바꾸도록 하고 자녀의 진로에 대한 바람직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자녀의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 취업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녀에 대하여 취업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도록 한다. 자녀의 소질과 적성이 대학진학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는 부모들이 진학을 강요하지 말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이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을 찾아 부각시키도록 노력하면서 자녀의 취업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부모를 유도하여야 한다.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에 중요한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 방법으로 첫째, 진로교육자료를 가정에 보내어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둘째, 학부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나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에 반영하고, 셋째, 학부모들을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몇몇 학교에서 실시하여 효과를 보고있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 대상 컴퓨터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프로그램 측면

실업계 고교의 취업을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여건조성이 이루어지고, 학생

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증대와 취업의지를 개발한 다음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겠다.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 개선을 위하여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표 Ⅴ-3>과 같다.

<표 Ⅴ-3>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 관련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안

	현황과 문제	개선방안
자신감 측면	· 학생들의 자신감 부족 · 비뚤어진 인성	· 인성교육 강화
취업지도 프로그램 측면	· 종합적이지 않음 · 양적으로 부족	· 종합적인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여 보급
	· 내용이 진부함	· 최신의 재미있는 체험중심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
	· 직업기초능력을 양성하지 못함	· 종합기초능력을 기르는 프로그램 개발
	· 활용하기에 어려움 있음	· 활용하기 편리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취업지도 할애 시간 부족	· 독립교과나 자유재량 활동 시간에 활용
	· CD-ROM과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음	·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졸업생 활용 프로그램이 미약함	· 졸업생과의 만남 및 특강 기회부여
	· 진학상담과 취업상담 구분 안됨	· 취업상담 강화
추수지도	· 졸업생에 대한 추수지도 및 지속적인 관리 미흡	· 졸업생 대상 취업정보 제공 및 추수지도

가. 인성지도 프로그램 운영강화

실업계 고교에서는 인성보충 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실업계 고교생들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취업 후의 직장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Ⅴ-4>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실업계 고교 졸업생을 채용할 때 중요시하는 기준을 보면, 현장실습 경험 여부(6.3%), 자

<표 Ⅴ-4> 인사담당자들이 실업계 고교 졸업생 채용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백 분 율
학교성적	3	3.1
자격증 소지 여부	7	7.3
현장실습 경험 여부	6	6.3
성실성 및 태도	80	83.3
계	96	100.0

자료 : 이정표 외(1999),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연구, 기본연구 99-16, p.134.

격증 소지 여부(7.3%), 학교성적(3.1%)에 비하여 성실성 및 태도가 83.3%로 다른 항목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지도에 있어서 직업윤리 및 인성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업계 고교에서는 학생들의 인성면에서의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공교과 학습 못지 않게 학생의 인성면에서의 문제를 치료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각시도교육과학연구원 등에서 각종 인성지도 프로그램과 인성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실업계 고교에 다니고 있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하고 통찰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한다.

실업계 고교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어쩔 수 없이 입학하였다는 것과 사회저변의 부정적 인식의 고착은 실업계 학생들의 정체성 혼란과 열등감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울산서여상과 같이 명상의 시간, 집단상담, 자신감회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으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여 건전한 생활태도를 기르고 인격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여상에서는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고, 학교에서 인성인증제를 실시하고 예절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나. 다양한 취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1) 진로탐색 과정 운영

진로탐색이란 실제로 진로의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특성과 욕구를 직업세계의 특성과 취업조건에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대안과 최적안을 선택하는 개념이다.

실업계 고교생들이 졸업 후 택할 수 있는 진로는 크게 전공분야 취업, 비전공 분야 취업, 진학, 자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졸업 후 진학, 취업, 자영 등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명확히, 그리고 빨리 결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결정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원하는 분야의 직업과 직장에 관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개발 운영되고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크게 진로 및 직업탐색,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진로의사결정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한 빨리 실업계 고교생들이 희망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멀티미디어는 음성, 그래픽, 그리고 동영상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합하여 쓸 수 있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매체로서의 호기심 유발, 자기 주도적 학습, 상호작용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 진로지도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컴퓨터를 활용한 진로지도 프로그램(Computerized Career Guidance System)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멀티미디어 매체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효과도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실업계 고교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시설을 이용하여 교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취업지도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취업에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강조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ICT교육을 통하여 고

등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11].

이 방안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청주기계공고에서는 2001년 교육과정 자율학교 운영의 목표 중 하나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태도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진로적성에 알맞은 잠정적인 진로목표를 수립하여 직업과 진로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및 태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내의 다양한 공·사립 기관의 취업정보망, 진학 정보망 등 진로지도에 관련된 정보망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프로그램화된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학생 상담자료 및 진로자료 D/B를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실행함에 있어 학생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여 배정하고 전공 코스 희망시 개인별 적성, 소질 및 흥미에 따라 희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하고자 하였다.

다. 취업지도를 독립교과로 운영

전문적인 진로담당 교원이 확보되고, 또한 교원들이 취업지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취업지도로서 만족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서 진로교육을 독립교과로 설정하고 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도록 시간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직업관이나 직업윤리 등의 인성지도 및 취업과 관련한 자아탐색 등이 체계적인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직업선택의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도록 한다. 그리고 장래 자신이 선택할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정규교육과정에서 취업지도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2002년부터 실시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11 이영대(2001). ICT를 이용한 진로교육 방안. 서울시 교육연수원 강의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특기적성개발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특별활동 운영의 활성화로 진로와 직업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탐색 설계하도록 한다.

라. 직업기초능력 개발 교육강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시 가장 중요한 기준에 있어서 <표 Ⅴ-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업체는 직업기초능력이 53.5%로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원들 역시 가장 높은 비율로 44.3%가 직업기초능력이 취업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에 있어서 직업기초능력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생활하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과 기능을 직업기초능력이라고 볼 때, 취업상태의 장기적인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의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진다.

<표 Ⅴ-5> 실업계 고교 계열별 졸업생의 취업시 가장 중요한 기준(교원)

(단위 : 명, %)

	기업체	교원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기타	계
학교성적	3(2.0)	3(2.2)	11(9.7)	0(0.0)	3(12.0)	17(5.8)
자격	12(12.1)	6(4.4)	12(10.6)	3(17.6)	7(28.0)	28(9.6)
인성	31(31.3)	71(52.2)	33(29.2)	6(35.3)	3(12.0)	113(38.8)
직업기초능력	53(53.5)	54(39.7)	55(48.7)	8(47.1)	12(48.0)	129(44.3)
기타	1(1.0)	1(1.5)	2(1.8)	0(0.0)	0(0.0)	4(1.4)
계	99(100.0)	136(100.0)	113(100.0)	17(100.0)	25(100.0)	291(100.0)

자료 : 이동임, 직업능력인증제 운영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00-21. p.28.

같은 직업 내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불가피하므로 어떠한 기술변화에도 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이 중요시되며 이와 함께 세계화에 대비하는 직업능력의 개발이 요구된다. 직종별로 고도의 전문지식도 필요하지만 컴퓨터의 능숙한 조작,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 세계문화의 이해에 대한 능력개발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청주기계공고에서는 직업기초능력으로서 의사소통 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화 능력, 기술능력 등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직업기초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마. 진학반과 취업반의 이원화 운영은 통합형 고교 시범적용 후 검토

실업계 고등학교는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기능인력 양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일부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취업에 중심을 둔 단일화된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인력 양성측면과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요구에서 나타난 고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 기회박탈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므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기본방향을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평생교육 체제하에서 직업 입문단계의 직업 준비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 설정하고, 보통교육과 기초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필요에 따라 산업현장에 근무하면서 직업 고등교육을 이수한다든지 또는 곧바로 진학하여 보다 심화된 전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진학과정과 취업과정의 2원화 운영과제는 전체 29개 과제 중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적은 것으로서 그만큼 논란이 있다. 더구나 현재 실업계 고교에서 진학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고 현재 통합형 학교가 시범 적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바. 취업상담 강화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상담은 진로상담부에서 교육관계 등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실업계 고교에서 필요한 것은 취업상담이다. 또 각종 적성검사 등이 진로상담부에서 조사된다 하여도 취업지도에 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업계 고교에서는 취업상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진로상담부의 교원들이 담당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자면 진로상담부와 실과부를 합하여 취업상담, 진로상담, 진학상담, 문제아 상담 등을 동시에 실시할 여건이 되어야 하겠다.

사. 졸업생을 활용한 취업지도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졸업생과의 정기적인 만남 확대, 졸업한 선배의 성공사례발굴, 선배회사에서의 현장실습이나 1일 체험의 날 행사 개최, 졸업생이 바라는 학교교육 등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학교와 졸업생이 더욱 밀접하게 되고 나아가 졸업생들이 학교에 대하여 후배들의 취업추천의뢰를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졸업생과 주기적인 만남을 가짐으로써 취업 성공사례를 알리고, 재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취업 후의 적응에 대한 준비를 도모할 수 있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과의 주기적인 만남, 졸업생의 성공사례 안내, 성공한 졸업생 등을 초청한 특강 확대 등을 통하여 실업계 고교 재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선배들의 취업 준비 경험담, 면접시 유의사항, 근무 중 체험담, 직장 예절의 중요성, 예비 직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 등에 대해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특정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는 동창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으로써 취업지도 및 취업기회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졸업생과 선배 초청행사, 동문 초청행사를 개최하고 동창회 활동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청주기계공고에서는 졸업동문의 업체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직업의식의 함양 및 진로지도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입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 욕구를 극대화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도하고 있다.

아. 졸업생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및 추수지도

진로지도는 실업계 고교 졸업시기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진로 인식 및 탐색과 관련한 작업이 시작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진로결정 및 그에 대한 추수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로지도의 맥락에서 취업지도 역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입학초기부터 졸업 후의 추수지도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추수지도를 통해 지속성 있는 졸업생 관리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취업정보 및 지침을 얻을 수 있다.

현재는 재학생을 위주로 한 취업지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졸업생들 역시 취업한 직장에서의 업무 등에 있어서의 재교육이나 취업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시에 추수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졸업생들도 취업에 있어서 모교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졸업생들 사이에서도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즉, 졸업생들의 직장생활을 장기화하도록 지도 관리하는 것도 취업지도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재학생의 특기, 적성 및 흥미 검사 결과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졸업 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기존의 졸업생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수지도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모교를 통해 취업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산학협력 측면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 개선을 위하여 산학협동 측면에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표 Ⅴ-6>과 같다.

<표 Ⅴ-6>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 개선을 위한 산학협동 측면의 현황과 개선방안

	현황과 문제	개선방안
교육적 측면	· 산업현장에서는 현장 실습에 대한 체계와 지도력이 없는 편이며, 단지 근로자로만 생각하고 있음	· 교육적이고 실질적인 성격 강화
안전사고	· 안전사고의 위험 노출	·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강조
산학협력강화	· 학교와 회사와의 연계 미흡	· 학교와 회사와의 연계 강화
법제도	· 현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	· 현장실습 의무제도 개선

가. 현장실습 개선

현장실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가 설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함과 자기의 적성 소질을 사전에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실시되는 모든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긴밀한 협조와 상호보완 관계에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졸업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전경험 없이 직업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도중에 직업내용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 하여 이리저리 직장을 옮기는 경우를 흔히 보는데, 실업계 고교교육을 통하여 직업 및 진로 교육을 위한 최종적인 확인 단계의 수행과정으로 졸업 전에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직업활동 업무내용을 실제 실습을 통하여 확인해 보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후회 없는 직업선택이 될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현장실습은 첫째, 학교 현장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실천함으로써 전공분야의 이론과 실기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현장에서 전공분야의 다양한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졸업 후 전공분야 취업을 위한 올바른 직업관의 함양과 자기에게 맞는 직무 능력을 배양한다. 셋째, 현장실무 경험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올바른 직업관과 진로선택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계의 최근 동향과 장·단기 인력수요에 대한 정보를 산업체를 통하여 제공받고 교과과정의 결정이나 학과개편 등에 관하여 지역사회 산업 및 노동시장과 관련된 원활한 정보제공 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체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취업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기업들이 학생들의 안전실습을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각급 학교와 기업체에서 들도록 하여 학생의 안전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습을 목적으로 실제상황에서 경험하는 교육방법으로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과 특성상 산업체 견학이 효과적일 경우에는 현장실습보다는 산학협력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서 진학을 하려는 학생에 대하여서도 현장실습이외의 별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학교와 산업체의 협력강조

학생들의 취업증대를 위하여 실업계 학교교사들은 산업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 실과교사가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산업체와 산학협동 협의회를 기업체의 대표와 교사로 구성, 조직 운영하여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에 관하여 공동협의한다. 셋째, 산학협동과 산학 결연을 위한 협력업체 확대 및 산학협동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넷째, 산업체에 대하여 설문조사(기업체 기초설문조사 실시)를 실시한다. 다섯째, 기업체에 대하여 전화상담과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기업체의 협조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를 타파하고 산업체의 산

학협동 참가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시도)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지원이 이들 업체에 지원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산업체 인력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학교에 초청하여 특강을 하거나 산학겸임교사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5. 취업정보 제공 측면

취업정보 제공과 관련 현황과 개선방안은 <표Ⅴ-7>과 같다. 취업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지원시스템, 학교조직, 정보, 홈페이지와 취업망의 4가지 측면에서 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표 Ⅴ-7>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정보 관련 현황과 개선방안

	현황과 문제	개선방안
지원시스템	· 각급 학교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됨	· 국가 및 지역단위 취업정보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한 일선학교 지원강화
학교조직	· 진로상담실과 취업업무, 진학업무가 별개로 움직임	· 학교단위 진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정보	· 취업관련 정보, 예산의 부족	· 진로정보센터의 예산 확충 및 홍보
홈페이지와 취업망	· 홈페이지의 50% 가량에 취업관련 내용 포함 · 취업관련 탑재내용이 단편적임	· 홈페이지의 취업코너 설치 및 운영 · 취업망 형성

가.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 실업계 고교생을 위한 취업정보센터운영을 통한 일선학교 지원강화

국가 및 지역 단위 취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각 부처의 직업진로정보에 관한 정책과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업무, 직업진로 정보의 생성·수집·가공·분배의 업무, 각 부처 산하기관의 진로정보에 관한 기초자료와 프로그램의 제공과

전문 인력의 양성과 연수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시·도 교육청 단위 “지역취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중앙 단위 “국가취업정보센터”에서 생성·개발·수집하여 전산화한 각종 진로정보 자료들을 공유하여 단위 학교에 보급하거나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정보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나. 학교단위 진로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현재 실업계 고교의 학생지도 업무는 학생부, 진로상담부, 실과부(취업계), 3학년부로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도 인성지도, 문제학생지도, 진학지도, 및 취업지도이다. 현재 진로상담부에서 실시하는 검사가 취업계에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업계 고교에 진로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진학, 진로, 심리검사, 상담 업무 등이 한 부서 내에서 작동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관련 연간예산 평균액이 매우 적은 편이며, 많은 실업계 고교에서 진로정보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점으로 미루어 실업계 고교에 취업정보실이 설치되어 있을지라도 취업관련 자료를 비치하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예상할 수 있다. 실업계 고교에서 학생들에게 유용한 취업관련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서 인식되도록 활발한 움직임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로정보센터 운영예산의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에 관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보유하도록 진로정보센터의 취업정보 확충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진로정보센터에는 취업지도에 관한 정보자료뿐만 아니라 각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지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다양한 취업정보 자료를 확보하거나 지역별 학교간에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의 취업선택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진로정보센터의 소장자료 유형으로는 일반 단행도서, 각종 진로 및 직업관련 보고서, 영상자료(Video Tape), CD-ROM 타이틀, 연속간행물 등이 있으며, 이들 자료들을 내방하는 학생들이 직접 열람하여 필요로 하는 부분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진학, 취업, 자격증, 유망직종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도서를 구입하여야 하며, 내방자들의 대상에 따라 진로지도, 진학, 직업관련 자료를 검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교육 및 노동기관에서 개발하여 보급된 각종 CD-ROM 타이틀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실업계 고교 내에 진로정보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상담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정보센터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정보 검색을 위한 컴퓨터 시설을 보강하고 취업관련 자료를 비치시켜 놓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서 동래원예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상담부 주관 하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실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학교단위 진로정보센터 운영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제공하여야 한다. 진로정보센터(진로정보자료실, 진로정치실)에는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 책자, VTR 테이프, 간행물, 잡지, 취업안내책자, 게시판, 신문스크랩북의 정보자료를 갖추게 한다. 여건이 되면 비밀(심층)상담실도 운영한다. 또한 진로정보센터는 연중상담이 가능하게 하며 필요하면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다. 각종 취업정보의 제공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아 자아 탐색을 하여 취업선택을 위한 자기이해능력과 취업가능능력 향상시켜야 하겠다. 이제까지 일선학교에서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 적이 없는데 가능한 취업정보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겠다. 가능한 취업정보의 내

용의 예를 들면 우리학교 100대기업, 인간관계, 직장예절 및 직업윤리 등이며 진로노트, 진로가이드북, 진로신문, 진로지도 영상자료, 진로관련 판넬로 제작할 수 있으며 취업박람회를 열어 제공할 수 도 있다.

라. 홈페이지의 취업코너 설치 및 운영

실업계 고교에서도 홈페이지에 취업코너를 운영함으로써 취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실업계 고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취업지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취업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취업정보를 구축함으로써 실업계 고교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진로탐색이 가능해져 진로선택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실업계 고교 홈페이지에 취업코너를 신설함과 동시에 포함될 수 잇는 사항으로서는 재학중 취득가능한 자격증, 졸업후 취업가능한 기업체정보, 사이버상담 등이다. 담임교사와 부담임 교사가 항상 온라인상태에서 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고 전문상담 교사에 의한 상담도 가능하여 진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 홈페이지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공익근무요원의 파견이나 유급 관리요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홈페이지에 대한 기자재 확보가 필요하다.

졸업생 취업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탑재하여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졸업생 진출(현장 실습처 포함) 관련 산업체 현장의 실무영상자료를 탑재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졸업생에 대한 진로정보제공 및 상담으로 졸업생추수지도가 활성화되어 스스로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한다. 졸업생 추수지도 목적으로 구축운영하며 동문홈페이지와 연결한다.

인터넷 동창회 게시판을 이용하여 취업지도를 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해당 실업계 고교의 한 부문에 동창회의 홈페이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동창회의 홈페이지 안에 각 분야별로 취업한 졸업생의 사례를 다루도록 한다. 동창회

원 중 후배 재학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인광고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졸업생들 가운데서도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 광고가 가능하다. 취업을 원하는 졸업생들이나 인력을 원하는 졸업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졸업생들로 조직되어 있는 인터넷 모임(예 : 다음 카페, 다모임) 등을 활용한다. 특정과나 고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모임에서는 같은 분야로 나간 졸업생들의 정보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임을 이용하여 후배 졸업생들의 취업지도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진출한 동창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여 놓으면 현재 실업계 각급 학교에서 현장 실습할 기관을 확보하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들 졸업생이 근무하는 기관으로 현장실습을 가면 보다 원활한 현장실습이 가능하리라 보여진다.

장기적으로는 홈페이지가 취업지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과 같이 그 소속 학생들을 위한 취업지도 네트워크로 발전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마.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실업계 고등학교의 원활한 취업지도를 위하여 각종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졸업생의 취업실태와 진로상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취업정보 및 추수지도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졸업생들이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나 졸업생의 진로상황 파악을 함으로써 연속적이며 성공적인 취업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동문회 홈페이지와 연계하여야 한다. 둘째, 재학생의 각종 학교활동(성적, 인성, 적성, 흥미, 학교활동, 희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필요시 수시로 열람 및 활용이 가능하여야 하겠다. 셋째, 재학중에 취득 가능한 자격이나 졸업후 취업 가능한 직종에 대하여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졸업생데이터베이스의 자료수집이 어렵고 개인정보유출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6. 교원 측면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증대를 위하여 교원측면에서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표 Ⅴ-8>과 같다. 즉 업무경감, 전문교원 확보, 교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연수 강화의 측면에서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표 Ⅴ-8> 교원측면의 현황과 개선방안

구 분	현황과 문제	개선방안
업무경감	· 취업지도 담당자의 업무 부담 심함	· 취업지도 업무 이외의 업무경감
전문교원 확보	· 교원의 잦은 이동(4년에 1번꼴)에 따른 전문성 부족	· 전문지식과 자질을 가진 전문취업상담교원 확보 · 진로상담 교원과 취업상담 전담교원 분리
교원인식전환을 위한 연수	· 교원들은 형식적인 업무중의 하나로서 취업지도를 인식 · 행사위주의 취업지도로 편중	·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취업지도를 촉진 · 취업에 관련한 태도 및 가치관을 제대로 갖추고 있도록 교원 연수 실시

가. 취업지도 담당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강화

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취업관련 정보를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가 취업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취업지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상담에 있어 진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실업계 고교에서는 취업지도가 가장 구체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취업지도가 단순히 일시적이고 의례적인 취업알선 수준에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이 취업에 관련한 태도 및 가치관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취업지도를 실시하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관련 이론 및 실제에 대한 지식을 보강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상황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취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격연수과정 내에 진로교육 및 취업지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일선 교원들에게 취업지도에 대한 안목과 전문성 신장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실제 적용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향후 전문상담교원들이 소속학교의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으로 진로를 계획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즉, 취업지도에 관련한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실제 수행능력을 함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단위 학교 진로전문 상담교원과 교육행정기관 관계관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취업지도 및 상담 관련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력자원 Pool제를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일반보통교과와 직업전문교과의 통합 수업운영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교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산업체 현장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보통 교원들도 학교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본 안목과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산업체 견학 등의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취업지도가 단순히 일시적이고 의례적인 취업알선 수준에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이 취업에 관련한 올바른 태도 및 가치관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취업지도를 실시하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관련 이론 및 실제에 대한 지식을 보강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상황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취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래원예고등학교에서는 진로상담기법의 개발 및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표준화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의 충실과 관련한 방안으로서 전교원의 진로·상담 교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를 위한 상담활동이나 어떤 사업을 하려하여도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첫째, 진로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할 기회를 확대한다. 둘째, 교사용 취업가이드북을 제작한다. 셋째, 교사간의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연수를 실시한다. 넷째, 교과지도를 통한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교과분석을 통한 ICT 수업안의 적극적인 개발 및 활용한다. 진로교육과 연계한 수업지도안 모

형개발, 교수학습모형도 개발한다. 다섯째, 취업상담기법이나 적성검사 활용에 관하여 연수한다. 여섯째, 교사의 자비부담 자율연수나 전문상담과정연수(대학원과정)를 지원한다. 일곱째, 가능하면 전체 교사에 대하여 취업지도나 상담에 대하여 연수한다. 이를 위하여 전교사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온라인 상에서 원하는 교사와 상담을 할 수 있게 한다. 또 전체 교원에게 일정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책임 상담제를 운영(군상여상과 같이)하도록 한다. 여덟째, 취업상담에서 가장 주축은 여전히 담임인 만큼 담임교사 중심으로 취업이나 진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취업지도담당 교원수 증대

학교에서 취업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행정 체제상의 지원 이외에 취업지도를 실제 현장에 실행하는 진로전문 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즉 취업지도에 있어 진로전담 교원보다 담임교원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취업에 대한 풍부한 정보제공뿐 아니라 체계적인 취업지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로전담 교원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취업 및 진학, 그들이 처한 진로와 생활상담을 전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로상담 전담 교원수를 확대하여 학기별, 코스별로 개인별 취업지도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상담교원의 직능을 세분화하여 진로상담 교원과 취업상담 전담교원을 분리하는 것도 효과가 클 것이라 보여진다. 또 현재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진로전담교원을 전국적으로 우선 실업계 고교에서라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취업에 앞서서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에 관련한 충분한 인식과 탐색, 그리고 준비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진 후에야 취업지도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단순히 취업여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각자에게 맞는 취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전문지식과 자질을 갖춘 진로전문 상담교원을 확보함으로써 진로교육체제를 확립하고, 학생의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준비 및 직

업교육을 통한 평생경력 개발에 대한 조기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며, 학교교육과 직업세계로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실업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생활지도나 진로지도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실업계 고등학교들에서는 진로지도나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교원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도가 미흡하며,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교원들은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지도가 단순히 취업 알선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 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한 학생들 스스로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지도가 요구된다.

다. 실업계 교원의 취업지도에 대한 인식 전환

교원들은 실업계 학교에서 형식적인 업무중의 하나로 취업지도를 인식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취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업무임을 인식하도록 취업지도에 관한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업계 고교 교원들에 대하여 취업지도의 중요성과 기본원리에 대하여 자체연수를 실시하거나 외부로부터 강사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 시·도교육청에서 취업지도 및 상담전문인력의 관리체제 수립

실업계 고교에는 진로 및 취업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체계적으로 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담당교원 교육이나 취업지도 프로그램 보급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에서 시·도 교육청에서의 진로지도 및 상담 전문인력 관리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업계 고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지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진로탐색 및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이러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의 방안이 아닌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관리하는 진로지도 및 상담인력 관리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청 단위에 진로지도 전담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정하여 초등 및 중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 취업지도 담당교원의 업무과다 해소

현실적으로 취업지도 담당교원의 경우 취업지도 이외에도 담당교과[12] 및 기타 행정적인 잡무 등을 포함하는 과다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취업지도에 관련한 질적인 지도를 고안하고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 과다가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취업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취업지도 이외의 과다한 업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업무경감의 한 방법으로 공익요원이나 보조요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다.

바. 학교장의 취업지도에 대한 관심 증대

일선학교의 경영자인 교장·교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자격연수 과정 내에 취업지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취업지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며, 나아가 학교경영 및 학교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시 취업지도를 활성화하도록 도모하도록 하는 것도 취업지도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

12 해남공고의 경우 2001년에 주당 평균 17.8시간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음.

7. 각 기관별 추진과제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관련기관이 할 일을 <Ⅴ-9>로 정리하여 보았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총괄을 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자격소유자 우대책 강구, 고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및 실업계 고교 출신 직업인에 대한 입영연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취업지도 전문인력관리(취업전문교원 확보 및 연수), 예산증대(교원수당 인상 등), 지역단위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각시도의 교육과학연구원은 취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실업계 고교생 대상 인성지도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을 담당한다.

실업계 고교는 학교 진로정보센터 설치 운영 및 정보 확충, 학교 홈페이지에 취업정보 코너 신설, 취업지도 프로그램 운영(체험중심 프로그램), 취업담당교원 업무경감 및 연수, 졸업생 관련자료의 확보 및 활용을 강화한다.

시·도청에서는 현장실습업체에 대한 지원, 실업계 고교생을 대기업에서 일정비율 채용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직업정보 제공, 산업기능요원 업체 소개, 실업계 고교생의 구직 등록을 지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내 기업체 정보제공, 산학협동 및 산업체 간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경영을 지도한다. 더불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은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먼저 취업을 하여 현장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를 인식한 학생들에게 계속 공부할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겠다.

<표 Ⅴ-9> 각 기관별 취업지도 관련 담당과제

	과 제	비 고
교육 인적자원부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전반	중앙
노동부	자격소유자에 대한 우대책 강구 고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중앙
국방부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및 실업계 고교 출신 근로자 입영연기	중앙
시도교육청	취업지도 전문인력관리(취업전문교원 확보 및 연수)	지방
	예산증대(교원수당 인상 등)	지방
	지역단위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	지방
교육과학 연구원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실업계 고교생 인성지도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방
실업계 고교	학교 진로정보센터 설치 운영 및 정보 확충	학교
	학교 홈페이지에 취업정보 코너 신설	학교
	취업지도 프로그램 운영(체험중심 프로그램)	학교
	취업 담당교원 업무경감 및 연수	학교
	졸업생 관련자료 확보 및 활용	학교
시·도청	현장실습업체에 대한 지원	지방
	실업계 고교생의 대기업 일정비율 채용 장려	지방
상급교육기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실업계 고교 출신 재직자에 대한 계속 교육기회 제공 확대	
지방 노동청 및 인력은행 (고용 안정 센터)	각종 직업정보 제공 산업기능 요원 업체 소개 실업계 고교생의 구직 등록 지원	지방
대한 상공회의소	지역내 기업체 정보제공 산학협동 및 산업체 간 협력 유도	중앙·지방
중소기업진흥 공단	중소기업 정보 제공 중소기업 경영 지도	중앙·지방

Ⅵ.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업계 고교생들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취업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은 취업지도 관련 연구동향 파악,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의 현황과 문제점 정리,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 파악 및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 수립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토대로 시·도교육청 관계자, 실업계 고교 교원 등의 전문가협의회 및 실업계 고교 교직원 및 취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작위로 표집한 전국 120개 실업계 고교의 교원, 졸업생, 학부모 등을 포함한 총 84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월말까지 회수된 93개 학교의 응답자와 전문가 조사자료를 합쳐서 총 668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의 현황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 가운데 농업고, 상업고, 수산·해양고, 종합고는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고와 공업고는 증가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중 진학자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취업자는 증가추세에서 1990년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진학률은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농업계, 상업계, 공업계, 수산·해운계, 가사계 등 모든 유형의 실업계 고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졸업생들의 2001년도 취업률은 졸업생 중 54.4%인데 성별로는 남학생의 취업률이 47.5%로 여학생(61.9%)에 비하여 낮았다. 취업희망자 중 94.8%가 취업을 하였는데 계열에 따른 취업희망자에 대한 취업률은 가사가 98%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고 수·해운업(96.2%),

공업(96.4%), 상업(94.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관련 현황을 보면 먼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는 정도가 매우 낮으며 취업에 대한 욕구도 높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강요에 의하여 취업보다는 진학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실업계 고교생들이 중학교까지의 계속된 실패경험에 의하여 자신감이 부족하고 인성적인 면에서 지도가 필요하나 그렇지 못하며, 다양하고 효과적인 취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현장실습에 대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가 산업체에서의 적응력 신장, 취업정보 획득, 진로탐색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전체 학생의 일부만이 현장실습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나타나므로 현장실습에 있어서 개선이 될 여지가 있음을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취업상담실의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며 취업지도 관련 예산액이 매우 낮으며, 취업에 관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비율이 낮았다. 취업지도관련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실업계 고교에는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종합적 자료가 부족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진부하다고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지도를 위한 교원 측면을 보면, 전담 교원수가 인문계 고교나 중학교에 비하여 많은 편이었지만 실업계 고교 교원들은 취업지도 업무가 지원이 많이 되는 영역이 아닌 업무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과 문제에 따라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의 개선 방안을 크게 사회적인 조건, 취업지도의 네트워크 설치 및 운영 측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측면과 교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서 ①국가공무원 및 법인, 산업체 등에 특별채용 제도화, ②실업계 고교 졸업생에게 불리한 관행이나 법제도 개선, ③실업계 고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④산업기능제도 개선과 병역연기, ⑤선 취업 후 진학 여건 조성, ⑥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우대책 강구, ⑦고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⑧실업계 고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충과 같은 정부 및 사회의 여건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다.

실업계 고교생의 조기 진로결정과 취업의지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①자신의 적성과 흥미 측정 기회 제공, ②학생의 근로의욕 함양, ③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 강요 억제, ④취업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대학진학 유도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①인성지도 프로그램 운영, ②다양한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③진로탐색 과정 운영, ④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⑤체험중심 취업교육 활성화, ⑥취업지도를 독립교과로 운영, ⑦직업기초능력 개발 교육강화, ⑧통합형 고교 시범적용 후 진학반과 취업반의 이원화 운영 검토, ⑨졸업생과의 만남 및 특강기회 부여, ⑩취업상담 강화, ⑪졸업생 추수지도 등이 필요하다.

현장실습개선을 위하여 ①교육적 성격 강화, ②실용적인 성격 강화, ③학교와 회사와의 연계 강화, ④현장실습 의무제도 개선을 제시한다.

취업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①국가 및 지역단위 취업정보센터의 기능 강화, ②학교단위 진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③진로정보센터의 예산 확충과 홍보, ④홈페이지의 취업코너 설치 및 운영, ⑤취업망 형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실업계 고교 교원측면에서는 ①취업지도 담당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강화, ②진로전담 교원수 확대, ③실업계 교원의 인식 전환, ④시·도교육청에서 취업지도 및 상담전문인력의 관리체제 수립, ⑤취업지도 담당교원의 업무과다 해소, ⑥학교장의 취업지도에 대한 관심증대가 필요하다.

2. 제언

현재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그 몇 가지를 들면 첫째, 고졸자 수준을 원하는 업체가 적으며, 둘째,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에 관심이 많으며, 셋째,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부족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우수인력을 공급하기 곤란하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는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 적성, 능력

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인으로서 올바른 윤리관을 확립하고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취업한 졸업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먼저 동창회조직을 활용하는 등 졸업생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며 이 과정에서 졸업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졸업생들과의 정기적인 협조관계를 맺도록 한다. 이메일을 통하여 졸업생들에게 학교소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졸업생 가운데 성공사례를 모아 교육에 활용하여야 하며 졸업생들을 재학생의 교육에 활용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졸업생들의 의견(예: 그 분야에 취업가능직종의 직무분석)을 조사하여 교육에 반영한다. 이렇게 졸업생들에게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중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한다(추수지도).

둘째,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를 실제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교사는 양적인 면에서 업무가 가중(해남공고의 경우 평균 17.8시간 수업)하므로 업무감소가 필요하다. 교사의 취업상담을 위한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상담분야 연수를 실시하여 전문상담화하고 실업계교사에 대한 취업지도일반연수를 신설 검토한다. 교사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원간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게 한다. 취업지도 전담교원을 확보하도록 여건을 마련하며(경북과 같이) 전담교사의 확보가 불가능하면 자원상담봉사자를 활용한다. 전교사를 상담교사화하며 교사가 일정 인원의 학생을 책임지고 상담하는 책임상담제와 담임교사의 주도적 역할을 유도한다.

셋째, 학생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일선 산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학협동체 구성을 위한 회사의 인식부족과 의지결여로 산학협동체결, 산학협동협의체구성, 자매결연산업체 발굴 등 매우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업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예 : 공문조치, 세금감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산학겸임교사가 되기를 기피하는 풍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산업체 인사의 초청강연이 효과적이므로

계속 추진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산업체의 학교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현장실습을 현장견학으로 유도하며 진학희망자에 대한 현장실습 개선대책도 마련하여야 하겠다.

넷째,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 대하여는 취업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기초기본학력이 부족하므로 영어·수학 등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인터넷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재학과 자신에 대하여 자아상실감 등을 갖고 있으므로 인성교육을 강조하거나 인성인증제 실시 등을 통하여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도 적을 뿐 아니라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진로결정능력도 없으므로 이 분야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취업의지도 키우고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진로결정능력을 키워야 하겠다.

다섯째,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와 관련하여 학부모와의 밀접한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이 자녀가 실업계 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취업보다는 무조건적인 진학을 원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자녀와의 의견일치도 되고 있지 않다. 실업계 고교에서는 학부모의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학부모와의 개별면담을 통하여 자녀의 적성과 흥미, 기타 여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취업이 유리한 학생에게는 취업을 권장하도록 유도하여야한다.

여섯째,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 진로지도, 취업지도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선 연구학교결과에서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취업지도, 생활지도, 진학지도를 합쳐서 운영하여 진로상담실에 이들 당사자들이 한 장소에 상주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비밀상담실을 두는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일곱째, 일선 학교에서는 활용가능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중앙단위나 도차원에서 이런 정보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하겠다. 즉 실업계 일선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취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인문계 고교와는 다른 실업계 학생에게 맞는 정보가 개발 보급되어야 하겠다. 또한 실업

계 고교생들의 취업과 관련한 심리검사도구도 개발 보급되어 일선학교에서 쉽게 활용이 되어야 하겠다.

여덟째,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취업지도 여건 마련이 다른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교의 홈페이지를 개발하되 취업지도 코너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의 취업코너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은 전교사의 이메일, 졸업생 한마디 코너, 구인구직, 취득가능한 자격증, 취업가능기업체, 과별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 등이다. 또한 졸업생에 대한 자료와 재학생의 각종 사항을 DB로 정리하면 체계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내전산망(인트라넷)을 형성하여 교사, 학생, 학급간의 네트웍을 형성하도록 한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취업코너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이용률이 낮고 전담요원이 없어 매우 힘들어 하므로 공익요원이나 보조인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아홉째,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취업지도를 정규교과 시간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하여 7차교육과정의 재량활동시간에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업계 고교용 자료를 만들고 최근 강조가 되고 있는 ICT를 활용한 취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열번째,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를 위하여 취업지도를 지원할 각종 정보와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거나 인터넷에 탑재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각시도교육과학연구원 등에서 취업지도용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기존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종합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에 실업계 고교 분야를 신설함으로써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에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강득구(2000). 실업계 고교 정책자료집. 경기도 의회 정책자료집.

강무섭 외(1999). 실업계 고등학교 종합대책 연구. 기본연구 99-3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종훈 외(1998).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곽형식(1998). 21세기 한국대학생을 위한 취업지도와 직업교육. 학문사.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0). 2000년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교육인적자원부(2000). 교육기본통계.

교육인적자원부(2001). 우리 나라 인적자원 현황.

김기홍 외(2000). 실업계 고교 입학생 감소 대응 및 진로정보 체제 구축방안 연구. 교육부.

김용수(1995).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상업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재원(2000). 취업과 진로. 법문사.

김충기(1998). 생활지도·상담·진로지도. 교육과학사.

김형만 외(1999).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산업체 수요에 관한 연구. 기본연구 99-3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수열 외(2000). 취업실무. 한국이공학사.

백성준 외(2000). 새로운 학교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기업 운영방안.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2000-28.

실업교육발전위원회(2001). 실업교육발전을 위한 방안모색. 2001.4.24. 전문가 토론회 발표자료.

영월공고(2000). 진로설계집.

이무근 외(1992).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산업현장 적응능력 평가를 통한 직업교육의 개선 방안. 교육부.

이용환(2000). 실업교육의 본질과 위기. 실업교육의 위기와 그 대책(2000년도

실업교육 관련 학회 및 교장회 공동학술대회 자료).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이정근(1988). 진로지도의 실제. 성원사.

이정표 외(1999).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방안 연구, 기본연구 99-16.

이종성 외(2000a). 서울특별시 실업계 고교 고교교육의 활성화 대책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이종성 외(2000b). 인천광역시 실업계 고등학교 진흥계획수립 연구보고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임천순 외(1993). 「실업계 고교 다양화 및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방안 연구 - 상업계 고교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장명희 외(1998).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율 운영 방안. 기본연구 98-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원섭 외(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Ⅰ) - 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 -. 기본연구 99-2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창원 외(1999).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산업체 근무현황에 대한 실태분석. 정책연구과제 99-8-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철영(1999). '직업정치'. 이종성외 편. 직업교육훈련대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철영 외(2000b).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교원대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화 외(1996). 공고 2·1체제 졸업생의 산업체 적응 실태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정해숙 외(1996). 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여성 직업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 '96 연구보고서 200-11. 한국여성개발원.

정해숙(1999). 공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여학생 직업교육 실태 분석. '99 연구보고서 220-15. 한국여성개발원.

조영수(1997).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 및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소기협중앙회(2001). 하반기 인력채용전망 조사결과.

중소기업청(2000). 산업기능요원 활용 병역특례 중소기업 실태조사.

진미석 외(1999). 실업계 여학생 진로·직업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과제 99-5-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 외(2000).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체제 구축방안 연구. 기본연구 00-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日本勞動研究機構(1998). 新規高卒勞動市場の變化と職業への移行の支援. 調査研究報告書 114.

日本勞動研究機構(1992). 高卒3年目のキャリアと意識. 調査研究報告書. 28.

文部省大臣 官房調査統計企劃課(1996). 學校敎育と卒業後の 進路に關する調査報告書.

David W. et. al(1978), *Exploring Career Decision Making*. McNight Publishing Company. Bloomington. Illinois,

European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1984). *Vocational training systems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Community*. 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 Training, Careers Resources for Teachers.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Canberra. Winefordner.

ABSTRACT

Study on Method of Effective Employment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Research-in-Charge : Young-Dae Lee

Announcing plans on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high schools in Feb. 2000,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OE) presented a new overall direction for vocational high school education of Korea. As a follow-up,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KRIVET) has been conducting researches in several areas to develop specific policies.

Though the employment education has been one of key areas of vocational high school education for decades, it is getting less attention recently due to several reasons. Since the financial bailout program of IMF in 1997, deteriorating economic conditions have made it difficult for the graduates of vocational high schools to find a job, and revised college admission system for 2002 has made less number of graduates of vocational high schools to seek for a job.

Nevertheless, as there are still many students who can not afford to enter a college due to economic reasons or who want to get a job

instead of entering a college, employment education is still an important area for vocational high schools.

This study intends to assess current conditions and identify issues regarding employment education of existing vocational high schools. It also seeks to develop improvement measures by conducting surveys on related people to analyze the needs.

Based on a literature research, the study has interviewed officers of MOE, officers of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members of professional council of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of vocational high schools, and vocational counselors. Also, a mail survey has been conducted by randomly selecting 120 vocational high schools across the nation. Survey forms have been sent out to a total of 840 teachers, graduates and parents of the selected schools, and 688 surveys returned by the end of Jun. have been analyzed for the study.

Current conditions and issues learned from the research regarding the employment educ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s are as follows:

Comparing 1990, the number of graduates of vocational high schools in 2000 is decreasing for agricultural high schools, commercial high schools, and fisheries and marine high schools, while that of business high schools and industrial high schools is increasing. The number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who enter colleges is gradually increasing, while the number of those who find jobs is sharply decreasing from 1990. Comparing 1995, the overall number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who find a job is decreasing while those who go to a college is increasing in 2000.

The trend is same for all types of vocational high schools - agricultural, commercial, industrial, fisheries and marine, and house-keeping high schools. In 2001, 57.7%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or 94.8% of those who want to find a job, have been employed. By school types, house-keeping high schools records the highest employment rate with 98%, followed by fisheries and marine, 96.2%, industrial, 96.4% and commercial vocational high schools with 94.5%.

Looking into employment educ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s in terms of building and operating a network for the employment education, most schools have an internet home page or are building one. However, not many schools have or are running a network for the employment education program.

Regarding an on-the-job training program, though both teachers and students say that it is required to improve adaptation to field, obtain vocational information and seek future career, only part of students reply that they are well adapting to the OJT program, indicating that the program needs improvement.

Overall, utilization of vocational information room is not active, average budget amount for employment educ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s is very low, and the budget to run the information room is not sufficient. Not many schools possess enough vocational data and information, while career information room and career counseling space are sufficient.

Regarding employment education programs, vocational high schools do

not have enough programs in terms of volume, lack comprehensive data, lack easy-to-use data, and have programs or contents that are old-fashioned.

Seeing the aspect of counseling teachers, the number of dedicated teachers is higher compared to that of academic middle or high schools, but teachers of vocational high schools perceive vocational counseling only as a responsibility to which not much support is provided.

Based on the above conditions and issues of the vocational counseling programs of vocational high schools, improvement plans are developed for several areas: improving social conditions; building and running a network for vocational counseling; developing and running vocational programs; and developing counseling teachers.

First, the following basic preconditions are required: ①provide the benefit of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positions to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by considering required military resources; ②develop a system to hire the graduates in government offices and designated industry service; ③provide workers in industrial an opportunity to learn at colleges to workers in designated industry service; ④develop plans to provide privileges to the holders of national technical licenses; ⑤strengthen link between high school education and license programs; ⑥revise conventions or laws that are disadvantageous to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⑦improve social perception on vocational high school education; ⑧increase financial support for vocational high schools.

Second,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and running of vocational counseling programs: ①strengthen vocational

counseling programs of vocational high schools, ②provide comprehensive data, ③use multimedia to develop and use vocational counseling programs, ④provide meet-the-graduates programs and special guests lecture programs, ⑤reinforce vocational counseling hours, ⑥activate experience-oriented vocational education, ⑦develop and run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⑧reinforce operation of programs to recognize one's talent areas and aptitude, ⑨strengthen career counseling for students, ⑩provide continued vocational counseling and programs to graduates, ⑪build a specialized counseling system, and ⑫develop and use programs to improve personal characters.

Third, the followings are required in relation with the building and running of a network for vocational counseling: ①strengthen vocational counseling programs by leveraging school home pages, ②build and run graduates database, ③build and run vocational information database, and ④improve the operation of OJT programs. Regarding the expansion and running of a vocational counseling room,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required: ①build a vocational information center at each school, ②activate the operation of existing vocational information rooms, ③increase budget for the operation of a vocational information room, ④expand vocational information to be used for a vocational information room, and ⑤strengthen PR to use the vocational information room. In addition to these there must be improvement in a vocational information system and strengthen of the function of national and regional vocational information centers.

Finally, the following efforts should be made regarding vocational counseling teachers: ①increase the number of dedicated counseling

teachers; ②strengthen systematic education for vocational counseling teachers; ③reinforce theory and practical knowledge for vocational counseling; ④change percep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on vocational counseling; ⑤achieve specialized vocational counseling; ⑥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al offices establish a system to manage vocational counseling and specialized counselors; ⑦secure specialized counseling teachers; and ⑧relieve vocational counseling teachers of heavy duties and responsibilities.

부록1.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지

<실업계 고교의 취업지도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01년도 연구과제로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 강화방안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문항에 관하여 선생님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를 위하여 다음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들 방안들이 실업계 고교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에 취업하는 데 효과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해당란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강 무 섭

1. 남학생의 경우 졸업생에 대한 병역혜택 부여를 하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2.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독립교과로 취업교육을 설정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3.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문적인 취업상담을 강화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4.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체험중심의 취업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5. 시·도교육청에서 취업지도 및 상담전문인력 관리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6.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진학과정과 취업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7.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직업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8.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과의 만남 및 초청특강지도가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9.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상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10.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문상담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11.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국가공무원 및 법인, 산업체 등에 특별 채용제도화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12.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13.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국가 기술자격을 소유한 자에 대한 우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14. 실업계 고등학생을 위한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15. 실업계 고등학교와 산업체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16. 실업계 고교교육과 자격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17.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게 불리한 관행이나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18. 실업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19.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교별 취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20.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사전에 심리검사를 통해 적성과 흥미 등의 개인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취업지도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21. 직업기초능력의 개발을 위한 교육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지도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22. 취업정보실의 종합적인 취업관련 정보 확충과 정보제공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지도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23. 전교원의 진로상담 교원화를 위한 연수강화가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지도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24. 직업윤리 등 인성보충지도 프로그램 강화가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25.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지도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26. 전국 단위 및 각 특별시·광역시나 도 단위에서 실업계 고등학생을 위한 취업정보 센터를 설치운영 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지도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27.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취업지도 강화가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지도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28.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지도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29. 중학교에서부터의 진로지도 강화를 통한 선행 진로탐색과정이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지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보통
( )(4) 약간 도움이 된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

* 선생님께서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취업지도 또는 취업지도를 함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_____

_____

일반현황(중등학교 교원의 경우)

* 선생님의 소속학교 유형은?( )

①공업고 ②상업고 ③농업고 ④수산해양고 ⑤가사실업고
⑥종합고 ( )( )( ) 계열
⑦실업고 ( )( )( ) 계열

* 해당부서? (실과부, 진로상담부,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동창회, 기타)

* 선생님의 소속학교의 위치는?( ) ①대도시 ②중소도시 ③읍·면 지역
* 선생님께서 소속하고 계신 학교의 학과수( )개, 학급수( )개, 학생수( )명
* 선생님의 교직경력은? ( ) 년
*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교과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보통교과 ②전문(실업) 교과
* 선생님께서 계신 학교의 설립주체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국립 ②공립 ③사립

일반현황(전문가의 경우)

*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유형은? ( )
  ①대학 ②전문대학 ③연구원/관련기관 ④교육행정기관
*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의 경력은? ( ) 년
* 성별은? ( ) ①남 ②여
*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의 지역은? ( ) ①대도시 ②중소도시 ③읍·면 지역

일반현황(졸업생의 경우)

*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유형은?
*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의 경력은? ( ) 년
* 성별은? ( ) ①남 ②여
*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의 지역은? ( ) ①대도시 ②중소도시 ③읍·면 지역

일반현황(학부모의 경우)

*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유형은?
*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의 경력은? ( ) 년
* 성별은? ( ) ①남 ②여
*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의 지역은? ( ) ①대도시 ②중소도시 ③읍·면 지역

부록2. 실업계 고교졸업생의 계열별 취업관련 사항

<부표 1> 실업계 고교졸업자의 취업율(2001년 2월 졸업생)

구 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졸업자	취업자	취업율	졸업자	취업자	취업율	졸업자	취업자	취업율
전체	136,445	57,585	42.2	133,948	73,383	54.8	270,393	130,968	48.4
농림계	6,467	2,569	39.7	2,943	1,387	47.1	9,410	3,956	42.0
공업계	94,653	42,740	45.1	13,745	7,262	52.8	108,398	50,002	46.1
상업계	23,788	10,493	44.1	99,572	63,159	63.4	123,360	73,652	59.7
수산 및 해양계	1,550	746	48.1	302	121	40.1	1,852	867	46.8
가사실업계	60	12	20.0	1,584	604	38.1	1,644	616	37.5
인문계	9,493	824	8.7	15,080	529	3.5	24,573	1,353	5.5
예능계	434	201	46.3	722	321	44.5	1,156	522	45.2
특수학급	22,868	12,060	52.7	22,298	15,921	71.4	45,166	27,981	62.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2001), 교육통계연보.

<부표 2> 전체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	빈도	%	빈도	%
산업별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어업	1,411	1.08	1,041	1.81	370	0.50
	광업	49	0.04	36	0.06	13	0.02
	제조업	62,894	48.02	32,518	56.47	30,376	41.39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5,092	3.89	4,123	7.16	969	1.32
	건설업	7,057	5.39	4,539	7.88	2,518	3.43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9,857	7.53	2,545	4.42	7,312	9.96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751	5.15	3,202	5.56	3,549	4.84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7,260	5.54	588	1.02	6,672	9.09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22,614	17.27	6,478	11.25	16,136	21.99
	기타	7,983	6.10	2,515	4.37	5,468	7.45
	전체	130,968	100.00	57,585	100.00	73,383	100.00
직업별	입법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	0.00	0	0.00	1	0.00
	전문가	589	0.45	256	0.44	333	0.45
	기술공, 준전문가	12,755	9.74	10,632	18.46	2,123	2.89
	사무직원	41,098	31.38	4,185	7.27	36,913	50.30
	서비스근로자, 판매근로자	21,679	16.55	6,746	11.71	14,933	20.35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1,364	1.04	985	1.71	379	0.52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30,573	23.34	21,231	36.87	9,342	12.73
	장치·기계 조작원, 조립원	12,500	9.54	8,535	14.82	3,965	5.40
	단순노무직 근로자	10,314	7.88	4,937	8.57	5,377	7.33
	군인	95	0.07	78	0.14	17	0.02
	전체	130,968	100.00	57,585	100.00	73,383	100.00
취업 방법별	학교추천	71,296	54.44	23,920	41.54	47,376	64.56
	채용시험	6,832	5.22	2,249	3.91	4,583	6.25
	친구·친지소개	16,619	12.69	6,839	11.88	9,780	13.33
	실습	27,913	21.31	20,340	35.32	7,573	10.32
	부모경영사업	2,655	2.03	1,523	2.64	1,132	1.54
	자영	694	0.53	441	0.77	253	0.34
	기타	4,959	3.79	2,273	3.95	2,686	3.66
	전체	130,968	100.00	57,585	100.00	73,383	100.00
전공 여부별	전공분야	99,496	75.97	45,532	79.07	53,964	73.54
	다른분야	31,472	24.03	12,053	20.93	19,419	26.46
	전체	130,968	100.00	57,585	100.00	73,383	100.00

<부표 3> 농림계열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	빈도	%	빈도	%
산업별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어업	774	19.57	666	25.92	108	7.79
	광업	1	0.03	0	0.00	1	0.07
	제조업	1,285	32.48	813	31.65	472	34.03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69	1.74	66	2.57	3	0.22
	건설업	200	5.06	170	6.62	30	2.16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367	9.28	178	6.93	189	13.63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38	3.49	114	4.44	24	1.73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68	1.72	21	0.82	47	3.39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694	17.54	348	13.55	346	24.95
	기타	360	9.10	193	7.51	167	12.04
	전체	3,956	100.00	2,569	100.00	1,387	100.00
직업별	입법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0	0.00	0	0.00	0	0.00
	전문가	14	0.35	5	0.19	9	0.65
	기술공, 준전문가	366	9.25	286	11.13	80	5.77
	사무직원	236	5.97	61	2.37	175	12.62
	서비스근로자, 판매근로자	881	22.27	445	17.32	436	31.43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687	17.37	595	23.16	92	6.63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581	14.69	422	16.43	159	11.46
	장치·기계 조작원, 조립원	309	7.81	237	9.23	72	5.19
	단순노무직 근로자	871	22.02	516	20.09	355	25.59
	군인	11	0.28	2	0.08	9	0.65
	전체	3,956	100.00	2,569	100.00	1,387	100.00
취업 방법별	학교추천	1,195	30.21	702	27.33	493	35.54
	채용시험	157	3.97	80	3.11	77	5.55
	친구·친지소개	921	23.28	592	23.04	329	23.72
	실습	950	24.01	650	25.30	300	21.63
	부모경영사업	188	4.75	134	5.22	54	3.89
	자영	212	5.36	199	7.75	13	0.94
	기타	333	8.42	212	8.25	121	8.72
	전체	3,956	100.00	2,569	100.00	1,387	100.00
전공 여부별	전공분야	1,889	47.75	1,372	53.41	517	37.27
	다른분야	2,067	52.25	1,197	46.59	870	62.73
	전체	3,956	100.00	2,569	100.00	1,387	100.00

<부표 4> 공업계열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	빈도	%	빈도	%
산업별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어업	104	0.21	93	0.22	11	0.15
	광업	31	0.06	31	0.07	0	0.00
	제조업	31,373	62.74	27,255	63.77	4,118	56.71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3,992	7.98	3,778	8.84	214	2.95
	건설업	4,205	8.41	3,959	9.26	246	3.39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967	1.93	617	1.44	350	4.82
	운수, 창고 및 통신업	2,569	5.14	2,217	5.19	352	4.85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415	0.83	122	0.29	293	4.03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4,576	9.15	3,270	7.65	1,306	17.98
	기타	1,770	3.54	1,398	3.27	372	5.12
	전체	50,002	100.00	42,740	100.00	7,262	100.00
직업별	입법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0	0.00	0	0.00	0	0.00
	전문가	271	0.54	199	0.47	72	0.99
	기술공, 준전문가	10,084	20.17	9,081	21.25	1,003	13.81
	사무직원	3,138	6.28	923	2.16	2,215	30.50
	서비스근로자, 판매근로자	3,707	7.41	2,806	6.57	901	12.41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134	0.27	117	0.27	17	0.23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21,437	42.87	19,542	45.72	1,895	26.09
	장치·기계 조작원, 조립원	8,191	16.38	7,274	17.02	917	12.63
	단순노무직 근로자	2,981	5.96	2,739	6.41	242	3.33
	군인	59	0.12	59	0.14	0	0.00
	전체	50,002	100.00	42,740	100.00	7,262	100.00
취업 방법별	학교추천	21,056	42.11	17,544	41.05	3,512	48.36
	채용시험	2,155	4.31	1,708	4.00	447	6.16
	친구·친지소개	4,723	9.45	3,978	9.31	745	10.26
	실습	18,993	37.98	16,918	39.58	2,075	28.57
	부모경영사업	982	1.96	909	2.13	73	1.01
	자영	157	0.31	140	0.33	17	0.23
	기타	1,936	3.87	1,543	3.61	393	5.41
	전체	50,002	100.00	42,740	100.00	7,262	100.00
전공 여부별	전공분야	42,347	84.69	36,790	86.08	5,557	76.52
	다른분야	7,655	15.31	5,950	13.92	1,705	23.48
	전체	50,002	100.00	42,740	100.00	7,262	100.00

<부표 5> 상업계열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	빈도	%	빈도	%
산업별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어업	276	0.37	45	0.43	231	0.37
	광업	17	0.02	5	0.05	12	0.02
	제조업	29,270	39.74	3,882	37.00	25,388	40.20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964	1.31	234	2.23	730	1.16
	건설업	2,571	3.49	374	3.56	2,197	3.48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8,273	11.23	1,681	16.02	6,592	10.44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746	5.09	608	5.79	3,138	4.97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6,717	9.12	439	4.18	6,278	9.94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6,332	22.17	2,527	24.08	13,805	21.86
	기타	5,486	7.45	698	6.65	4,788	7.58
	전체	73,652	100.00	10,493	100.00	63,159	100.00
직업별	입법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	0.00	0	0.00	1	0.00
	전문가	240	0.33	44	0.42	196	0.31
	기술공, 준전문가	1,624	2.20	639	6.09	985	1.56
	사무직원	37,108	50.38	3,028	28.86	34,080	53.96
	서비스근로자, 판매근로자	16,157	21.94	3,231	30.79	12,926	20.47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294	0.40	45	0.43	249	0.39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8,217	11.16	1,100	10.48	7,117	11.27
	장치·기계 조작원, 조립원	3,748	5.09	837	7.98	2,911	4.61
	단순노무직 근로자	6,239	8.47	1,553	14.80	4,686	7.42
	군인	24	0.03	16	0.15	8	0.01
	전체	73,652	100.00	10,493	100.00	63,159	100.00
취업 방법별	학교추천	47,596	64.62	4,842	46.15	42,754	67.69
	채용시험	4,445	6.04	426	4.06	4,019	6.36
	친구·친지소개	10,235	13.90	1,952	18.60	8,283	13.11
	실습	7,306	9.92	2,374	22.62	4,932	7.81
	부모경영사업	1,367	1.86	405	3.86	962	1.52
	자영	295	0.40	84	0.80	211	0.33
	기타	2,408	3.27	410	3.91	1,998	3.16
	전체	73,652	100.00	10,493	100.00	63,159	100.00
전공 여부별	전공분야	53,435	72.55	6,274	59.79	47,161	74.67
	다른분야	20,217	27.45	4,219	40.21	15,998	25.33
	전체	73,652	100.00	10,493	100.00	63,159	100.00

<부표 6> 수산 및 해양계열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	빈도	%	빈도	%
산업별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어업	155	17.88	150	20.11	5	4.13
	광업	0	0.00	0	0.00	0	0.00
	제조업	188	21.68	142	19.03	46	38.02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10	1.15	10	1.34	0	0.00
	건설업	7	0.81	7	0.94	0	0.00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10	1.15	9	1.21	1	0.83
	운수, 창고 및 통신업	241	27.80	241	32.31	0	0.00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2	0.23	0	0.00	2	1.65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91	10.50	34	4.56	57	47.11
	기타	163	18.80	153	20.51	10	8.26
	전체	867	100.00	746	100.00	121	100.00
직업별	입법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0	0.00	0	0.00	0	0.00
	전문가	0	0.00	0	0.00	0	0.00
	기술공, 준전문가	439	50.63	429	57.51	10	8.26
	사무직원	47	5.42	2	0.27	45	37.19
	서비스근로자, 판매근로자	62	7.15	39	5.23	23	19.01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141	16.26	141	18.90	0	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65	7.50	46	6.17	19	15.70
	장치·기계 조작원, 조립원	60	6.92	44	5.90	16	13.22
	단순노무직 근로자	53	6.11	45	6.03	8	6.61
	군인	0	0.00	0	0.00	0	0.00
	전체	867	100.00	746	100.00	121	100.00
취업 방법별	학교추천	424	48.90	409	54.83	15	12.40
	채영시험	18	2.08	8	1.07	10	8.26
	친구·친지소개	68	7.84	45	6.03	23	19.01
	실습	308	35.52	243	32.57	65	53.72
	부모경영사업	22	2.54	20	2.68	2	1.65
	자영	4	0.46	4	0.54	0	0.00
	기타	23	2.65	17	2.28	6	4.96
	전체	867	100.00	746	100.00	121	100.00
전공 여부별	전공분야	750	86.51	651	87.27	99	81.82
	다른분야	117	13.49	95	12.73	22	18.18
	전체	867	100.00	746	100.00	121	100.00

<부표 7> 가사실업계열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	빈도	%	빈도	%
산업별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어업	0	0.00	0	0.00	0	0.00
	광업	0	0.00	0	0.00	0	0.00
	제조업	118	19.16	0	0.00	118	19.54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18	2.92	0	0.00	18	2.98
	건설업	18	2.92	0	0.00	18	2.98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126	20.45	12	100.00	114	18.8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7	2.76	0	0.00	17	2.81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14	2.27	0	0.00	14	2.32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247	40.10	0	0.00	247	40.89
	기타	58	9.42	0	0.00	58	9.60
	전체	616	100.00	12	100.00	604	100.00
직업별	입법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0	0	0	0.00	0	0.00
	전문가	53	8.60	0	0.00	53	8.77
	기술공, 준전문가	16	2.60	0	0.00	16	2.65
	사무직원	79	12.82	0	0.00	79	13.08
	서비스근로자, 판매근로자	311	50.49	5	41.67	306	50.66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0	0.00	0	0.00	0	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88	14.29	7	58.33	81	13.41
	장치·기계 조작원, 조립원	32	5.19	0	0.00	32	5.30
	단순노무직 근로자	37	6.01	0	0.00	37	6.13
	군인	0	0.00	0	0.00	0	0.00
	전체	616	100.00	12	100.00	604	100.00
취업 방법별	학교추천	273	44.32	1	8.33	272	45.03
	채용시험	9	1.46	0	0.00	9	1.49
	친구·친지소개	112	18.18	3	25.00	109	18.05
	실습	150	24.35	8	66.67	142	23.51
	부모경영사업	22	3.57	0	0.00	22	3.64
	자영	7	1.14	0	0.00	7	1.16
	기타	43	6.98	0	0.00	43	7.12
	전체	616	100.00	12	100.00	604	100.00
전공 여부별	전공분야	373	60.55	12	100.00	361	59.77
	다른분야	243	39.45	0	0.00	243	40.23
	전체	616	100.00	12	100.00	604	100.00

<부표 8> 예술계열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	빈도	%	빈도	%
산업별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어업	12	2.30	0	0	12	3.74
	광업	0	0.00	0	0	0	0.00
	제조업	248	47.51	117	58.21	131	40.81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5	0.96	1	0.50	4	1.25
	건설업	22	4.21	2	1.00	20	6.23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23	4.41	10	4.98	13	4.05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4	2.68	2	1.00	12	3.74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8	1.53	0	0.00	8	2.49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69	32.38	66	32.84	103	32.09
	기타	21	4.02	3	1.49	18	5.61
	전체	522	100.00	201	100.00	321	100.00
직업별	입법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0	0.00	0	0	0	0.00
	전문가	0	0.00	0	0	0	0.00
	기술공, 준전문가	74	14.18	56	27.86	18	5.61
	사무직원	263	50.38	94	46.77	169	52.65
	서비스근로자, 판매근로자	118	22.61	27	13.43	91	28.35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12	2.30	0	0.00	12	3.74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23	4.41	15	7.46	8	2.49
	장치·기계 조작원, 조립원	23	4.41	8	3.98	15	4.67
	단순노무직 근로자	9	1.72	1	0.50	8	2.49
	전체	522	100.00	201	100.00	321	100.00
취업 방법별	학교추천	265	50.77	84	41.79	181	56.39
	채용시험	10	1.92	4	1.99	6	1.87
	친구·친지소개	115	22.03	44	21.89	71	22.12
	실습	59	11.30	45	22.39	14	4.36
	부모경영사업	34	6.51	19	9.45	15	4.67
	자영	5	0.96	2	1.00	3	0.93
	기타	34	6.51	3	1.49	31	9.66
	전체	522	100.00	201	100.00	321	100.00
전공 여부별	전공분야	348	66.67	142	70.65	206	64.17
	다른분야	174	33.33	59	29.35	115	35.83
	전체	522	100.00	201	100.00	321	100.00

<부표 9> 일반계열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	빈도	%	빈도	%
산 업 별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어업	90	6.65	87	10.56	3	0.57
	광업	0	0.00	0	0.00	0	0.00
	제조업	412	30.45	309	37.50	103	19.47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34	2.51	34	4.13	0	0.00
	건설업	34	2.51	27	3.28	7	1.32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91	6.73	38	4.61	53	10.02
	운수, 창고 및 통신업	26	1.92	20	2.43	6	1.13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36	2.66	6	0.73	30	5.67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505	37.32	233	28.28	272	51.42
	기타	125	9.24	70	8.50	55	10.40
	전체	1,353	100.00	824	100.00	529	100.00
직 업 별	입법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0	0.00	0	0.00	0	0.00
	전문가	11	0.81	8	0.97	3	0.57
	기술공, 준전문가	152	11.23	141	17.11	11	2.08
	사무직원	227	16.78	77	9.34	150	28.36
	서비스근로자, 판매근로자	443	32.74	193	23.42	250	47.26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96	7.10	87	10.56	9	1.70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162	11.97	99	12.01	63	11.91
	장치·기계 조작원, 조립원	137	10.13	135	16.38	2	0.38
	단순노무직 근로자	124	9.16	83	10.07	41	7.75
	군인	1	0.07	1	0.12	0	0.00
	전체	1,353	100.00	824	100.00	529	100.00
취업방법별	학교추천	487	35.99	338	41.02	149	28.17
	채용시험	38	2.81	23	2.79	15	2.84
	친구 및 친지 소개	445	32.89	225	27.31	220	41.59
	실습	147	10.86	102	12.38	45	8.51
	부모경영사업	40	2.96	36	4.37	4	0.76
	자영	14	1.03	12	1.46	2	0.38
	기타	182	13.45	88	10.68	94	17.77
	전체	1,353	100.00	824	100.00	529	100.00
전공여부별	전공분야	354	26.16	291	35.32	63	11.91
	다른분야	999	73.84	533	64.68	466	88.09
	전체	1,353	100.00	824	100.00	529	100.00

기본연구 01-15

실업계 고등학생 취업지도 개선방안 연구

2001년 10월 일 인쇄
2001년 10월 일 발행

발행인 강 무 섭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135-949)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 3485-5000, 5100
팩 스: (02) 3485-5200

등 록 제16-1681호 (1998. 6. 11)
ISBN 89-8436-284-0 93370

인쇄처 대한인쇄사 (전화 : 2279 - 7834)

 값 5,000원

■ 보고서 내용 문의
전화: 02-3444-2602, E-mail: ydlee@krivet.re.kr